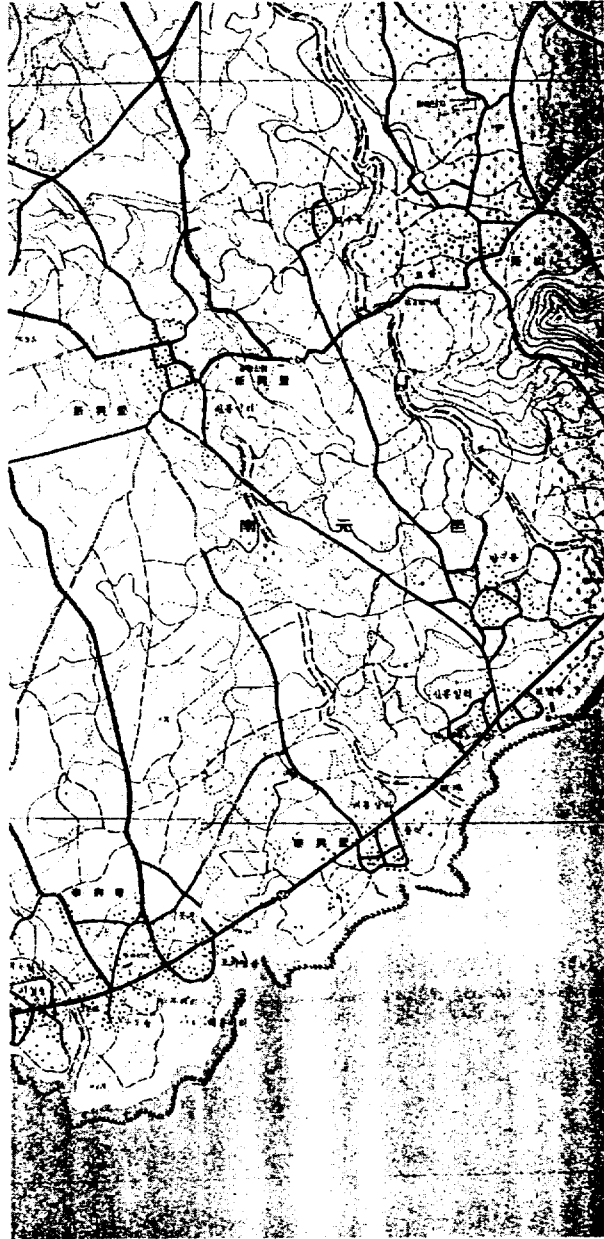


南濟州郡 南元邑 新興里 現地學術調查報告

(2005. 7. 29 ~ 8. 2)

1. 조사경위
2. 마을개황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앙



신항리 부근 지도

조사경위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 방학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벌써 27번째가 된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보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도 마을개황이나 방언, 민요, 설화, 신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동안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5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 까지 3박 4일 동안 南濟州郡 新興里에서 이루어졌다. 답사경위와 조사경위는 아래와 같다.

4월 초순경에 南濟州郡 新興里로 학술조사 장소가 확정되자, 본격적인 사전답사에 앞서 新興里 마을 회장님과 사무장님, 노인 회장님을 만나,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 후 홍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홍산초등학교를 숙박 장소로 빌릴 수 있었다.

1차 사전답사는 5월 22일에 이루어졌다. 각반 반장들과 함께 신흥1리 마을

회관을 찾아가 사무장님께 마을지도를 받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신흥1리와 신흥2리 지리를 파악하였다. 신흥2리에 속하는 고수동의 경우 신흥1리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미리 지리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학술조사를 진행해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반 반장들과 함께 미리 살펴봄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신흥2리 노인회장님을 만나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제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사전답사는 5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신흥1리를 중심으로 1차 사전답사에서 파악했던 제보자들을 만나서 학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다. 오인갑 할아버지와 김일천 할아버지를 만나 설촌 유래와 민요, 포제에 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술조사 당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또한 현길생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예전 신흥리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에 관한 이야기와 부인되는 김인열 할머니께 포제에서 여제관을 지내셨다는 이야기 등 신흥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차 사전답사는 6월 21일에 이루어졌다. 김갑생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설화, 신앙, 방언 등 마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김만권 할아버지께 설촌 유래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을 포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신흥2리장님께 소개받은 제보자들을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분도 계셨고, 몸이 불편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신흥리는 1리는 매월 15일·30일, 신흥2리는 매월 1일·16일에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당일날 사전답사동안 파악했던 제보자 외에 많은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었다.

본 조사에는 재직 교수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하였다. 재직 교수님으로는 최규일, 김태곤, 안성수, 문성숙, 손오규, 현승환 교수님, 국어교육과 총동문회(김종식 회장님) 임원진과 동문들로는 양정환, 고진숙, 변영철, 그리고 현대문학 연구회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원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

셨다. 특히 현승환 교수님과 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본 조사에서도 숙식을 같이 하며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 안은 학년]

- 국어교육과 회장: 김진철(3)
- 학술부 부장: 이민희(3), 차장: 김수홍(3), 신재연(2)
- 마을개황: 김선영, 김보경, 차은미, 채정효, 한인숙(3), 박상원, 양유아, 주상현, 최현식(2), 박고운, 신동진, 정민희, 정영주(1)
- 방언: 강성봉, 김현지, 양보라, 양희욱, 홍기환(3), 김정숙, 김정옥, 박상언(2), 강창우, 김민아, 김부름, 민경진(1)
- 민요: 박윤미, 구어진, 김이랑, 함지영, 현준영(3), 강주화, 강현이, 김희현, 이충훈, 정은지(2), 김현아, 양성호, 한아름(1)
- 신앙: 김지현, 강희진, 문경미, 임하정(3), 이치현, 정은진, 조나리, 강영찬(2), 고은희, 김관태, 김수지, 백두산(1)
- 설화: 고진선, 강수현, 강희경, 고희주, 송윤정, 이예슬, 이정미(3), 김경희, 김나래, 양철석, 이승훈(2), 권예나, 안영건, 윤창영, 이은경(1)

조사일정은 아래와 같다.

제1일(7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물품을 점검하였다. 오전 9시 40분에 학교 버스를 이용해 출발, 10시 50분경에 홍산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까지 인원을 나누어 숙소정리와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점심을 먹고 2·3차 조사를 실시하고 각 반별로 모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제2일(7월 30일): 9시까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 동안 전체모임을 가져 각 반별로 의견을 교류하였다. 그 뒤 4·5·6차 조사와 함께 반별모임을 가졌다. 6차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각 반별로 모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제3일(7월 31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각 반별모임을 가져 미비한 부분을

파악한 후 7·8·9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비한 부분의 조사를 마치기 위해 늦게까지 고생한 학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수님과 재학생, 동문이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4일(8월 1일): 아침식사를 하고 각 반별로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였다. 홍산초등학교를 출발하여 11시 40분경에 학교로 돌아왔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신흥1리, 신흥2리 마을 회장님 이하 마을 주민들과 홍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조리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서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사전답사에 함께 도와준 현준영 학우와 현지에서 땀 흘리며 늦게까지 고생하며 조사를 맡아준 각 반의 반장과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마을개황

<목 차>

1. 자연환경
2. 역사적 배경
3. 인문환경
4. 산업환경
5. 세시풍속

1. 자연환경

신흥리는 남원읍 동쪽 끝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상 신흥1리와 신흥2리로 나누어져 있다. 신흥1리는 서로는 태흥 3리와 북으로는 신흥2리와 접해있으며 마을 동쪽에 송천이 흐르고 있어 표선면과 경계를 이룬다. 전체 면적은 422ha로 남원읍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과수원(207ha)이 전체면적의 49.1%로 감귤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일주도로(국도 12호선)가 통과하는 해안을 끼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어 화물 수송 및 대중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나 교육 문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흥2리는 표선면 경계 및 수망리 경계와 맞닿는 곳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서로는 의귀리, 남으로는 태흥 3리, 신흥1리와 접해 있고 마을 북동쪽으로 송천이 흐르고 있다. 전체 면적은 1514.2ha로 남원읍 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에 따른 구성비를 보면 임야(1004ha) 66.3%, 과수원(365ha)

24.1%, 전(95ha) 6.3%, 기타(50ha) 3.3%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 문화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중산간 지역을 연결한 중산간 도로(국도 16호선)가 마을 안을 통과하고 있으나 마을 내 도로망이 협소하여 교통 소통 및 화물 수송을 위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 신흥2리에는 도지정 문화재 제27호인 동백나무 군락지 외에도 동백나무 고목이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용수상황을 살펴보면 신흥1리는 해안을 끼고 취락이 형성되어 주로 바닷가 용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도 물이 솟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으나 개발로 인해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어위 관정, 캣도르 관정 등 관정이 설치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신흥2리는 중산간 마을로서 식수가 부족하여 냇가에서 봉천수를 급수하다가 약 2킬로미터나 되는 새물(세멘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마셨다. 1904년에 셋동물에 봉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급수통을 만들었으나 한 달 정도가 물게 되면 물이 말라버려 수망리, 신흥1리, 의귀리 등지로 우마차를 이용하여 물을 길어다 사용했다. 1966년 처음 수도물을 사용하게 되었고(공동수도), 3차의 수자원 개발 끝에 1974년 5월에 지하수 개발에 성공하여 1976년에는 각 가정에 수도가 공급되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수질이 가장 좋아 이 지역 지하수를 도 전역에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대형정수장(남원정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신흥1리에는 보조정수장이 연결되어 있다.

2. 역사적 배경

1) 설촌유래

조선 태종 16년(서기 1416) 제주목이 제주, 정의, 대정 등 3개의 지방행정 구역으로 분리된 후 숙종 32년(서기 1706)에 김명환(광산 김씨)이 현재 표선

면 토산1리에서 신흥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약 10년 후 김명추, 김명휘 형제가 신흥리에 정착하여 그 때부터 신흥리의 이름을 여은/여호내 또는 온천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고수동(古水洞)은 동중면 토산리에 속해있어 서토산이라 부르다가 서기 1910년 세부 측량시 솔내(송천)를 면의 경계로 함으로써 신흥리에 속하면서 고수동(高水洞)이라 하였다. 그 후 1932년에 면소재지가 의귀리에서 남원리로 옮겨지면서 高가 古로 바뀌어 현재 고수동(古水洞)이라 명하고 있다. 지금의 석수동은 석동이란 사람이 처음 들어와 살았다 하여 '석동이터'라고 하던 것이 석집터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은 행정구분으로 석수동(石水洞)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소칭 물도왓(水道田)도 고수동과 같은 해에 수도동이라 하여 신흥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신흥1리에 속하고 있는 방구동(方龜洞/방구렁)은 신흥2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촌되었으며, 해안가에 위치한 보말동(保末洞)은 한일합방 얼마 전에 설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2년에 마을 이름을 여러네가 번창하라는 뜻(새롭게 일어나라)에서 신흥리로 개칭하였으며, 1952년에 신흥 1,2구로 분리되었고, 1961년 8월에 신흥 1,2리로 바뀐 것이 오늘에 이른다.

<자료제공: 신흥1리 향토지, 신흥2리 여절약>

2) 행정구역 변천

- 1416년 조선태종 16년 정의현 설치. 면치소를 의귀리에 둬. 김명환이 토산1리에서 신흥리로 입주.
- 1902년 세부 측량. 신흥리라 개칭.
- 1911년 정의면 중면을 분할. 서중면 설치.
- 1915년 제주도 정의면으로 개칭.
- 1926년 3월 20일 면사무소 남원리로 이전.
- 1935년 4월 1일 제주도 남원면으로 개칭.

- 1946년 8월 1일 도제 실시 - 남제주군에 속함.
- 1952년 신흥 1, 2구로 분리.
- 1961년 8월 신흥1, 2리로 개칭.
- 1980년 12월 1일 남원읍으로 승격. 대통령 제 10050호

3) 문화 유적과 특이 지형

(1) 셋동물



셋동물

· 위치 : 신흥2리 리사무소 동쪽

본디 이말읍의 설촌터의 동집과 서집 사이 동쪽에 있는 냇물 중에서 가운데 자리잡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식수와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이용했으나 지금은 방치되어 있다.

(2) 여절악(如節岳)/예절이악(禮節伊岳)/예절이오름/여찌리오름



여절악

· 위치 : 신흥2리 북쪽

신흥2리에 위치한 오름 이름이다. 이 오름의 봉우리를 '건지뿌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인 여성이 틀어 올려 얹은머리를 하고 절을 하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름 앞쪽으로는 콩을 비롯한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입구에 포제단이 있다.

(3) 앞골세/ 전곡천(前谷川)

· 위치 : 신흥2리 리사무소 서쪽

신흥2리 설촌터인 동집, 서집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냇골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건천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 현재 앞골세 주변으로 감귤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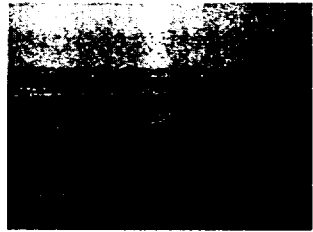


앞골세

(4) 냇바르

· 위치 : 신흥1리 19번지 일대

바다와 하천하류가 합쳐지는 지점으로 평소에 주민들이 썰물 때를 이용해서 소라를 잡는다. '바르'는 바다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인데 본디 뜻과는 달리 '바룻' 등과 아울러 식용할 목적으로 썰물때 바닷가에서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혹은 그 행위를 하는 바다를 일컫는 말로 주로 쓰인다.



냇바르

(5) 고수동 거옥대

· 위치 : 신흥2리 고수동 896번지*

고수동 주거지역의 동편으로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허한 곳으로 여겨, 이것을 막기 위하여 돌탑을 쌓고 위에는 긴 나무에 '十'자 모양의 나무를 꼽아서 세워 놓았다. 돌탑은 마을이 설촌될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무암 막돌로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속은 잡석채움을 하였다. 현재 감귤밭 사이에 돌담경계에 위치하고 있다하나, 주변이 덩굴과 잡초로 우거져 찾아보기 힘들다.

(6) 신흥리 동백나무 군락지

· 위치 : 신흥2리 1599-1번지

1974년 4월 13일에 지방기념물 제 27호로 지정되었다. 이 동백나무 군락지



동백나무군락지

에는 동백나무 고목들이 집단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으며, 동백나무 뿐 아니라 생달나무, 참식나무, 굴나무, 대나무와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고목 3수 등 노거수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신흥리 동백나무는 집주위에 방풍수로 심은 것이며, 팽나무의 고목과 참식나무 등이 섞여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동백나무는 50여 그루이고, 이 중 가장 큰 나무는 근원부 둘레 2.4m, 흉고둘레 1.6m이고, 높이는 12m로서 제주도에서 자라는 동백나무 중 가장 크다. 이곳 외에도 동백나무 고목이 마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복카이내

(7) 복카이내
· 위치 : 신흥1리 373번지 일대
하천이 폭포처럼 떨어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복카이내 앞에는 당이 있는데, 이 당을 '복카이당'이라 부른다. 또한 이 일대에는 협소한 경작지가 있어 이를 '복카이'라고 부른다. 현재도 남아있어 그 모습을 살필 수 있으나, 하천 주변공사 때 이 일대에 채석작업이 이루어져 이후 물 떨어지는 높이가 낮아졌다고 한다.



고잘마루

(8) 고잘마루
· 위치 : 신흥1리 214번지 일대
이 언덕의 연못에서 거북이가 놀았는데 이 거북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높이 독을 쌓아 막았다는 뜻에서 본디 '고적마루'라 불리던 것이 변형되어 '고잘마루'라고 부르게 되

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있다.

3. 인문환경

1) 인구현황

신흥리의 2005년 8월 현재 전체인구는 남원읍 전체인구(19,453명)의 약 8%로 총 577세대, 1,578명이다. 이중 남자 인구는 788명, 여자 인구는 790명으로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 전체면적은 신흥2리가 신흥1리보다 3.5배 정도 넓으나, 인구수는 약 2배정도 많아 인구밀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신흥리 인구현황

구 분	인구수 (명)			세대수
	남	여	계	
신흥1리	490	505	995	369
신흥2리	299	295	593	209
계	788	790	1,578	577

<2005. 8 남원읍사무소 제공>

2) 마을단체

마을 자생단체로는 신흥1리와 신흥2리에 각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가 있으며 신흥1리의 어촌계가 있다.

(1) 부녀회

신흥리 부녀회는 신흥1리와 신흥2리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서로 특별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신흥1리의 부녀회는

마을 자치 단체의 하나로 노인회, 청년회, 어촌계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흥1리의 부녀회는 현재 4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신흥1리에 거주하는 55세미만 부녀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하여 자유로운 회원가입과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임원은 직전회장(1), 회장(1), 부회장(1), 총무(1), 감사(2)로 구성되어 있다. 직전회장은 현 회장 전에 회장을 역임했던 임원으로 현재의 회장의 활동에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사가 한해의 장부검사와 회의록을 검사함으로써 더 나은 부녀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1리에는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임원이외에도 각반에 살고 있는 부녀회원들을 1명씩 정해 반장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13개 반중 10개 반장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계절별로 나누어지는데 여름에는 미숫가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고추판매, 겨울에는 떡국을 만들어 리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이외에 군에서 지원받는 활동으로 풀베기 사업이 있고, 폐농약병,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모아 팔기도 한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활동을 통해 나온 수익금은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되어 2년에 한번 노인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연2회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한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하계 때는 쌀을 나누어 주고 동계 때는 기름값으로 현금을 모아 준다. 부녀회의 특별한 회칙은 없으나 1년에 농약병 80킬로그램 포대로 3포대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5000원을 내거나 제명당한다는 규칙이 있다.

신흥2리의 부녀회원은 현재 40명이며 자격요건은 마을에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기혼자로, (거주시기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의무가입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감사(1)로 구성되어 있다. 직전회장이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반별로 반장 1명씩을 두고 있다. 임원을 선출할 때는 우선 자신으로 뽑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들이 추천하여 선거를 통해 뽑는다. 회장 임기는 2년이

며 원하는 경우 재입도 가능하다. 정기총회는 일년에 1번, 연초에 실시하며 긴급 사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연다. 주로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주요 활동으로는 경로우대차원의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잔치 음식을 대접 등이 있다. 수익사업으로 폐품수거와 기타 일거리를 통해 운영비를 조성하고, 복지사업으로는 마을 회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요가,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에는 노인들이 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일손을 돕기도 하며, 기회가 있을 때 회비를 모아 국수 등을 대접하기도 한다. 운영비는 자체적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며 기금조성을 위한 회비를 걷기도 한다.

(2) 청년회

신흥1리 청년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신흥1리 청년회 (이하 청년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청년회 사무소는 신흥1리 리사무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청년회는 신흥1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조직 단체로써 아래의 목적을 둔다.

- 1) 신흥1리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회원이 협동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봉사를 자발적으로 한다.
- 2) 각종 사회단체와의 이해 및 친선을 도모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운영 원칙) 본 청년회는 특정 정당, 종교, 사회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

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 본 청년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 시행 및 협조
- 2) 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청년회 회원은 신흥1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써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청년은 자동회원이 된다. 단 주소지를 퇴거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자동 탈퇴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권 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각종 규칙 제정권, 감독권을 갖는다.
- 2) 의 무: 본 청년회 회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고 청년회 사업에 열성적인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기 구

제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1월중)
-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공고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25인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의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정기, 임시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정관의 개정
 - ② 임원의 선출, 임명 해임
 - ③ 사업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기타 본 청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임시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보선
 - ② 사업예산안 심의
 - ③ 기타 본 청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임원회)

- 1) 구성: 회장, 부회장(내무, 외무) 총무, 각부장, 직전회장
- 2) 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
 - 나. 총회 및 임원에 위임된 사항
 - 다.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의결

제4장 고문 임원

제12조(고 문)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리 지도층 인사로 고문 2인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신흥1리 청년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내무, 외무)

③ 각 부장 5인(총무, 사업, 지도, 체육, 섭외)

④ 직전회장

제14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중에 보임된 임기는 잔기로 한다.
- 3) 임기 종료 후 임원은 후임자를 취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후임자를 선출, 임명하여야 하며 선출 절차는 제 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부재시 그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3) 감사는 업무 집행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고 총회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4) 부장은 해당 부서의 상황을 연구, 심의, 이행한다.
- 5) 직전회장은 회장에 준한 예우를 하며 청년회운영에 대한 협조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계연도) 본 청년회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이다.

제18조(수입) 본 청년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사업 수입,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비 운영) 회비 운영은 통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 1) 본 청년회 예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 2) 결산은 정기총회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관 리

제21조(서류의 비치)

- 1) 정관
- 2) 재산 목록
- 3) 회원 명부
- 4) 회의록 일지
- 5) 회의 참석자 명부
- 6) 기타 본 회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한다. 단, 회장은 회원이 서류 관리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결산 서류 보고) 회장은 정기총회의 5일 전까지 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수지 결산, 재산 목록을 작성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서

제23조(설치 목적) 본 청년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 1) 총무부

- 2) 사업부
- 3) 지도부
- 4) 체육부
- 5) 섭외부

가. 각 부의 부서 및 임명

(1) 부장 : 1명

부원은 인원수를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전 청년회 회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2) 부장의 권한

- ① 총무부장 : 본 회의 제반 업무(사업) 수행에 참여하여 기록 관리하며 기획,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 ② 사업부장 : 본 회의가 총괄하는 제반 사업의 계획 수립에 대한 일을 관장한다.
- ③ 섭외부장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외교섭, 공고, 회보,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수집, 편집,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한다.
- ④ 지도부장 : 본 회의 일반업무 및 회원간의 단합, 동원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 ⑤ 체육부장 : 본 회의 체육 발전 및 대,내외의 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8장 회칙 개정

제24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25명 출석에 출석회원2/3이상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9장 감사

제25조(감사)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내용을 보고 한다.

제26조(분담 사항의 연구, 심의) 각 부서는 분담 사항을 연구, 심의하여 이를 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서기 199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신흥2리 청년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흥2리청년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신흥2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구성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신흥2리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도내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 45세 까지로 한다.(단, 군필 또는 면제자)

제5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반 규칙을 준수하며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칙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8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신흥2리에 거주하면서 본 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의 고문을 추대한다.
- 2) 신흥2리 이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4장 임원 및 대의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직전회장 1인
- 3) 부회장 2인(내무, 외무)
- 4) 감사 2인
- 5) 총무부장 1인
- 6) 지역사회개발부장 1인
- 7) 사업부장 1인
- 8) 문화체육부장 1인
- 9) 시설관리부장 1인
- 10) 홍보부장 1인

제10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 부회장은 자진출마를 우선으로 하고 1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 자진 출마자가 없을 경우 전형위원회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신흥리 연합청년회, 남원읍 연합청년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임기 중에 보임된 자는 남은 기간만 맡는다.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내무, 외무순)이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여 남은 임기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 3) 선거직 임원 결원 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괄한다.
- 2) 직전회장은 회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회 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무부회장은 총무부, 지역사회개발부, 사업부를 관장하고 외무부회장은 문화 체육부, 시설관리부, 홍보부를 관장한다.
- 4) 총무부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기록과 기획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5) 지역사회개발부장은 청소년 지도 및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 6) 사업부장은 본 회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다.
- 7) 문화체육부장은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분야를 담당한다.
- 8) 시설관리부장은 본 회가 관장하는 모든 시설물 및 운동장관리를 담당한다.
- 9) 홍보부장은 본 회의 홍보분야 업무 및 섭의를 담당한다.

제14조 (감사의 권한과 임무) 본 회 감사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는 업무 시행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2) 감사는 필요시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시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3)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감사를 병장하여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회의 소집과 의장) 본회 회의 소집과 의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 : 다음에 해당 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가. 회장의 임기 만기 년도 12월 중(임원선출)
 -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다. 임원 2/3이상 또는 회원 1/3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할 시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회의의 성원 및 의결)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회의의 의결 사항)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회는 총회에 제출해야 할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제6장 사업

제19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개발 및 마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및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7장 제정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 스스로 해결하며 선의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당 해년 사업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결산은 회장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재무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상벌

제23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한다.

제24조 (자격상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될 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원의 사망 또는 파산 및 금치산 자
2. 본회의 회망으로 탈회 신청
3. 제명
 - 가. 본 회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 나. 회계연도의 회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

부칙

제1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산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본 회의 모든 자산은 신흥2리에 귀속된다.)

제2조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효한다.

제4조 (시행일) 1972년 2월 24일 제정 시행일

1987년 3월 9일 제1차 개정

1991년 3월 11일 제2차 개정

1993년 2월 28일 제3차 개정

1996년 1월 27일 제4차 개정

2003년 1월 27일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노인회

신흥1리의 노인회는 1981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 회원수는 총 152명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원은 회장(1) 부회장(2) 사무장(1) 게이트볼 회장(1) — 게이트볼 팀은 협동, 근면, 화목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사(13) 감사(2)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임원 또한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위임한다. 정기초회는 1년에 한번, 임시총회는 매달 15일과 말일에 한다. 임시총회 시에는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를 한다. 주요활동으로는 농약병 모으기와 청소, 풀베기 활동이 있으며, 회비는 없고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마을에서 회사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신흥2리의 노인회는 1994년에 시작되어 현 회원수는 74명(남 23명, 여 51명)으로 1리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원은 회장(1), 고문(2, 직전회장), 부회장(남녀 각각 1인), 감사(2), 이사(4 일반이사 남녀 각각 2인), 사무장(1)으로 구성 되어 있다. 회장은 임기는 4년이며 임

원 선출은 정회원(가입과 동시에 정회원)들이 일괄 선출하거나 회장단에게 위임 후 위원회를 열어 선출한다. 매월 1일과 16일에는 보건소에서 내방진료를 실시하며 매월 1회 한방진료(침술)가 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하순에 실시하고 회관 관리는 80세 이하의 분들이 당번제로 청소를 하고 있다. 수입은 연 80만원을 연료대로 군에서 지원 받고 있으며, 일반 운영비로 190만원을 군에서 분기별로 지원 받고 있다. 정월 초 합동세배 시에 100~150만원 정도의 주민 회사금과 노인회원들의 공병수거로 80~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주요행사 및 업무로는 월례회 매월 1일, 합동세배 음력 정월 2일, 정기총회 매년 1월 하순, 보건진료소 내방진료(월2회), 도 일주 선진지 관광(5~6월 중), 2인 1조 일직 당번근무, 시사정보게시·전달, 농약 공병 수집·판매, 기공체조보건소 지원, 월·수·금, 30여 명 이상,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게이트볼(동호회로 조직-생활체육게이트볼 동호회, 게이트볼장 관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감독 1인, 노인·예절·온천·신성 4팀) 등이 있다.

(4) 어촌계

신흥1리는 해안에 취락이 형성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 이에 어촌계가 형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어촌계 조합원은 총 74명으로 실제 바다 종사자는 현역 해녀 34명과 어부 15명이며, 나머지는 전에 어업에 종사했던 자들이다. 가입 자격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총대회의에서 적격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와만 가입할 수 있다. 1983년도 이전에는 법이 어촌계였으나 1983년도부터 비법인 어촌계로 전환되어 활성화 되었다. 1년에 한번 2월에 정기총회를 실시하며 수시로 총대회의를 갖고,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연말 결산총회를 하기 전 미리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은 어촌계장(1), 감사(1), 총대(12), 접수회장(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장 선출은 추천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한 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어촌계 활동으로는 어부는 배를 타고 다금바리, 돌돔, 능성어, 우럭 등의 다양

한 어종의 고기를 잡고, 잠수부는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하여 수협에서 일괄 경매한다. 신흥리 바다를 수산청에서 어촌계가 임대 받아 작업을 하는 일종의 공동어장이 있는데, 도나 군에서 지원받은 작은 전복을 살포해서 전족을 양식하고 있다. 공동어장의 이익은 공동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똑같이 분배하며, 수수료 1.5%를 붙여 어촌계 행사나 살림살이에 쓴다. 태풍에 배가 침몰하거나 방파제 보수, 어망 파손 시에 조합이나 군·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액 지원이 아니며,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원되지도 않는다. 수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어촌계 정관에 따라 이행되며 독립된 정관은 없다.

3) 향약

신흥1리와 신흥2리에는 각각 향약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 중 대표로 신흥1리 향약을 살펴보겠다.

[신흥1리 향약]

(2005년 개정판) 마을회 규약-남원읍 신흥1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신흥1리민이 화합하여 마을일에 리민 스스로의 힘을 모아 솔선 참여하고 향토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마을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 칭)

본 마을회의 명칭을 신흥1리 마을회라 한다.(이하 본 마을회라함)

제3조(사무소 위치)

본 마을회의 사무소는 남원읍 신흥리 2481-3번지에 위치한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마을의 구역)

본 마을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동쪽으로는 표선면 토산리와 신흥리 사이에 흐르는 송천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
2. 서쪽으로는 태흥리와 신흥리 사이에 있는 세천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
3. 이하의 경계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리민실천사항)

본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1. 근면, 자조, 협동으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검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한다.
3. 허례 허식과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4. 서로 사랑하며 상부상조한다.
5. 경로사상을 고취하며 예절을 지킨다.
6. 범죄없는 명랑하고 밝은 마을로 육성한다.
7. 그밖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 마을회의 회원은 본 마을 구역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구성한다.

제7조(정회원, 정세대)

정회원은 자립능력이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노인일지라도 18세 이상의 노동력이 있는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세대로 정한다.

제8조(준회원, 준세대)

준회원은 노동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세대와 17세 이하의 생계곤란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 ㄱ. 선거권은 정회원과 준회원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ㄴ. 피선거권은 본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② 발언권과 의결권

③ 각 단체의 참여권

2. 의무

① 리운영비 납부

② 각종 사업 및 회의 참여

③ 규약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2005 신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 마을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개발위원회

3. 기타

제11조(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혹은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하며, 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발위원

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방법)

1. 정기총회는 개최 3일전까지 소집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기타의 회의는 공고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작성과 서명날인)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상의 서명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을 변경하는 일
2. 사업 및 예산을 승인하는 일
3. 결산안을 승인하는 일
4. 마을 공동재산을 취급 또는 처분하는 일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일
6. 임원을 선출하는 일
7. 기타

제15조(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는 10~20인으로 구성하고 리장, 직전리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연합청년회장(본리회장시), 청년회장, 부녀회장은 당연직 개발위원이 된다.

제16조(개발위원회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3. 임원의 자격 심의
4. 정세대 및 준세대 심의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채택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7. 기타

제17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당 성원 미달로 2차 총회시 회원 35명 이상 참석으로 한다.
2. 개발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구성) 본 마을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리장 1인
2. 개발위원장 1인
3. 새마을지도자 2인
4. 개발위원 10~20명
5. 자문위원 약간명
6. 감사 2인
7. 반장 13인

제19조(임원의 선출)

1.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자문위원은 이장이 위촉하여 총회시 발표한다.
3. 반장은 반단위 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유임)할 수도 있다. 결원시에는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1. 리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총회 및 개발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을 집행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
2. 개발위원은 향토개발을 전담하는 전문요원으로서 개발계획의 검토와 추진요령을 연구하여 임원회에 반영하며 리장 유고시 개발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사업을 관장하며 각종 용자 및 보조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이 시행될 때는 지도 감독한다.
4. 감사는 각종 사업 및 예산 집행 상태를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반장은 주민과 리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일선 업무를 집행한다.
6. 자문위원은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특별 초청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2조(회계년도)

본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본 마을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및 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2.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사업 및 수익금, 찬조금, 회사금, 성금 등을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24조(특별회계의 집행) 특별회계의 집행은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의해 의결 집행된다.

제25조(재 정)

본 마을회의 재정은 아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고정자산 임대료
2. 마을회원의 회비(리세)
3. 회사 및 찬조금, 성금
4. 도군 지원금
5. 기타의 수익금

제26조(기록보존)

리장은 본 마을회 운영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확히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상별규정

제27조(공로자의 우대)

본 마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벌 칙)

본 규약 제5조 및 제9조2항을 어겨 리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회원에게는 다음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모든 행정사업 지원제한

- 2. 모든 협동조합 지원사업 제한
- 3. 기타사업 지원제한

제7장 부 칙

제29조(부 칙)

- 1. 본 마을회의 규약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마을회의 규약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마을회의 규약은 1997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마을회의 규약은 200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마을회의 규약은 2005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본 마을회의 규약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4) 교육기관

신흥리의 교육기관으로는 신흥리에 위치한 흥산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있다.

학교연혁

1946.9.1	신흥공립국민학교 인가
1946.11.28	개교
1947.3.30	흥산국민학교로 교명 개명
1965.3.1	6학급 편성
195.3.1	12학급 편성
1982.3.10	병설유치원 개원
1986.3.1	제주도 교육청 지정 시범 유치원 운영
1989.3.1	6학급 편성
1989.10.30	농촌형 급식학교 지정(체육부)
1990.6.11	급식소 준공 및 급식 개시
1992.3.1	제주도교육청지정급식시범학교

1992.12.20	2층 3개교실 및 교장실 증축
1994.4.5	푸른교식 171세급미터 신축
1996.3.1	홍산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6.11.4	홍산국민학교 총동문회 창립
2000.3.1	서귀포교육청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
2003.5.1	푸른운동장 조성(300평)
2003.12.20	2층 3개교실 및 교장실, 준비실 증축
2004.3.1	오성희 교장 선생님 부임
2003.6.20	울타리 화단 조경, 배수로 및 주차장 설치
2004.8.31	교실바닥(9개교실) 및 칸막이(개교실)공사
2005.1.18	현대식 어학실 및 과학실 설치
2005.2.15	제56회 졸업생 25명 배출(연인원 2,534명)

<2005.8 홍산초등학교 제공>

학급 편제 및 아동 현황

학 년	유치원	1	2	3	4	5	6	계(유)
학급수	1	1	1	1	1	1	1	6(1)
아 동 수	남	5	7	12	8	11	9	61(5)
	여	3	3	6	9	5	14	44(3)
	계	8	10	18	17	16	23	105(8)

<2005.8 홍산초등학교 제공>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행정	영양사	기능직	일용 잡급	계
남	1	1	·	1	·	1	·	2	·	6
여	·	·	2	4	1	·	1	·	1	9
계	1	1	2	5	1	1	1	2	1	15

<2005.8 홍산초등학교 제공>

학교 경영 개요

① 학교 경영 방향	함께 꿈을 키워 가는 즐거운 학교
② 교육목표	착하고 슬기로우며 건강한 어린이를 기른다.

③ 교육	바르게 알차게 굳세게
④ 학교 상징	교목-동백, 교화-국화, 교석-용두석

5) 복지시설

신흥2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어 복지시설이 미비한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흥리 1758-10번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1985년에 설립되었고, 국가에서 건물이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운영은 지료기관 자체로 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900원(의료보험 가능)이다. 주로 1차 진료(응급, 흔한 상병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독한 환자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 매월 초하루와 16일에는 신흥2리, 15일에는 1리 경로당 진료(혈압이나 당뇨체크)를 하고 있다. 매주 셋째 주(신흥1리), 넷째 주(신흥2리) 수요일에는 한 의사와 함께 한방진료(침술)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장님이 상주하고 있으며 4~5년을 기준으로 발령이 되나, 경우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6) 종교현황

신흥1리에는 신흥교회와 신흥감사교회가 있으며, 신흥2리에는 교회나 절이 없다. 따라서 신흥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신흥 교회를 다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절에 다닌다. 또한 마을 곳곳에 당이 있어 무속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다.

4. 산업환경

신흥1리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주로 반농반어의 형태의 산업구조를 보인

다. 어촌계가 형성되어 어부와 잠수부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사는 주로 감귤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후가 온화하여 농림수산부가 지정한 관광수농원이 자리 잡고 있다. 중산간에 위치한 신흥2리는 광활한 초지(전체 면적의 66.3%)를 이용한 축산업과 감귤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콩을 비롯한 다른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0여 농가가 10만평 규모로 키위를 재배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목장이 유지될 당시에는 축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공동목장 부지에 골프장이 들어서 축산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신흥리 대부분이 감귤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감귤 가격이 하락할 시에는 마을 소득에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감귤의 품질을 높여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세시풍속

1) 1월

① 정월맹질 : 신흥리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떡국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리고 차례가 끝난 후 세배 온 사람들과 어울려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주로 감주³²⁾를 대접하고 어른들께는 술³³⁾을 대접한다. 떡국 대신 메밀국수

32) 차조로 죽을 써서 꿀(누룩 비슷한 것으로 보리나 밀을 물에 넣었다가 건져 이를 이틀정도 방안에 놔두면 짙은 것이 나온다. 계속 물을 주어서 이것이 많이 나오면 이것을 말렸다가 감지 만들 때 고래에 갈아서 사용한다.)가루를 섞어 놔두면 끈다. 이것을 삶아서 체로 걸러서 걸러진 물을 끓이면 꿀감주가 된다. 식혜 비슷한 것으로 맹질 때가 되면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먹고 청주는 제관이나 손님만 준다.

33) 차조를 물에 담갔다가 방에 짚어 가루로 만들어 체로 걸러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고운가루를 만들어 따뜻한 물로 말아서 둥그란 떡(오메기떡)을 만들어 삶는다. 오메기떡을 물과 함께 장태나 낭도구리에 놓아서 죽과 같이 만들어 누룩과 같이 항아리에 넣어서 부엌 구석에 검질에 싸서 놔두면 3일 후에 끈다. 이것을 다시 일주일 정도 놔두면 건더기는 아래로 내려앉고 위에는 열은 노랑 물이 생기는데 위의 것을 청주라 하고 아래의 것을 탁배기

를 상에 올리기도 한다. 여러 가지 떡을 함께 올리는데, 주로 친떡, 인절미, 절편, 솔편, 우친떡(별떡) 순으로 올린다. 이밖에 메밀가루로 빙떡을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옛날에는 '설빔'이라 하여 무명이나 광목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거나 묵은 옷을 빨아서 풀을 들여서 입었다. 아이들은 옷은 광목에 붉은 물을 들여 저고리를 하거나 검은 물을 들여서 치마를 만들었다. 요즘은 명절 다음 날 부녀회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노인정에서 합동 세배를 한다.

② 대보름 : 대보름에는 주로 떡을 해서 먹었는데, 떡 위에 사람이름을 쓰고 쳐서 그 떡이 익는 정도에 따라 한해 운수가 좋고 나쁨을 점쳤다. 또한 각자 달맞이를 하는데, 달맞이를 할 때 굶은 사람은 그림자의 머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당을 찾아가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온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③ 신구간 : 신구간은 신(새해)과 구(묵은 해) 사이를 말하며, 이 기간에는 귀신이 없어서 따로 날을 보지 않고 화장실,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해도 무방하다 — 동티가 나지 않는다. — 하여 주로 이 기간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를 했다. 보통 새칠 드는 날(입춘) 일주일 전부터 10일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날은 4일, 5일 까지라고 한다. 이사할 때는 솔을 가져가서 밥을 해 먹고, 이사하는 것을 보러가는 사람들은 초를 사서 갔다. 빗자루는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으니 가져가지 않았다. 현재도 제주만의 독특한 풍습으로 제주도 전역에 남아있다.

2) 2월

① 영등제 : 영등 하르방이 정월 보름날에 들어와서 2월 14일에 소섬에 가서 게, 보말 잡아먹고 보름날에는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간다고 한다. 그 사이에 날씨가 좋으면 “영등 할아방 우장썩 왔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영등

라 한다. 청주는 제에 쓰거나 제관에게 대접한다.

할아방 괴양 출렁왔져”라고 한다. 영등은 구쟁기, 전복을 잡아먹는데 영등이 나가기 전에 영등제를 잘 지내면 물질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영등이 나가고 난 다음날(16일)은 보름날 나간 자국을 씻는다고 비가 온다고 한다. 신흥리에서는 특별히 영등제는 하지 않고, 바닷일 하는 사람들만 떡, 밥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제를 지내거나, 무당을 빌어 정성을 들인다.

② 입춘 : 새철 드는 날에는 새 귀신이 들어오니 어른으로 위하라는 뜻에서 여자들의 외출과 출입을 금하였다. 여자가 집에 찾아오면 검질(잡초)이 무성해지고 재수가 없다하여 물을 끼얹었고, 반면에 남자가 찾아오면 밥을 대접했다. 때문에 입춘대길 등의 글씨를 써 붙이기도 했다.



신흥2리 포제단

③ 마을 포제 :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정월에 입춘이 지난 정(丁), 해(亥)일을 택하여 제를 지낸다. 제관(초헌, 아헌, 종헌, 전사관, 집례, 대축, 동창, 서창, 알자, 봉향, 봉로, 봉작)은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씨족별로 안배하여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의식 전 1주일 동안 제관

들은 근신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청성을 드린다. 제관들이 모여 '3일 정성'을 드리는 데, 입제일에는 제관을 소집하여 몸을 단장하고, 제복 및 제례과정을 준비하며, 2일째에는 포제홀기(의식 순서를 적은 글)를 작성하며, 제관별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고, 주민들이 제청 방문한다. 마지막 포제당일에는 자정을 기해 포제를 봉해하고 음복을 한다. 현재 신흥1리는 약 40년 전 폐지되었고, 신흥2리에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 3월

① 묘제 : 집마다 묘제를 지내는 날이 다른데, 주로 3월 1일에 많이 하고 6일, 15일에 하는 집도 있다. 묘제는 벌초를 한 후 산에서 제를 지내는데, 음

식은 제사 음식과 다를 것이 없다. 요즘은 빙떡이나 빵을 준비하여 가기도 한다.

② 고사리 꺾기 : 신흥리 사람들은 봄이 되면 물영아리나 여절악 근처로 여럿이 무리지어 고사리를 꺾으러 간다. 조밥을 해서 하얀 광목천에 싸가지고 가거나, 해녀들은 마른 미역에 된장을 싸서 가져가기도 한다.

4) 5월

① 단오 :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아침에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데 음식은 정월맹질이나 추석과 거의 똑같이 한다. 이날 봄 벌초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 벌초를 해두면 가을 벌초가 훨씬 수월해 진다. 4대 명절 중 하나지만, 크게 지내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놀이 또한 전해지지 않는다.

5) 6월

① 갈증이 만들기 : 6~7월에 땀감을 따서 들로 뺀 후에 그것을 광목으로 짠 물에 천(광목이나 무명 등)을 물들이고 — 한번만 들임 — 햇볕에 말려 갈증을 만들어 입는다. 갈증이는 몸에 달라붙지 않아 시원하고, 땀에도 잘 젖지 않아 여름철에 즐겨 입는다.

② 닭 잡아먹기 : 육지부에서는 주로 삼복을 챙기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유월 스무날'에 닭을 챙겨 먹는다. 무더운 여름을 나기위한 몸보신과 귀신에 대한 액땀의 의미로 닭을 잡아먹는다.

③ 개역(미숫가루) : 보리를 솥에서 노릿해질 때까지 볶아서 그것을 갈아 체로 쳐서 걸러낸 것을 개역(미숫가루)이라고 하는데, 주로 더운 여름철에 물



갈증이

에 타서 먹는다. 요즘에는 콩가루를 섞기도 한다.

6) 7월

① 칠월 칠석 :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가족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당에서 칠성별을 보았다.

② 백중제 : 음력 7월 15일에는 목동 백중을 기리고 마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소를 기르는 사람이 산에 가서 제를 드린다. 평소 마소가 풀을 뜯던 곳에서 제를 지내며 밀가루로 떡, 빵을 만들고, 곤밥과 바닷고기(고진 것) — 돼지고기, 소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 닭을 준비해서 제를 지낸다.

③ 백중 : 물 맞는 날로 신흥리에는 따로 물 맞을 장소가 없어 주로 돈내코나 소정방 등지로 가서 물을 맞는다. 물을 맞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몸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날 외에도 더운 여름철이면 물을 맞으러 다니는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이용하지는 못한다.

7) 8월

① 소분 : 음력 8월 초하루 전후로 벌초를 한다. 6~7월에 벌초를 하면 풀이 금방자라고, 날이 추워지는 8월에 벌초를 하면 풀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8월에 벌초를 한다.

② 추석 : 정월명절과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내고, 자치기, 공기, 방치기 등의 놀이를 즐겼다. 요즘은 청년회 주관으로 신흥 체육대회를 하고, 게이트볼을 즐긴다.

③ 말뚝줍기 : 옛날에는 8월 넘어 9월초에 말뚝을 주워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다.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말을 몰아 산에서 풀을 먹이고, 밤에는 밭에 풀어놓아 거기서 배설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말뚝이 거름이 되어 밭농사가 잘 된다. 마소가 없는 사람들은 마소가 풀어진 곳에 가

서 조금씩 충당했다.

8) 11월

① 동짓날 : 동짓날에는 귀신을 막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팔죽을 먹고, 집안에는 팔을 뿌리고 부엌에는 팔죽을 발라 나쁜 귀신을 쫓는다.

② 지붕잇기 : 일년에 한번 초가집의 지붕을 바꿔주는데, 11월에 새가 다 말라있기 때문에 11월에 새를 베어다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날을 봐서(바람 없는 날) 지붕을 이었다. 지붕을 다 이으면 주인집에서 음식과 담배 등을 대접했다.

9) 12월

① 장담그기 : 선달그름에 장을 담그는 데, 날을 봐서 장을 담갔다. 집안사람들의 띠가 든 날, 소날, 뱀날은 피해서 담그고, 털처럼 매주에 곰팡이가 잘 피라는 의미로 털 있는 동물의 날(토끼날, 말날, 개날)에 담갔다. 동짓날 즈음에 콩을 삶는 데, 콩을 삶는 날에도 날을 봤다. 장맛으로 그 해 운수를 점치기도 했다.

방언

<목 차>

- | | |
|----------------|--------------|
| 1. 농업 관련 어휘 | 8. 경제 관련 어휘 |
| 2. 음식 관련 어휘 | 9. 동물 관련 어휘 |
| 3. 가옥 관련 어휘 | 10. 식물 관련 어휘 |
| 4. 의복 관련 어휘 | 11. 자연 관련 어휘 |
| 5. 인체 관련 어휘 | 12. 어업 관련 어휘 |
| 6. 육아·놀이 관련 어휘 | 13. 기타 |
| 7. 인물 관련 어휘 | |

1. 농업 관련 어휘

1) 경작곡물

- (1) 골갱이/골각지 : 출 메는 거.
- (2) 웨스렁 : 쇠스랑.
- (3) 선호미 : 팽이. 서서 흐는 호미.
- (4) 갈레죽 : 가래.
- (5) 골체 : 삼태기. 거름 나르는 거. 웨거름 나르고 돛거름도 나르고
- (6) 호미/낫
- (7) 곡갱이 : 곡팽이.
- (8) 쟁기 : 쟁기.



골각지

참고) 부분 명칭 : 몽쿨, 양죽머리, 설칫, 보섬, 성에.

- (9) 남테 : 옛날에 농사짓젠 흐면은 조 ㄱ튼거 벌리젠 흐면은 사람으로는 발라봐야(밧아봐야) 밧 두개 밖에 못하니까 나무 헤가지고 가운데로 끈 달고 구멍 쳐가지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았어. 말뚝을 박아가지고게 양 쪽에 이신 사람은 두 사람이 되가지고 그거 말뚝 하나에 못 박아도 한 서른 개 정도 박으면은 한번 발리면 서른개 정도 밧을 수 있는데 사람은 발라봐야 양 쪽 밖에 발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남테.

- (10) 파니 : 높은 걸 보고 파니, 낮은 건 고랑. 밧 갈아서 높은 곳.

참고) 흐 파니라 하면은 요 고랑하고 요 고랑 양 새에 ㄱ는 것 곶양 흐 파니렌 하주.

- (11) 고랑

- (12) 돌담 : 밧둑. 밧 경계.

- (13) 나룩/나룩 : 눈에서 나는 벼.

- (14) 산뒤 : 밧에서(물 없는 데서) 나는 벼.

참고) 산뒤알맹이, 산뒤썰, 산뒤체(벗겨진 껍질), 산뒤짚, 산뒤씨(법씨)

- (15) 보리

참고) 보리고고리 : 보리아삭.

보리남뎡이 : 보릿대.

- (16) 떡보리 : 흐린보리. 이런거는이 떡 하면은 끈기고 이서. 검붉은색.

- (17) 살보리 : 이거 흐면은(떡 하면) 사락사락하게 허껴져부러.

- (18) 곶보리 : 살보리 ㄱ추룩 생겨신디 껍데기가 잘 안 벗겨져. 몰 ㄱ레 곶아도 막 곶지 않으면 못 곶아지는 거라.

- (19) 두줄보리 : 줄이 두개 난 영 흐거.

- (20) 지냉이 보리 : 지냉이 볼 ㄱ추룩 지냉이 밧이 이렇게 막 감기잖아. 그 런식으로 (생긴거).

- (21) 조

참고) 개발시리, 백시리, 고랑조, 피조, 바게시리, 검은 흐린조, 흐린조

모인조

참고 흐리다 : 끈기가 있는 것.

(22) 줍살/조 풍뎡이 : 조 불러그네 조 검질메영 조 비어다그네, 조 코구리 타다그네 두드려그네 조 몰령 끌어그네게 그 채에 나오는 것이 풍뎡이 주게.

(23) 강냉이 : 옥수수.

참고 강낭대축, 강냉이 뿌레기(이걸 해서 천식에 딸려 먹고, 애기들 천식 걸령 할 때, 이거 해서 딸려먹으면 애기들 감기가 다 나사.)

(24) 믰물 : 메밀.

(25) 콩

(26) 약콩/검은콩

(27) 돔비콩

(28) 강낭콩 : 굵고 동글동글한 건 강낭콩이랜 호고

(29) 두블콩 : 붉은 콩. 밧디 심그는거. 밧디 심그면 열아그네 따다그네, 밥에 먹고

(30) 꽤 : 깨.

(31) 지슬 : 감자.

(32) 감저 : 고구마 .

(33) 풋 : 팥.

(34) 비대축 : 비차락(빋자루) 만드는 것.

(35) 검질 : 김. 옛날에 검질 메러 가그네 골각지로 요렇게 매지.

참고 제완지, 쉼비눔, 함박쿨, 몰싸움고장, 역기, 빈네, 해바라기, 쉼터럭, 얼리, 돕풀…….

(36) 새/출

(37) 곡석 : 곡식.

2) 타작

- (1) 도깨 : 도리깨.
- (2) 마당질 : 도깨로 치는거 곶양 마당질.
- (3) 빗자락, 사리착 : 빗자루.
- (4) ㄴ레 덕석 : 멍석 짝갈라한 새끼. 전ㄴ레 가는 때 쓰는 것. 들어서 앉아서.
- (5) 덕석
- (6) 멍석 : 곡식 말릴 땐 멍석이라고 또 이서. 멍석은 이렇게 한 건데 막 큰 거라.
- (7) 대구덕 : 광주리.
- (8) 멍탱이 : 망태기. 바구니. 산디쪽으로 노꼬아 가지고 만든 것. 산디도 담곡 느물도 담곡 콩도 담고 다해.
- (9) 굴채 : 삼태기. 췌거름, 독거름 나르는 것.
- (10) 던더럭 마께 : 절구.
참고) 부분명칭 : 던더럭(돌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곡 그 위에 째 두드리는 거), 막게, 즈록

3) 도정



그레

- (1) 전ㄴ레
- (2) 몰ㄴ레
- (3) 푼채 : 키. 푸는 채. 곡식들 여문거 호곡 털 익은거 하고 있잖아 납작한 것들 골라내는 거.
- (4) 대체
- (5) 방에/방에혹 : 방야. 몰ㄴ레에 낡 곶양

그것이 다 안 벗겨지면 이제 그 다음에 방에혹에서.

2. 식생활 관련 어휘

1) 주식부식

(1) 곤밥 : 백미밥.

참고) 조반(아침밥), 점심(점심밥), 저녁(저녁밥).

(2) 콩늬물국, 무수국, 늬물국……

(3) 춤노물, 갯늬물, 드릅늬물, 풋늬물, 툫늬물

(4) 간냥 : 양배추.

(5) 부루/상치 : 상추.

(6) 유/유쌈 : 깻잎.

(7) 콩쌈 : 콩잎.

(8) 무수/늬배 : 짐치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다 하는 거라.

참고) 쉼쌀늬배

(9) 새오리/새우리 : 부추.

(10) 정구지 : 새우리 ㄱ튼거.

(11) 짐치 : 김치.

참고) 늬배짐치/무수짐치, 배치짐치, 물짐치, 나베기 짐치(늬배 이만씩

넓게 썰어놓).

(12) 두부 : 물에 담갔다가 콩이 불어나면 멧들에 곱앙으네.

(13) 웨 : 오이.

(14) 물웨 : 물외.

(15) 고치 : 고추.

(16) 대사니/콤포대사니/콤포두사니/마농 : 마늘.

- (17) 대사니지/마눔지/마눌지 : 마늘장아찌.
- (18) 패마눔 : 파.
- (19) 생기리/무몰랭이 : 무 말린 거. 좀질게 썰어서.
참고) 왕기리 : 흙게 써는 거. 손가락 만치 썰어서 말린거.
- (20) 자리젓, 간장게, 델젓(델치젓)
- (21) 존채미/잠채미/뉘장 : 된장.
- (22) 꼬장(고장) : 고추장.
- (23) 장물/장 : 간장.
- (24) 소곰 : 소금.

2) 별식

- (1) 감저 : 고구마.
- (2) 지슬 : 감자.
- (3) 멘 : 국수.
- (4) 말채베기/밀채베기/손채베기 : 수제비.
참고) 밀채 : 밀껍데기.
밀솔 : 껍데기 벗긴 밀.
- (5) 칼채베기 : 칼국수. 밀해그네 밀가루 젠그레에 골양, 거 체로 청 물 놔
그네 밀어그네 국수로 해그네 먹어났주.
- (6) 침떡/친떡 : 시루떡.
- (7) 적/적갈/쩍갈 : 적(炙).
- (8) 인절미
- (9) 상위떡 : 밀 곶아그네 누룩 해냈다그네.
참고) 제사상에 올릴 때 제편 다음에 인절미, 젤벤, 솔벤, 우짚.
- (10) 제편 : 허영한 것. 시루에만 찐 거.
- (11) 중괴, 약괴, 대약괴, 소약괴 : 영장, 소상, 대상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중괴, 약괴, 대약괴를 추가하여 올린다.

- (12) 절벤/젤벤, 술벤, 우찌, 빙떡, 지름떡/무시시(기름떡), 조개술벤/꽃떡(송편)……
- (13) 과질 : 쌀 떠운거 해가지고 굳힌게 과질.

3) 기타

- (1) 매 : 제사 때에 지어 신위(神位) 앞에 올리는 밥.
- (2) 갡 : 갡(羹). 제사 지낼 때, 매 옆에 놓는 국.
- (3) 송냥
- (4) 지름 : 기름.
- (5) 꽤지름 : 깨기름.
- (6) 돗박지름 : 머리에 바르고 먹기도 하는 거.
- (7) 누렁지/누렁이 : 누룽지.
- (8) 양석 : 양식.

3. 가옥 관련 어휘

1) 구조

- (1) 도통/통시 : 화장실.
- (2) 구들 : 방.
- (3) 큰구들 : 제사하는 구들.
- (4) 정제/정지 : 부엌.
- (5) 고팡 : 창고.
- (6) 삼방/마리 :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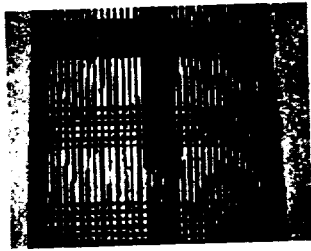
- (7) 지둥 : 기둥.
- (8) 생갯지둥 : 큰 기둥.
- (9) 지칫돌 : 주춧돌.
- (10) 상마루 : 마루 천장 중앙에 가로로 댄 나무.
- (11) 중마루 : 마루 천장 중앙과 앞·뒤 끝 사이에 가로로 댄 나무.
- (12) 서리 : 상마루와 중마루 사이, 중마루와 가 사이에 세로로 댄 나무.
- (13) 고팡문, 구들샛문, 삼방뒛문, 정제뒛문
- (14) 널문 : 집 앞·뒤에 다는 문. 문살 어신 거.
- (15) 밀작문 : 옆으로 밀어서 여는 문.
- (16) 지게문 : 방문. 구들창에 쌀 영여 한 건 지게문.
참고) 도절귀 : 들쩌귀.
- (17) 지팡 : 지방.
- (18) 팽상마리 : 바깥마루.
- (19) 무똥 : 신발 벗는 디.
- (20) 빈지 : 벽 아래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 질러 막은 널빤지.
- (21) 백선(문백선) : 이거 세워사 우에도 놓고 아래도 놓고 해사, 여기 문 다
는거난 돌아가멍 세우주.
- (22) 문데방 : 문 위에 이신 건 문데방. 아래 이신 건 지팡.
- (23) 풍체 : 바람막이.
- (24) 도리 : 기둥과 기둥 위에 건너 었는 나무.
- (25) 굴목 : 굴목. 구들 밧에 돌로 돌상자를 깔라가지고 위에 흙 덕어가지고
속에서 그 돌이 뜨듯하게 데워져 가지고~. 불근데를 땡겨나지 않으면
그래 고망이 매어가지고 안돼.
- (26) 부섭 : 화로 마루에다가 이렇게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가 누물 닳은거
씩 집어넣으면 불이 이틀까지도 가지. 멩질이나 제사같은거 닥치민 적
갈 닳은거 거기서 해나서. 고정시킨거.
- (27) 돌화리 : 이동시키는 것(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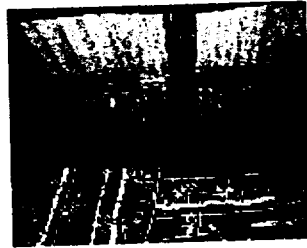
생겅지등



널문



지계운



도리. 서리

(28) 정동화리 : 청동화로 낫으로 만든거라 값이 비싸가지구 밭하나 사는 값 쥐야주.

(29) 굴뚝

(30) 초집 : 초가집.

참고) 세 : 그 위에 이논게 세. 억새 밑에 쪽쪽 자라는거 잇잖아. 그게 세. 억새 말고 억새 ㄱ추룩 억새는 꽃이 되는데.

2) 마당

(1) 올래

(2) 올래담

(3) 마당앞담

(4) 우잣담 : 뒷담.

- (5) 항/망베기/단지 : 항아리.
- (6) 사기장테 : 세숫대야.
- (7) 물굴메 : 장테에 물 뉘가지고 영하면 거울같이 얼굴 바래지주게.

3)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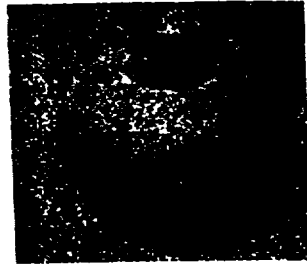
- (1) 정제/정지 : 부엌.
- (2) 고팡 : 쌀 놓는 창고
- (3) 두지 : 뒤주. 쌀 따위를 담아 두는 세간.
- (4) 솟덕 : 솥에 불 때는 아궁이 양쪽에 세운 돌.
- (5) 부지뎡이 : 부지깥이.
- (6) 근데/불근데 : 타고 남은 재 끌어 모으는 도구. 널찍에 막대 댄 것.
- (7) 쇠스랑 : 발이 여러 개인 것.
참고) 광이 : 발이 하나인 것.
- (8) 솔박 : 대왓세기보다 큰 것. 보리·조 바람에 불릴 때, 재 담아서 버릴 때 씀.
- (9) 대왓세기
- (10) 항 : 항아리.
참고) 두께/뚜껍이 : 뚜껍. 더끄는거 다 두께.
- (11) 망데기 : 작은 항아리.



곡박세기

- (12) 물박, 곡박 : 바가지.
참고) 곡 : 박.
- (13) 남죽 : 밥 저을 때 쓰는 도구.
- (14) 남밥자 : 주걱. 밥 뜨는 거.
- (15) 남국자
- (16) 남도고리, 곡박세기 : 이남박, 밥그릇.
- (17) 수제 : 숟가락.

- (18) 불괘, 화괘 : 성냥.
- (19) 화갑 : 성냥갑.
- (20) 각지불
- (21) 솔각불 : 나무에서 썩이 정으네게 솔각 된 것이 어서. 소나무 같은 것에.
- (22) 내 : 냄새, 연기.
참고) 눈 맵다(연기가 많이 나면 눈이 '맵다'고 한다).
- (23) 그스렁 : 솟 그순 거 보고 그스렁이라고 해.
- (24) ㄱㄱㄱ렁 : 그스렁 모여 용암처럼 내리는 거. ㄱㄱㄱ렁에 불 붙으면 잘못하면 불 나지.
- (25) 허벅 :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 (26) 물구덕 : 항아리 들이청 지는 거.
- (27) 베 : 물구덕을 등에 지려고 새(풀)로 만든 끈.
- (28) 두말띠기 : 솔. (솔) 두 말을 놓고 밥을 해 먹는 거.
- (29) 조리 : 솔 이는거. 옛날에는 솔에 돌이 많이 들지. 그걸 흔들면 솔은 위트레 오고 돌은 밀트레 가라앉거든.
- (30) 느물싸기 : 옛날에는 밥호민 맨작하진 않지만 손가락 넣으면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그릇들 잇지 않았수과게.
- (31) 장테 : 그릇. 씻는 통.
- (32) 솟강알 : 솟덕을 안저그네 그 알레레 짓는게 솟강알.
나무 헤그네 짓는게 솟강알.
- (33) 돛베 : 도마.
- (34) 수바끼 : 바리. 요즘으로 생각하면 밥 한 다섯그릇이나 비워나야 그 그



허벅

룻 한 그릇이 찰거야.
참고) 가지깡이 : 수바끼 뚜껑.

4) 기타

- (1) 집비, 풀비 : 풀을 칠할 때 쓰는 도구. 귀얄. 풀비.
- (2) 지슬물 : 낙숫물. 집에 나린 물.
- (3) 동곳 : 고드름.

4. 의복 관련 어휘

1) 옷

- (1) 미녕옷 : 멘네(소개 하는 거) 밧디 곶앙, 물레로 뽀앙.
참고) 광목 : 미녕보다 올이 흐슬 줌진 것 곶아 광목이렌 흐주게.
- (2) 차메 : 치마.
- (3) 중이 : 통이 넓은 바지.
- (4) 바지 : 중이 속에 입는 것.
- (5) 소중이, 속곳 : 팬티.
- (6) 췌께 : 조끼.
- (7) 점벙이 : 남자 바지.
참고) 다님(친다) : 바지 가달 묶는 것 보고 다님친다고 함.
- (8) 벅선 : 벅선.
- (9) 대비 : 양말.
- (10) 곶 : 옷고름. 옷에 단추 대신 묶을 용도로 양쪽에 달아 놓은 끈.
- (11) 주멩기 : 주머니. 옷에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 곶에다 달

아 묶는다.

(12) 허리띠/허리끈

(13) 띠 : 남자들 장가갈 때 끈걸로 하는 것. 이 때는 '허리띠'라 안 하고 '띠'라 부른다.

(14) 후루메 : 두루마기. 겨울에 입는 옷.

(15) 창옷 : 제사 때 입는 옷.

(16) 갈옷, 갈중벙이, 갈몸뻘 : 감 물 들이 거.

(17) 장옷 : 결혼할 때 입는 옷. 멍지로 물 들인거, 여자 옷 굴양으네 장옷.

참고) 도복 : (결혼할 때 입는 옷) 남자 옷 굴양으네.

(18) 저고리 : 우에 입는 거. '안'(안감) 낱 하는 거.

(19) 적삼 : 우에 입는 것. '안' 안 낱 하는 거.

(20) 어깨마리/어깨걸이



어깨마리

2) 바느질

(1) 미녕 : 실로 짠 것. 무명.

(2) 물레 : 씨아. 목화에서 씨를 빼는 기계. 멘네 씨 발르는/갈르는 거.

(3) 베클 : 베틀. 실 짜는 도구.

(4) 험벅 : 형짚.

(5) 굴메/바농가락지 : 골무.

(6) ㄱ세 : 가위.

(7) 바농 : 바늘.

(8) 바농쌘지

3) 세탁

- (1) 서답/쉐답 : 빨래.
- (2) (물)마께 : 빨래방망이.
참고) 마께쨌락 : 방망이손잡이.
- (3) 팡들
- (4) 남석
- (5) 쉘답마께/다듬이마께 : 홍두께. 풀 쓴 옷을 두드리는 방망이.
- (6) 쉘답줄/쉐답널개 : 빨랫줄.
- (7) 쉘답뎀배 : 다듬잇돌. 빨래 할 때 밑에 받치는 돌이나 나무.
- (8) 다듬이 : 다듬이질. 쉘답뎀배 위에 빨래를 올려놓고 천을 감은 마께로 두드리는 행동.
- (9) 다리외 : 다리미.
- (10) 윤디 : 인두. 옷에 각잡는 도구.
- (11) 젓물

4) 모자, 신발

- (1) 페랭이
- (2) 우장 : 역사로 멘드라네 비올 때 옛날 저 우장. 비 안 새지게.
- (3) 샷갓 : 대로 만든 모자. 페랭이보다 호쓸 크게 헛 것. 날대, 꼬리대, 친 등으로 이루어짐.
- (4) 초신 : (산디, 나륙)쪽으로 삼은 신. 짚신.
참고) 삼는다 : 만든다.
- (5) 남신 : 나막신. 나무로 판 남신 행 신였지개. 눈 올 때.
- (6) 창신 : 결혼할 때 신는 신.
- (7) 코신 : 결혼하젠 호민 새각시들 신는거.

5) 장신구

- (1) 멘경/색경 : 거울.
- (2) 얼레기 : 얼레빗.
- (3) 챔빋/챙빋 : 참빋. 니 빋는 거.
- (4) 동곳 : 비녀 닳은 거. 빙빙 머리 꼴랑지로 뽕뽕 감아남 그 동곳이렌 한 걸로 요 가운데로 꼭 쥘르면 쯤각하여.
- (5) 비네 : 비녀.

6) 기타

- (1) 걸랭이 : 애기걸랭이로 막 업어그네(어린애를 업을 때 둘러 동여 매는 물건).
- (2) 지성귀 : 기저귀.
- (3) 멘네, 맹주, 삼베, 베
- (4) 물레 : 멘네씨 갈라는거(발르는거).
- (5) 누에버랭이 : 누에.
- (6) 뽕남쌈 : 뽕잎.
- (7) 오동 : 오디(뽕나무 열매).
- (8) 소게 : 이불 속에 넣는 솜. 멘네소게.
- (9) 뚜데기 : 누더기.

5. 인체 관련 어휘

1) 머리

- (1) 머리 : 머리카락.
- (2) 낭자 : 시집 가면 머리 거두어사.
- (3) 상통이 : 머리 질면은 올령 상통이 차 나서.
- (4) 사랑머리 : 새치.
- (5) 니 : 이.
- (6) 비듬 : 비듬.
- (7) 씨 : 니 까는 거.
- (8) 가메/상가메 : 가마.
- (9) 쌍가메 : 쌍가마.

2) 얼굴목

- (1) 낮 : 낮.
- (2) 임덩이/이멍이/이망괵 : 이마.
- (3) 주름살/주름살이 : 주름살.
- (4) 눈통어리 : 눈두덩.
- (5) 눈뚜께
참고) 불릿, 개쌌 : 옷뚜께에 난 건 불릿, 아래에 난 건 개쌌. 보리로 꼭 꼭 찢르면 좋아.
- (6) 검은동저, 흰동저 : 검은자위, 흰자위
참고) 눈애기 : 검은자위 중심에 자리잡은 더 시꺼먼 곳.
- (7) 눈꼽제기 : 눈꼽.
- (8) 양지/불타가리 : 볼.
- (9) 볼뼈 : 광대뼈.
- (10) 보지개 : 보조개.
- (11) 흑 : 흑.
- (12) 귀꼬냥 : 귓구멍.

- (13) 컷봉/컷자락 : 컷불.
- (14) 귀뺨 : 귀지.
- (15) 코꼬냥 : 콧구멍.
- (16) 코쫄기 : 인중.
- (17) 쉬염 : 수염.
- (18) 입/주뎡이/주등머리/아구리 : 입.
참고) 주뎡이 : 욕 할 때 '저 놈의 주뎡이' 하주게.
- (19) 니빨 : 이빨.
- (20) 어귀빨 : 어금니.
- (21) 세/셋바닥 : 혀.
참고) 셋가시 : 혃바늘.
- (22) 알아구리 : 턱 아랫부분.
- (23) 아굴톡 : '턱'의 낮춤말.
- (24) 뒷고개 : 목덜미.
- (25) 목 : 목.
- (26) 목구냥 : 목구멍.
- (27) 목구리짱/목꾸레 : 성대.
- (28) 짱/뺨 : 뺨.

3) 목 아래~허리

- (1) 득지 : 죽지. 팔과 어깨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절 부분.
- (2) 저쟁이 : 겨드랑이.
- (3) 상뺨 : 척추.
- (4) 등쟁이/등어리/등따리/등망쟁이 : 등.
- (5) 팔꿈지 : 팔꿈치.
- (6) 흘목/흘모가지 : 손목.

- (7) 심줄 : 힘줄.
- (8) 손등어리 : 손등.
- (9) 손꼬락/손끄레기
참고) 엄지손꼬락(1), 안주레기(2), 상손꼬락(3), 논손꼬락(4), 새끼손꼬락(5)
- (10) 손므작 : 손가락마디.
- (11) 손콧/손콧, 발콧/발콧 : 손툽, 발툽.
- (12) 고령 : 외상문(지문 모양의 한 종류). 둥그란 것 곁안은 고령.
- (13) 풍채 : 제상문(지문 모양의 한 종류).
- (14) 손그물 : 손금.
- (15) 옆갈리 : 옆구리.
- (16) 배또롱 : 배꼽.

4) 하체

- (1) 미집뼈 : 엉덩뼈.
- (2) 궁텡이 : 궁둥이.
- (3) 엉치 : 엉덩이.
- (4) 잠지폐기/잠지팍 : 불기.
- (5) 동구럽
- (6) 토그마리 : 오금.
- (7) 정강이/정갱이 : 정강이.
- (8) 조매 : 종아리.
- (9) 성문쟁이(성문짱) : 정강뼈.
- (10) 발등어리 : 발등.
- (11) 귀마리 : 발목.
- (12) 귀마리짱(안귀마리짱, 밖귀마리짱) : 복숭아뼈.

(13) 발뒤꿈지/발뒤치기 : 발뒤꿈치.

(14) 발꼬락/박그락/발끄레기 : 발가락.

참고) 엄지발꼬락(1), 상발꼬락(2), 안주레기(3), 논발꼬락(4), 새끼발꼬락(5)

(15) 주설 틱엇구나 : 쥐 나는 거.

5) 장애, 피부병 등

(1) 절룩걸이 : 절름발이.

(2) 귀마구리 : 귀머거리.

(3) 봉서 : 봉사.

(4) 버버리/말물레기 : 병어리.

(5) 세단은 사람(세줄은 사람) : 말 더듬는 사람.

(6) 열금베기 : 곰보.

(7) 청부 : 입 위 찌진 것.

(8) 한집/큰마누라 : 흥역.

(9) 지침 : 기침.

(10) 천직 : 천식. 감기행 내불면 천직에 드는거.

(11) 말촉 : 무사마귀.

(12) 사막 : 사마귀.

(13) 두드레기

(14) 버줌 : 버짐

(15) 이발총 : 기계총. 아이들이 기계로 머리를 깎다가 옮겨서 고생하는 병.
머리가 빠져 동그랗게 자리가 남는 것.

(16) 초기 : 검버섯.

(17) 지미 : 기미.

참고) '지미 썼구나.'

- (18) 뚝뚝기 : 뚝뚝.
- (19) 귀아들 (낫저) : 귀 얹리는 것.
- (20) 코각시 (낫저) : 코에 뭐 난 것.
- (21) 낫싸움 : 여드름.

6) 기타

- (1) 모욕 : 목욕.
참고) (더 전에는) 모욕이렌 아니 굴앙 몸 김으렌 해주기게.
- (2) 복시디영 았다 : 양반다리 았는 거.
- (3) 조충았다 : 엉덩이를 들고 두 다리를 구부려 세우고 발로 디디어 았는 거.
- (4) 털국지 : 딸국질.
- (5) 살레 : 사례.
- (6) 하염 : 하품.
- (7) 질 트는거 : 기지개 펴는 거.
- (8) 베흑 : 베흑.
- (9) 빈데 : 빈대.

6. 육아놀이 관련 어휘

1) 육아

- (1) (애기)구덕 : 요람.
- (2) 걸랭이 : 애 등에 업을 때 천으로 만든 것.
- (3) 물애기 :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
- (4) 지렁내 : 오줌 냄새.

- (5) 새움 : 샘, 질투.
- (6) 줌메줌메줌메 : 손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
- (7) 던데던데던데 : 손바닥 마주치는 것.
- (8) 마니마니마니 : 고개 옆으로 흔드는 것.
- (9) 곤지곤지곤지 : 손바닥에 반대편 검지 손가락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
- (10) 선다선다 : 아기 혼자 서기 시작할 때 하는 말.

2) 놀이

- (1) 전개고개 : 목마 태우는 것.
- (2) 손꼽장난 : 소꿉놀이.
- (3) 고블락 : 숨바꼭질.
- (4) 옷놀이
참고) 옷, 물, 옷판.
도, 개, 걸, 솟, 모
- (5) 쫓끼차기 : 제기차기.
- (6) 널뛰기 : 설날 때 많이 함.
- (7) 그네 : 추석 때 많이 함.
- (8) 니끄름 : 썰매.
- (9) 연날리기(참고 : 가오리연, 달연.)
- (10) 끈작끈, 네팔, 요듭팔 : 고누. 둘이 하는거.(고누의 종류에 끈작끈, 네팔, 요듭팔이란 것이 있음.)
- (11) 자치기, 팽이치기, 공기, 고부치기, 오재미, 둥그루깨, 방치기…….

7. 인륜 관련 어휘

1) 가족

(1)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2) 성제 : 형제.

참고 <형제 부를 때>

남자쪽에서 부를 때 : 누님, 형님, 아시(남동생), 동생(여동생).

여자쪽에서 부를 때 : 오라바님(오빠), 성님(언니), 오래비 또는
오라방(남동생), 아시(여동생).

(3) 큰놈/큰년(첫째), 셋놈/셋년(둘째), 말젓놈/말젓년(셋째), 여근놈/여근년
(넷째), 다찬놈/다찬년(다섯째), 조근놈/조근년(여섯째 이하)

(4) 손지 : 손자.

참고 외손, 성순

(5) 주리벙합찌 : 아우타다. 동생이 태어나면 그 형이 젓을 잘 못 먹어서
몸이 야위어지는 것.

2) 결혼

(1) 새각시, 새서방 : 신부, 신랑.

(2) 사위, 메누리

(3) 애기어멍 : 제주도에선 '에미야' 안 해.

(4) (결혼)잔치

참고 장개, 시집, 총각, 처녀

(5) 새댁, 새각시 : 동네 사람들이 부를 때.

(6) 시아지방/시아주방 : 남편 아시나 성보고 시아주방이렌 흐주게.

(7) 시누이 : 남편 여자들(여자형제들) 곁안 시누이.

(8) 아지방/아주망/아주마님 : 올케, 형수.

참고 셋아주망, 족은 아주망, 말젓 아주망.

- (9) 아주바님 : 형부, 시숙.
- (10) 형님 : 매형.
- (11) 아주방 : 시동생, 도련님.
- (12) 또께 : 가마.
- (13) 홍세/홍세아비 : 함, 홍세인데 미녕 두필을 담으민 그걸 아저강으네.
- (14) 하임 : 홍세 정 가는 사람.
- (15) 흘아방, 흘어멍.
참고) 온쫓는 소리 : 높임말.

3) 친척

- (1) 큰아바님 : 백부.
- (2) 셋아바님 : 중부.
참고) 말젯아바님(3), 네착다바님(4), 다착다바님(5), 여착다바님(6)…….
큰어머님, 셋어머님, 말젯다마님, 네착다마님, 다착다마님, 여착
다마님…….
- (3) 삼촌 : 삼촌.
- (4) 조캐 : 조카.
- (5) 외삼촌 : 이모.
- (6) 고모 : 고모.

8. 경제 관련 어휘

- (1) 팽 : 평(밭 셀 때 단위).
- (2) 베 : 켈레.
참고) 짝글레기.

- (3) 퍼귀 : 포기(배추 셀 때).
- (4) 뽕 : 뽕(엄지 끝~중지 끝).
- (5) 조리 : 엄지 끝~검지 끝.
- (6) 접 : 두름.
- (7) 치 : 검지 가운데마디~손가락 끝.
- (8) 자 : 열 치가 한 자.
- (9) 접 : 꿩기 열 마리를 쌓아 놓은 몽치.
- (10) 수정 : 수(숫자).
- (11) 흐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퀘, 여드레, 아흐레, 열흘, 열흐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보름…….

9. 동물 관련 어휘

1) 벌레, 곤충

- (1) 충 : 나무 이파리 막 뜯어먹어 부는거. 날아뎅기는 거나 기어뎅기는 거나 먼 충이렌 굴아.
- (2) 버랭이, 벌거지 : 벌레.
- (3) 푼리 : 파리.
참고) 쉼푼리 : 쉼에 달라붙는 푼리.
쉬푼리 : 쉬 싸는 푼리.
- (4) 개오리 : 깨는깨는 혼 건 지렁이, 좀 훑은 건 개오리.
- (5) 거멸 : 거머리. 피 빨아 먹는 거.
- (6) 하루살이푼리 : 하루살양 죽어부는 푼리가 있고, 하루살이, 그건.
- (7) 누니누니
- (8) 굶벵이 : 굶벵이.

(9) 누에 : 멩주 하는 거. 실 빼는 거.

참고) 누에고치

(10) 좃 : 뽕나무에 살아있는 건디 다 쏘물앙 먹으멍 똥 싸멍 막 살앙 큰 건 좃.

(11) 지녕이 : 지네.

(12) 노린제 : 미강 낭 다 쏘아불고 하는 거.

(13) 응에 : 미강나무에도 들었으네 막 미강 막 물 빨아먹고

(14) 진시 : 진딧물.

(15) 말축/말축 : 매뚜기.

참고) 산디말축 : 이진 옛날에 구어먹어서.

신방말축 : 호꼴락한거 곶앙 .

상말축/상동말축 : 수량한거 곶앙.

물말축

공쟁이/공쟁이말축 : 귀뚜라미. 들에 나는 공쟁이는 파란 공쟁이,

집에 드는 것은 불그렁흔 공쟁이.

(16) 불난디(불난지) : 반딧불.

(17) 사상벌 : 들에서 나는 거.

(18) 꿀벌 : 사람이 질르는 거.

(19) 돌벙이, 옷 벗은 돌벙이 : 달팽이하곤 다른 거.

(20) 베룩 : 팔딱 팔딱 티고

(21) 물베룩

(22) 가가비 : 개구리.

참고) 풀가가비 : 우억우억 우는 거.

멩마구리 : 멩멩멩 우는 거.

(23) 자치 버랭이 : 오글랑 오글랑 걸어댕기는 거. 빨리 걷지 못행. 크면 나 비 되는 거.

(24) 게염지 : 개미.

- (25) 적제기 : 거멍흔 거. 풀 콕콕 쏘아부는 거.
- (26) 두메기 : 풍뎡이.
- (27) 쉼 버랭이 : 쉼뚱 겨트레 있는 거 쉼 버랭이. 쉼뚱 오래해가면 그것이 나와.
- (28) 쉼 : 매미. 나무에 안장 소리하는게 쉼.
참고) 왕쉼 : 흘근거, 풋쉼 : 쫄만씩한 거.
- (29) 물자리 : 잠자리.
- (30) 소곰바티 : 소곰쟁이.

2) 가축

- (1) 독 : 닭.
- (2) 독새기/계랄 : 계란. 달걀.
참고) 불근날, 햇날/흰날
- (3) 비에기, 빙애기 : 병아리.
- (4) (장)독고달 : 벼슬.
참고) 상통이 고달, 아래고달
- (5) 독곡석 : 모이.
- (6) 도새기/도야지 : 돼지.
- (7) 뚱도새기
참고) 도통시, 드들팡
- (8) 쉼 : 소
참고) 쉼풀랭이, 쉼발꿈, 쉼뿔, 쉼레기.
쉼막, 늑대, 멩애, 망울(소입막이), 부림패(쉼 이끄는 줄).
- (9) 부랭이 : 황소
참고) 금숭(1살), 다간(2살), 사로(3살), 나로(4살), 다습(5살).
- (10) 송애기 : 송아지.

(11) 염송애기 : 염소

(12) 몰 : 말.

참고) 금송매(1살), 이수매(2살), 삼수매(3살), 사수매(4살), 오수매(5살).

(13) 즈매 : 암말.

(14) 웅매 : 숫말.

(15) 개

참고) 승개(수개), 암개(암개), 강생이(강아지).

(16) 고녕이 : 고양이.

3) 산짐승

(1) 베염 : 뱀.

(2) 산도세기/산툃 : 멧돼지.

(3) 물도세기

(4) 오록 : 족제비.

(5) 노리 : 노루.

(6) 토계 : 토끼.

참고) 수에풀 : 토끼풀.

4) 날짐승

(1) 생이 : 작은 새.

참고) 줄태기 : 새 잡는 데 쓰는 도구.

(2) 핑

참고) 장핑, 암핑

(3) 가마귀/까매기 : 까마귀.

(4) 똥수레기(큰가마귀) : 독수리.

- (5) 매천이 : 매.
- (6) 밥주리/춤새 : 참새. 조금한 건디 짹짹 거리는거.
- (7) 돛박생이 : 돛박새.
- (8) 대와찌꾸기 : 흐끔 예쁘기도 하고 흐쌀 크고 도도도도도도 하명 돌ㅇ
 댕겨.
- (9) 바당올랭이 : 흰두루미처럼 생긴 거.
- (10) 풍데기 : 종달새.
- (11) 제비, 괄괄새, 비추, 콧생이……

10. 식물 관련 어휘

- (1) 뽕나무 : 뽕나무.
 참고) 뽕나무 : 뽕잎, 오동/뽕나무 : 오디(뽕나무의 열매).
- (2) 동박나무 : 동백나무.
- (3) 숙대나무 : 삼나무.
- (4) 산물 : 쪼끄만 쪼적쪼적하는 요만 씩한 미강 이서나서.
- (5) 감나무 : 감나무.
- (6) 복숭아꽃 : 복숭아꽃.
- (7) 두레기 : 담에 고장 피는 거.
 두레기는 담에 오르는 거. 안 멩청해부난 아무데도 오른텐 하는거.
 무데라도 오멍 열아.
- (8) 밥들레꽃 : 별경한 꽃.
- (9) 진들레꽃 : 연분홍 꽃.
- (10) 탈 : 가까운 산에 있는 거.
 참고) 줄탈, 보리탈, 한탈.
 개염지탈 : 요맨씩 땅에 붙엉 풀에 나고 개염지탈 톱 요새 딸

닭아.

- (11) 틀 : 큰 낭에 나는 거.
- (12) 개바농 : 꼭다리 잔거, 짤락짤락 한거 호꼼 잔거. 또 검벌레렌 하고 잔잔한거 붙는거.
- (13) 뽕이 : 뽕기. 헤영케 꽃 피민 새 되는 것.
- (14) 유채 : 지름 짜당 먹고, 느물 같이 캐당 먹고
- (15) 수에풀 : 민들레 곶이 동글랏게 피는 꽃. 토끼 먹는 거.
- (16) 고사리
참고) 허연 고사리, 병고사리, 허금고사리, 춤고사리(우리 먹는 것은 춤고사리.)
- (17) 초기 : 말뚱에 나는 건 말뚱초기, 말뚱 버섯이랜 곧주게.
참고) 농잘버섯, 소낭버섯……
- (18) 민들레, 미나리, 계피낭, 미깡낭, 땡유지, 까끄레기 낭, 스출낭……

11. 자연 관련 어휘

- (1) 해야지 : 해.
- (2) 벳 : 별.
- (3) 벨 : 별.
- (4) 새벨 : 금성. 아침 한 세시쯤 되어 가면 버룽이 터 올라오주기. 시방도
- (5) 다물 : 은하수.
- (6) 삼태성
- (7) 북두칠성
- (8) 둘 : 달.
참고) 어스름달/초승달 : 초승달.
상달 : 보름달.

- (9) 선돌 그믐날 : 선달 그믐날. 명절 떡 하는 날.
- (10) 정월 초하루날 : 정월 초하루.
- (11) 황혼 : 노을. 아침에 빨가문 비 오라친다. 저녁에 빨가문 날 벧 니
- (12) 가랑사니 : 가랑비.
- (13) 쏘나기 : 소나기.
- (14) 천둥, 번개, 벼락 : 천둥, 번개, 벼락.
- (15) 유박 : 우박.
- (16) 물진벙이/눈비/물비 : 진눈깨비.
- (17) 도쟁이주제 : 회오리.
- (18) 몬지/구름/몬지레기 : 먼지.
- (19) 널, 모리, 글피, 쟁날, 제쟁날…….
- (20) 어제, 그지계, 그지가시날…….

12. 어업 관련 어휘

1) 배 관련 어휘

- (1) 바당 : 바다.
- (2) 풍선 : 목선. 돛단배.



배전체

- (3) 터배 : 뗏목.
- (4) 떼마 : 죽은 배.
- (5) 치잡이 : 선장.
- (6) 보제기/벧놈 : 어부.
- (7) 이물, 이물코지 : 배 앞.
- (8) 배파락 : 배 옆면.
- (9) 뒤통무니, 고물 : 배 뒤.

(10) 용두 : 도르래.

(11) 풍 : 돛.

참고) 허릿대 : 돛대.

사웃대 : 돛대보다 넓이도 짧고 길이도 짧고

용돛줄 : 돛 높이 조절하는 줄.

(12) 다까지 : 닻.

참고) 닻줄/닻들 : 닻줄.

(13) 배선주 : 닻 매는데.

(14) 벤다 : 배 옆에 달린 노란겨. 배 땀때 파손 안되게.

(15) 개맛 : 포구. 배 대는데.

(16) 뇌 : 노

(17) 뇌썰

(18) 쇠/쇠판 : 나침반.

(19) 깃대, 깃발

(20) 물칸 : 배 안 궤기 저장하는 데.

(21) 줄테기 : 멀리서 줄을 잡고 이거를 그물망.

(22) 그물 바농대 : 그물 엮는 바늘. *

(23) 낚/연철 : 그물에 달린 뿔돌.

(24) 보망칼 : 그물 보수할 때 쓰는 칼.

참고) 보망하다 : 보수하다.

(25) 청대 : 낚시대.

(26) 소로청대 :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낚시대.

(27) 뽕괴 : 낚시밥.

(28) 니경 : 미끼.

참고) 물지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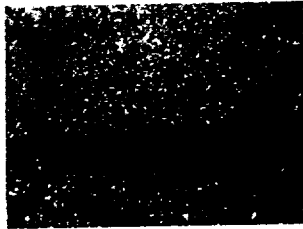
(29) 지늬시 : 대형선박에서 갈치, 옥돔 잡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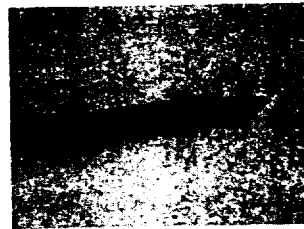
벤다



깃발



바능대



보망칼

2) 기후·바람

- (1) 셋벼름 : 북동풍.
- (2) 햇벼름 : 동풍.
- (3) 등벼름 : 남풍.
- (4) 마벼름 : 서남풍.
- (5) 갈벼름 : 서풍.

참고) 늘 부럼썬/늘 썬썬 : 태풍 불 때.

- (6) 들물 : 밀물.
- (7) 썰물 : 썰물.
- (8) 웨살 : 사리.
- (9) 조금 : 조금.

3) 해녀 관련 어휘

- (1) 줌수 : 해녀.
- (2) 고무옷 : 잠수복.
- (3) 오리발
- (4) 머구리 : 산소호흡기. 바닷에 들어 강 숨쉬는 거. 기계에서 숨쉬게 해줘.
- (5) 태왁, 두렁박 : 스티로폼. 물에 띄우는 거.
- (6) 망사리 : 전복 같은 것 따서 담아 놓는 통.
- (7) 소쟁이 : 옛날 해녀 잠수복. 위에는 적삼.
- (8) 눈 : 물안경.
- (9) 호맹이 : 갈코리처럼 생긴거.
- (10) 비창 : 전복 따는 거.
- (11) 소살 : 작살. 해녀들은 소살이헨 불러.
- (12) 호미 : 메역 딸 때는 호미.
- (13) 숨비소리 : 숨 차면 올라와 '후~이' 하는 거.
- (14) 연철(납) : 잠수할 때 허리에 차는 거.
- (15) 성게채
- (16) 까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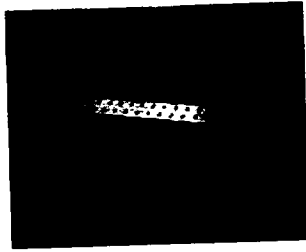
고무옷



태왁, 망사리



비창



소살



호미



연철



까꾸리

4) 수산물

(1) 생선 : 옥돔.

참고) 꼴랑지 : 꼬리.

(2) 배창지 : 창자.

(3) 아가리 : 아가미.

(4) 지느러니 : 지느러미.

(5) 고돌이 : 고등어.

(6) 이까 : 오징어.

(7) 문게 : 문어. 북군에서 '물꾸릭'이런 불러.

(8) 막쟁이 : 상어.

참고) 묵지막쟁이, 빨막쟁이, 죽상어

(9) 웨기 : 돌고래.

- (10) 멜 : 멸치.
참고) 오가멜, 꽃멜, 이루꾸멜
- (11) 물쟁 : 아구.
- (12) 솜 : 양양기. 동글동글한거.
- (13) 논쟁이 : 꽃뚝.
- (14) 등북 : 말미잘 곁은 거 이서.
- (15) 놀문지리 : 말미잘.
- (16) 물방석 : 불가사리.
- (17) 문주다까.
- (18) 귀 : 성계.
- (19) 강이, 쟁이 : 계.
- (20) 솔치 : 꼭 돌처럼 색깔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시문 몰라보주게.
- (21) 붓바리 : 다름바리처럼 생겨신디 빨강고 얼룩얼룩 현겨. 잡기 힘들어.
애기 어멍들 한디 옛날에 산후조리 하는데 좋아.
- (22) 벤자리 : 시커멓고, 잘 변해. 잘 변해부난 사람 혼티도 벤자리 변자리
했주. '자리'가 아니고 좀 커
- (23) 복다리/복쟁이 : 복어. 배 뽕뽕 나온 거. 망둥어 달মন겨.
- (24) 시비가스
- (25) 송치
- (26) 소맹이
- (27) 비깨/존단이
- (28) 도랭이
- (29) 너패
- (30) 가시리(풀) : 도배할 때 이걸루 했주גיע.
- (31) ㄹ스락풀
- (32) 도박/개도박풀
- (33) 겹뜨 : 바당에 나는 잡초

(34) 우미

(35) 툄

(36) 퇴

참고) 녁퇴, 매역쇠

(37) 지충

(38) 오분작

(39) 가메기부리 : 홍합, 합저.

(40) 매역 : 미역.

(41) 년매역/매역세기 : 매역 종류데 이파리가 하나로 넓게 해가지고 길

(42) ㅁ살조개

(43) 따치

(44) 갈치

(45) 미꾸라지

(46) 가오리

(47) 광어

(48) 뎡

(49) 녁치

(50) 가제미

(51) 독게/독세우

(52) 개구동 : 보들락 닭은거.

(53) 바당올랭이

(54) 고동/구쟁기 : 소라.

(55) 생복 : 전복.

(56) 갯돔, 흑돔

(57) 객주리 : 쥐치.

(58) 밧게 : 해안가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닭은거.

(59) 고메기 : 보말집 지렁 땡겨.

- (60) 여갱이 : 바당에 들어 강 잡는건디 (손바닥 펼쳐보이며) 이만한거.
- (61) 다금바리
- (62) 지름갱이 : 물들고 빠지는 사이에 겨울에는 돌 아래 막 모다정 있고, 여름에는 흘러져.
- (63) 들갱이 : 시커멓고, 탕탕한거.
- (64) 청갱이
- (65) 벨마 : 까맣고 납작하고 조개처럼 생긴거.
- (66) 군벚 : 벨마처럼 생겨신디, 돌트멍에, 반달처럼 생겨 벚경 먹는거.
- (67) 개우사리 : 굴의 한 종류.
- (68) 솔레기
- (69) 어랭이
- (70) 솔라니/생선 : 옥돔.
- (71) 우럭

13. 기타

- (1) 소리 : 노래.
- (2) 트멍 : 틈.
- (3) 지팽이 : 지팡이.
- (4) 우, 알, 오른찰, 원찰
- (5) 못빼기 : 망치.
- (6) 고냥 : 구멍.
- (7) 식개 : 제사.

민요

<목 차>

- | | |
|-------------|---------------|
| 1. 밭 밟는 노래 | 10. 툇칠 노래 |
| 2. 밭 매는 노래 | 11. 집터 다지는 노래 |
| 3. 타작 노래 | 12. 오돌또기 |
| 4. 마소 모는 노래 | 13. 너영나영 |
| 5. 따비질 노래 | 14. 시집살이 노래 |
| 6. 맷돌 노래 | 15. 자장가 |
| 7. 방아 노래 | 16. 동요 |
| 8. 해녀 노래 | 17. 기타 |
| 9. 풀베는 노래 | |

1. 밭 밟는 노래(밭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김만권(남, 1920년생)

어러러러 돌돌 하자
저 산 앞에 안개가 끼면
장남 두일뤼¹⁾ 열나홀 논다 하더구나

어러러러 돌돌 하자

1) 14일(2×7).

영주산 앞에 구름이 끼면
삼일 내에 비가 온다 하더구나
어러러러러 돌돌 하자

산방산 우에 번들구름이 돌각²⁾ 불리면
장마가 걷는다 하더구나
어러러러러 돌돌 하자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석중 (남, 1939년생, 토끼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김석중(남, 1939년생)

어어 돌돌 어더 돌돌

이산 중에 놀던 물아 저산 중에 놀던 물아
고비 고비 돌아오라
어러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일 소장³⁾에 놀던 물은 이 소장으로 디러 물고
순번제로 돌아오니 십 소장에 물들도 디러 물아
어러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저산 앞에 안개가 끼면
장남 두일뤼 열나흘 논다 하더구나
어러 돌돌 호호 월월 하자

2) 갑자기 사라지거나 삼키는 모양.

3) 첫 번째 목장.

한라산 중허리에 구름이 끼면
삼일내로 비가 온다 하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영주산에 구름이 끼면
당일에 비가 온다 하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토산 냇바⁴⁾로 절소리가 울면
세 시간 내에 비가 온다 하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산방산 꼭대기에 번들구름이 솟아오르면
장마가 걷는다 하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사라봉 꼭대기에 아침부터 뱃이 나면
중이 대구리⁵⁾가 벗어진다 하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농스를 짓거든 고고리⁶⁾랑 단⁷⁾마께 만이 나게
제석할머님이 도와줍서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4) 내와 바다가 만나는 곳.

5) 대가리. 머리.

6) 이삭.

7) 잎나무나 풀 따위를 작게 한 덩이씩 만든 묶음.

이농스 지어다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 효도하고 자식효도 시켜줍서 하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하니
너도나도 잘살아보자 하는구나
어려 돌돌 호호 월월 하자

-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송복순(여, 1931년생)

어려려어어어려려어어
요놈의 똥아지들아 율로 요래 돌아나오라
어려려어어어려려어어

-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강여순(여, 34년생, 개띠)
조사장소 : 신흥2리 마을회관

어려려 어려 어려 려어 어려 어려
어려려 어려 오려려려
돌돌 어려 어려 어려려 려려 오

어염으로 가지 말앙 복판으로 가멍
끌고루 족족 끌라글라

어려 어려려 어려려려
들들 어려

2. 밭 매는 노래

(검질 때는 소리-홍애기·아웨기·사대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1) 홍애기 소리

야 어어어 여기야 흥
건들건들 어어 으어엇
홍애기소리로 넘어간다 이야
앞명에랑 어어 으어엇
뒷명에랑
검질짓고 어어 으어엇
굽은 새로
농자는 어-어-으어엇
놀이말고

동남풍이 불어온다 어어 여기야
야 어어어 여기야 흥
들어나오고 어-어-
나아나가라 이야
꿀 너른 밭에 헤어기야
여이멍가자 이야
천하지대본이라 어어 여기야
농축산에 힘써봅시다 이야

(2) 아웨기 소리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아웨기소리를 불러나보자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모든역군들 낙심을 말고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일심단체로 일하여보자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산천이초목은 젊어나지고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인간에청춘은 다 늙어간다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㉔ 느린사데

느린사대를 불러나보자
 사데소린 느직느직
 검질손은 즈직즈직
 아어 허으랑 사데
 한 소리에 석 줌⁸⁾반씩
 아어 허여으랑 사데
 어서 어서 매어나보자
 아여 허여으랑 사데

㉕ 자진사데

즈진사데	불리보자	
사데불렁	검질매자	어 여랑 사데
먼데사름	듣기 좋게	어 여랑 사데
가까운데 사름	보기 좋게	어 여랑 사데
좁은 목에	베락치듯	어 여랑 사데
넓은 목에	번개치듯	어 여랑 사데

8) 줌.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

매콤폰같은	굴갱이 ⁹⁾ 로	어 여랑 사데
췌스랑 ¹⁰⁾ 같은	손으로	어 여랑 사데
어서 펼작	매여보자	어 여랑 사데
칠성같이	버린 역군	어 여랑 사데
다물 ¹¹⁾ 같이	모여들어	어 여랑 사데
지춧구나	자춧구나	어 여랑 사데
요만하면	할만하다	어 여랑 사데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양순이(여, 1931년생)

검질 짓고	굴너븐 밭에	앙 아야 아혜앙 어이요
앞 명에야	들어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라	앙 아야 아혜앙 어히요
나 놀레 ¹²⁾ 랑	산 넘어 가세	
나 놀레랑	물 넘어 가세*	앙 아야 아혜앙 어이요
히에라 난다	디혜라 난다	앙 아야 아혜앙 어이요
갈 때 가나	떠나간단 말랑 말고 가소	앙 아야 아혜야 어이요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9) 호미.
 10) 쇠스랑.
 11) 별자리의 이름.
 12) 노래(歌).

검질 짓고 골르든¹³⁾ 밧디
앙 아야 에헤야 어요
고부랑 골갱이 매명가자
앙 아야 에헤야 어요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앙 아야 에헤야 어요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앙 아야 에헤야 어요

-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김석중 (남, 1939년생, 토끼띠)
조사장소 : 신흥2리 게이트볼장

아양 아헤양 헤에요
앞 명에랑 들어 나오라
아양 아헤양 헤에요
뒷 명에랑 나고나 가라¹⁴⁾
아양 아헤양 헤에요
검질들이있고¹⁵⁾ 골너븐 밧디
아양 아헤양 헤에요
고부랑쇠로나 여의명 가자
아양 아헤양 헤에요

13) 골너른.

14) 빨리 물러가라.

15) 검질 짓고

⑤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A(앞소리)-김진숙(여, 1924년생, 쥐띠)

B(후렴)-강여순(여, 1934년생, 개띠), 김인열(여, 1933년
생, 닭띠), 현숙보(여, 1934년생, 개띠), 송복순(여, 1931년
생, 양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A. 검질 짓고 골너븐¹⁶⁾ 밭에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요런 날에 요런 일 해영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성도 언마¹⁷⁾ 가실소냐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노세 놀아라 저리 쫓아 놀아라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동창으로 솟은 해가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서창으로 다지도록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우리아 어머니 날이나 나실적에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김진숙(여, 1924년생)

16) 골너븐.

17) 얼마.

A. 어느 바당 미역국 먹었 나를 낳았던고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지척고나 버척고나

B. 아 야야 예야 어이요

A. 보리떡에 쉬¹⁸⁾미쳐간다

B. 잘한다

3. 타작 노래(마당질 소리, 도깨질 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야홍 어기야홍

율로 절로 때려나보자 어기야 홍아

오뉴월 벅에 보리태작

구시월 벅에 모밀태작 어기야홍

앞집이 아지망 앞으로 때리고

뒷집 아지망도 앞으로 때리고 어야홍아

어깨를 들르고 다리를 들르고

들씩들씩 메어다쳐라 어기야홍아

높은 데만 메어다쳐라

이어깨 저어깨 돌려가멍 메어다쳐라 어기야홍

18) 떡에 붙이는 쌀 종류.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아호앙 어아홍아
에아홍아 어아홍아
에아홍아 어아하야
에아홍 어아홍아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아홍 어여 하야 이야도 홍아
조차들명¹⁹⁾ 때려나보자
어아홍 어아홍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A(앞소리) 강여순(여, 1934년생, 개띠)
 B(후렴) 김진숙(여, 1924년생, 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 A. 어야 홍아
- B. 어야 홍아
- A. 어야도 흥
- B. 어야도 호야



강여순(여, 1934년생)

19) 앞으로 쫓아 들어서며.

- A. 어야 하야
- B. 어야 하야
- A. 에야도 흥아
- B. 어기야 디야
- A. 요놈의 동산
- B. 요놈의 동산
- A. 노피 들르멍
- B. 노픈 동산
- A. 해어나보자²⁰⁾
- B. 해어나보자
- A. 이 가달 저 가달
- B. 어야 하야
- A. 들썩들썩
- B. 에야 흥
- A. 에야 흥
- B. 에야 흥
- A. 어야도 흥아
- B. 어야도 하야
- A. 산덴 허난
- B. 못 산덴 허난
- A. 못 산덴 허난
- B. 에야도 허야
- A. 붉은 양지²¹⁾에
- B. 지미²²⁾나 보라

20) 때려나 보자.

21) 뺨.

22) 기미.

- A. 지미나 보라
- B. 어야도 허야
- A. 본데 저녁
- B. 어야도 허야
- A. 어둡는 집에
- B. 어야도 허야
- A. 오늘 이에
- B. 붉은 데 허느냐
- A. 붉은 데 허느냐
- B. 예야 흥

4. 마소 모는 노래(머쉬 모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허어어 어허어어 어러러
어허어어 어허어어 어러러
어허어어 어허어어 어러러

요놈의 뭉아지들아 흥저 내려걸라
덥기 전에 밭을 불러보자
어러러 어러러러 둘둘 윙윙 하자

이산 중에 놀던 몰아 저산 중에 놀던 몰아

굽이굽이 돌아오라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저산 앞에 안개가 끼면
장남 두일뤼 열나홀 논다 하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유월절²³⁾이 들고 보니
땅에서 더운 김이 사름에게 안겨 드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영주산²⁴⁾ 꼭대기에 구름이 끼면
당일에 비가 온다 하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토산리 냇바²⁵⁾로 절소리가 울리면
세시간 내에 비가온다 하더구나⁹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산방산 꼭대기에 번들구름이 솟아오르면
장마가 걷는다 하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사라봉 꼭대기에 아침부터 벗어나면

23) 절기의 하나.

24) 성유리의 산.

25) 내와 바다가 만나는 곳.

중이 대구리²⁶⁾가 벗어진다 하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요놈의 몽아지들아 굽이굽이 돌아오멍
노픈디만 드근드근 붉아오라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제석할머남아 요 줄을 불리거든
고고리²⁷⁾나 남텡이²⁸⁾나 크짱²⁹⁾하계 키와줍서 하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이 농사를 지어다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 효양 하여 자식 효도 시켜보자 하는구나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시화연풍 국태민안하니
너도나도 희희낙락 거리로다
어러러 어러러러 돌돌 월월 하자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김석중 (남, 1939년생, 토끼띠)

조사장소 : 신흥2리 게이트볼장

26) 대가리. 머리.

27) 이삭.

28) 대. 식물의 줄기.

29) 가지런히.

아양 아에 양 아해 양 해에요
요년의 송아지들아 보덜보덜 걸어라
아양 아해 양 아해 양 해에요
에헤 에 헤 해에요

5. 따비질 노래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요일저일	허단보난
따비질 일이	남앗구나
서경 땅에	남따비질러
그들그들	흔들어보니
자든 얘기	일어나듯
오글오글	일어난다
우리 어멍	날 나올 적엔
요런 일만	하라고 낫던가
삼 사월	긴긴해에
담배나 붙이고	쉬면서 하세

6. 맏들노래(ㄹ레 ㄹ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잘산덴허난	못산덴허난	어어어어
얼골에 주름살을 보라		
오름에 돌과	지서명 ³⁰⁾ 은	
둥글당도 ³¹⁾	살을매가 나고 ³²⁾	
남의 첩과	소나무 바람 ³³⁾ 은	
소리 나도	살을매가 업드라	
느네 아방은	밤낮 술먹으레만 가곡	
느네들 데령으네	나 어뎡 산덴 말고	
요내 신세는	무슨 날에 나서	
아이는 악악 울고	밤은 깊어가고	
요보리쌀을	다굴아야할걸	
새벽물을	질어다가	어어어이여
새벽조반을	하야야 할테인데	
물꾸럭 ³⁴⁾ 구튼 남편은	품안으로 들어온다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30) 지어미. 집안의 가정사를 착실히 다스리는 아내.

31) 둥글지만.

32) 살 도리가 생기고

33) 바람.

34) 문어.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오늘 날에 뱃나나네
 보리 물리왕³⁵⁾ 저녁 쌀 허키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바람 불곡 건들건들
 보리 굴라하네 겹피³⁶⁾ 허연
 저녁밥 질 거여 이여동 허라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어동 허라 어어어어어
 이어동 허라 어어어어어
 산덴허난 못산덴허난
 붉은 양지에 해지민 나와보라
 이어 이어어 이어동 허라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진숙 (여, 1924년생, 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 이여 ㄹ레 고들베³⁷⁾ 굴앙

35) 말려서.

36) 녹두·메밀 따위를 애벌 갈다.

37) 쉬지 않고 자꾸.

즈낙이나	붉은 데 허라
이어 뽕이자랑 뽕이자랑	발로 애기 흥글명
꺄래 굴앙 밀 굴앙	즈베기 ³⁸⁾ 헤영
느네 아방	뱃갈레 가난
오랑 즈낙 어둑엇젠	막쟁이로 두드려 맞으카부덴
이어 이어	이어동 허랑

7. 방아노래(방에노래 남방에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방엔 보난	굴묵낭 ³⁹⁾ 방에	
절구는 보난	도애낭 ⁴⁰⁾ 절구	
이 방에에	열놈이 사도	
비잡은 놈이	사공이러라	
가라오라	드리는 집에	
돌암들명	삼년을 사난	
가랜말도	저이저서라	응응
앞마당에	날아가는	
저 꿩이나	잡아시면	
두드리는	놀개기랑	

38) 수제비.
 39) 느티나무.
 40) 복숭아나무.

시어멍이나	멕여시면	
팔롱팔롱	바리던 눈이랑	
시아방이나	멕여시면	
매콥ㄷ튼	주둥이랑	
시누이나	멕여시면	
걸고 걷는	정강이슬랑 ⁴¹⁾	
서방이나	멕여시면	
씩고씩던	가슴썰랑	
설운 내나	먹여시면	
귀막아 삼년	말몰라 삼년	눈어두워 삼년
믿음 참음	사랑 수눌음	
즈낭분가	상부상조	
근점절약	자조자립	호여그내
잘 살아보젠	호단보난	
가시오름 ⁴²⁾	강당장 ⁴³⁾ 침에 ⁴⁴⁾ 도	
세콜방에 ⁴⁵⁾	새글럼서리 ⁴⁶⁾	
이여이여	이여도호라	
남방엔가	들방엔가	
쿵쿵짓는	남방에에	
석섬쓸을	서말에 능경 ⁴⁷⁾	

41) 정강이 살은.

42) 지명.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소재.

43) 가시오름 강당장(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대부호 지나친 물욕 탓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했다가 온갖 이변이 일어나서 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제주 전역에 널리 번졌고, 방아노래 사설로도 흔히 불림.)

44) 침에=침의.

45)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구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 맞추어 짚어 넣으면서 방아를 짚는 일.

46)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세 사람이 방아를 짚어서 바자가 잘 맞지 않아 작업 상황이 어려운 상태.

서말쌀을 석뒤에 능경
 석뒤살을 서흙에 능경
 떡밥을 호난
 온 식구들이 웃음이나고
 먹으면서 칭찬을 하더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가시오름에	강당장침에	
세콜방에	새글럼서라	이여도 여라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나 놀레랑	산님영가세	
나 놀레랑	물 넘어 가라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도 허라
너만 지영	생보리뒤면	
즈낙밥이	엇일로구나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요 보리야	요 보리야	
복닥 ⁴⁸⁾ 벗으라	즈낙밥 지게	
이여 이여	이여동아	이여도 동아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47) 농그다(방아에서 찼은 쌀을 아주 곱게 쏜다.)

48) 물건에 씌워진 겹질.

-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 제 보 자 : 송복순 (여, 31년생, 양띠)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 방에	꺾들베 지엄	
저녁이나	붉은데 허라	
이여도 허라	이여당에	이여동 허라

-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 제 보 자 : 김진숙 (여, 1924년생, 쥐띠)
-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가시오름에	강당장 칩일
세콜방에	새글러온다
우리 성제	삼성제 가난
세콜방에	새맞아온다 ⁴⁹⁾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49) 방아 짚는 사람이 방아 화에 절구공이를 짚어 넣는 시간 사이가 알맞아 절구공이가 서로 부딪치지 않음.

8. 해녀노래(해녀 너 짓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어도 사나	이어사	이어사나
열다섯에	허물질 ⁵⁰⁾ 배와	
스물다섯에	대상군뒤여	
호미와 비창 ⁵¹⁾	코부레 차고	
뵈는 바다	날려더니	
생복고동	상엿건마논	
내 숨이 바쁜	못 할러라	
이어도사아	차라도차이	
이기여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만지영	아니아가면	
씩은 나무	덕더리여 ⁵²⁾ 이	
이어도차이	차라도차 차라 차	
진도야 바다	한골로 가자	
진도 바다	한골로 가자	
나 소리랑	산넘영가세	
나 노래랑	물로만가세	이어도 차 이
우리 어명	날 날적이	
어느 바당	메역국 먹영	날 낫던고 이

50) 해엄질.

51) 바다 밑에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도구.

52) 모양이 정연치 못한 나무토막.

이어도 차 이 차라도 차 이
이기여라 이어도 사나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현숙보 (여, 1934년생, 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현숙보(여, 1934년생)

㉠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나 배는	솔나무 배	
솔랑솔랑	잘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한질더레	들어강보난	
생복고동	널렸거라미는	
숨이 졸라	못따더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썩은 나무	닥달대는	
우리야 배는	솔나무배	
솔랑솔랑	잘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

우리 어멍	날 날적에
무슨 날에	나를 나서
해천영업 ⁵³⁾	시겻던가
이어도 사나	차라 멕여라

저 산천에 푸섬새⁵⁴⁾는
 해년마다 오건마는
 우리나라 몸은 흥번 가문
 또다시 흥번 아니나 온다
 이어도 사나 차라 맥여라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병숙 (여, 1926년생, 호랑이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김병숙(여, 1926년생)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요목조목 오목조목 넘어가자
 흥목이랑 지고 가자
 흥목이랑 지고 가자
 이어도 차라 차라 차라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 사나 이어사
 이어도 사나 이어사

9. 풀베는 노래(출비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숭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53)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일.
 54) 수풀에 사는 새.

㉔

산범같은 요내 병기는 허어어어
 잘도 먹기는 잘도 먹는다 허어어어
 낮그르가 보잇보잇 잘도 먹는구나 흥아기로드
 해는 보난 스시⁵⁵⁾가 되어가고 허어어어
 존동이⁵⁶⁾가 굽을굽을 아래에 헤에이에
 요 출을 비어보자 흥아기로드
 일출이작하고 일입이식⁵⁷⁾하니 헤에이야
 모든 역군들 낙심말고 농축산에 힘써봅시다 흥아기로드
 해는 보난 서산에 다 기울어가고 허에이야
 모든 역군들 낙심말어 요출을 다 비어보자 흥아기로드

㉕

요내 병기는
 잘도 먹기는 잘먹는다
 낮그르가 보잇보잇 먹는구나

 해는 보난 낮이 되어가고
 흥아기소리 부르면서
 존동이 굽은굽은 비어보자 흥아기로드

바람이랑 하늬벼름만 솔솔 불어가고
 출비는 정신이 기분이
 상쾌하구나 흥아기로드

55) 사시: 11시에서 1시.

56) 잔동이. 허리.

57)日出而作 日入而息.

때는 보난 어느 때나
자골깍지가 푹푹캐는 소리에
중추절을 재촉하는구나 흥아기로다

일출이작하고 일입이식하니
일년 삼백육십오일에
내가 쉰 날은 밤뿐이로구나 흥아기로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모든 역군들 낙심말고
농축산에 힘써 봄시다 흥아기로다

해는 보난 일락⁵⁸⁾ 서산에 이어 기울어져 가고
출 빌 것은
남을똥말똥 하구나 흥아기로다

칠성같이 버린 역군들아
다물⁵⁹⁾같이 모여들어
요 밭 출을 다 비어보자 흥아기로다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김석종 (남, 1939년생, 토끼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산범같은 요내 병기는

58) 해 떨어지는 것.

59) 별자리의 이름.

잘도 먹기는 잘 먹는다
낮그르가 보잇보잇 잘먹는구나 흥아기로다

해는 보난 낮이 되어가고
흥아기 소리 부르면서
즌동이가 굽은굽은 비어보자 흥아기로다

바람이랑 하늬벼름만 솔솔 불어라
출비는 정신이 기분이
상쾌하구나 흥아기로다

때는 보난 어느 때나
자골 깎지가 똑똑 캐는 소리에
중추절을 재촉하는구나 흥아기로다

일출이작하고 일입이식하니
일년삼백육십오일인데
내가 쉰 날은 밤뿐이로구나 흥아기로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모든 역군들아 낙심 말고
농축산에 힘써봅시다 흥아기로다

해는 보난 서산에 기울어져 가고
출 빌 것은
남을 똥 말똥 하구나 흥아기로다

칠성같이 벌인 역군들아
다물 같이 모여들어
요 밭 초를 다 베어보자 흥아기로다

10. 툇질 노래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 제 보 자 : 오태중 (남, 1929년생, 뱀띠)
-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오태중(남, 1929년생)

호루라기	소리도 없이
집합시킨	못해준구나
일어나라	조반의 식사
한 많은	눈물이 된다
툇질소리	눈물이 나고
그래도잊지못할	초기60)국이야

11. 집터 다지는 노래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숭이띠)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60) 버섯.

㉑

대로 한질로	입수삼고
대로 한질로	청룡백호삼고
일주도로	안대허여
체육관을	짓고보니
명당지가	분명쿠나
남군일대	노장님들
얼싸 좋다	놀아보자
남녀노소	모여들어
어깨춤이	절로난다.
놀이 좋고	보기 좋아
허송세월	즈미 ⁶¹⁾ 있네
놀이 좋은	체육관이라
누대유전	하리로다

㉒

한라산맥이	동남유하여
모지오름으로	분맥뒤편
마디마디	용맥이 내려
당퐁산에	미첫구나
가마마루	입수 삼고
영주산 줄기로	청용삼고
임대마루	백호삼아
넷물이 황곡뒀니	
남산봉을	안대하니

61) 재미.

명당지가	분명쿠나
전산밖에	이봉악은
문장출신	흐리로다
공직원이	다출하니
얼씨 좋다	명승지로다
절구대를	높이 들어
빙빙돌며	달여보니
보기 좋고	듣기 좋아
어깨춤이	절로난다
이 마을을	설촌하니
진사리라	불르다가
정이헌청	설입하고
정이향교도	설입돼어
이백여호가	뛰어가니
리명 좋은	성읍리로
개명하여	불러보자
요집지어	삼년전에
아들나면	효자냥고
딸은 나면	열녀냥고
소는 나면	황소냥고
말은 나면	영마냥고
자녀손이	번연하여
농축산도	번식되어
시화연풍	뛰어가니
국태민안	흐리로다
만대유전	흐리로다

12. 오돌또기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숭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기 저기춘향 논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한라산 중허리에 시러미 익은숙 만숙

서귀포 앞바다에 해녀가 든듯 만듯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너도 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제주의 한라산 고사리 밭도 좋고 좋고

산지포 저 돛배의 뱃고동 소리가 좋고 좋다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인열 (여, 1933세, 닭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김인열(여, 1933년생)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지귀 섬 한바다에 자릿배 들성만성
예래⁶²⁾에 앞바다에 해녀가 든승만승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저산에게 든 낭은 감관⁶³⁾지만 멘 소요
앞 요 바다에 성기는 소리 해녀들 우리 애참고 있네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13. 너영나영

-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느영 나영 두리 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62) 예래리 지명.

63) 농경지 공동관리 कै매기 조직에서의 우두머리.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려 온다
느영 나영 두리 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한 세상이로구나
느영 나영 두리 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무정한 세월아 오고기들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느영 나영 두리 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사람이 살면은 몇백년 사나
막상에 살아야 반백년이로구나
느영 나영 두리 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14. 시집살이 노래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금순 (여, 1940년생, 옹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송금순(여, 1940년생)

이여도 사나 이여

우리고향	제주돈디
바당에도	가견해도
생복고동	잡아가당
꺾치오랑	팔아그네

살아생전	한푼두푼	매운금전
정든님의	술값에도	
다들어가고	이어도 사나	
허당봐도	어느누게	
잘해엿젠 말도	못하고도	
시집오랑	남편하나	못만나고
일천고생	다흐곡도	
이상저상	살암구나	
고생인들	안허리야	
이여도사나	차라 차라	
제주도 고동생복		
많이 헤여다가	팔아그네	
돈내여당	즈낙쌀 사당	
떡곡두어	고양 ⁶⁴⁾ 돈도	문독 ⁶⁵⁾ 문독
남편하난	못만나고	
술도먹고	노름도 허당보난	
어디간줄	모르겠네.	
이어도 사	차라차라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우리 시어명 구쟁기⁶⁶⁾ 냇이

64) 고이.
 65) 티끌.
 66) 소라.

날만 보면	오드득 혼다
우리 시아방	전복이 넋이
날만 보면	새만 들각
우리 시누인	코생이 ⁶⁷⁾ 넋이
날만 보면	호로록 혼다
우리 서방님은	물꾸럭 ⁶⁸⁾ 넋이
날만 보면	언줄안다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떡디까
아이고 야야	말도말라
물꾸럭 ⁶⁹⁾ 답은	서방님에
장독 ⁶⁹⁾ 답은	시아방에
암톡같은	시어명에
코생이같은	시누이에
고추장이	맷다흔들
시집살이보다	맷다더냐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성님 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가	어떡디까
아이고 야야	말도말라

67) 용치-놀레기.

68) 문어.

69) 수탉.

암탉같은	시어명에
장닭같은	시아방에
물꾸러달মন	서방남에
졸락닭은	시누이에
아이구 야야	말도말라
고생문이	활짝이야
세상만사가	조리조리

15. 자장가(애기 구덕 흥그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자는 소리
우리 애기	노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아 자랑아 자랑아
어진이도	자랑허게
신선이도	자랑허게
자랑자랑	자랑아 자랑
우리 애기	돈밥 맥영 돈춤 ⁷⁰⁾ 재와줍서
우리 애기	돈춤 재와줍서
어진 할망님이	애기 못혈 일이 잇우광

70) 단참.

자랑 자랑 자랑
 어진이도 자랑하게
 신선이도 자랑하게
 저리가든 금동개야
 우리 애기 재와도라
 이래오는 금동개야
 우리 애기 재와도라
 자랑아 자랑아 자랑 자랑 자랑아

②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아모 (여, 1927년생, 토끼띠)
 조사장소 : 신흥1리 게이트볼장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잠재와도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니가잠잘자사 발도 매고
 검질도매고한다 왕이자랑
 명명개야 짓지말라
 우리 애기 혼저 잠자게 허여 도라

③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오순생 (여, 1930년생, 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오순생(여, 1930년생)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자랑 자랑 잘도 잔다

높이 애기	우는 소리
우리 애기	자느 소리
어서 자장	자랑 자랑

④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진숙 (여, 1924년생, 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어서 자라	어서 자라
금자동아	옥자동아
물아래는	옥돌이야
물우에는	제비새 알아굴 ⁷¹⁾ 턱이야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16. 동요

1) 원님노래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진숙 (여, 1924년생, 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71) 알아구리(돼지의 턱 아랫부분).

훈다리 인다리

거칭 대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장통 밧딤

지등에 축

2) 꿩꿩장서방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31일

제 보 자 : 오순생 (여, 1930년생, 말띠)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산다

뭐 먹고 사느냐

콩도 죽어 먹고 산다

17. 기타

1) 사발가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30일

제 보 자 : 송복순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석탄 백탄⁷²⁾ 타는데
 연기만 풍풍 타고요
 요내 심정 타는데
 연기도 짐도 안나네
 에요 어야
 어여라 난다 디어라
 허송세월 나노라

2) 앞강 물 흘러 흘러⁷³⁾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제 보 자 : 양순이 (여, 1931년생, 양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강 물 흘러흘러	넘치는 물 하도
떠나는 당신 있어	막을 수 없거든
어떻게 대장군	믿으리까
공산은 거둥거둥임 앞에 와들	
봄 빛에 당신 얼굴을	보고 또 보면서
어떻게 당신을	믿으리오

3) 배틀가

① 조사일자 : 2005년 7월 29일

72) 연탄.

73) 제보자에 의하면 육지바다에서 제주 해녀들끼리 부른 노래라고 하였으나 육지부에서 전해 지던 민요일 것으로 추측됨.

제 보 자 : 김만권 (남, 1920년생, 원송이띠)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베들을 노세 베들을 노세 옥난간에다 베들을 노세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초산⁷⁴⁾ 병룡 칠성포요 길조 명천 서북포로다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초산 백룡 칠성포 회천 강개⁷⁵⁾에 육선포로다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이 베를 짜서 누구를 주나 바다⁷⁶⁾ 칠손 눈물이로다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열두 세 이 고운 베는 내 낭군이 마지⁷⁷⁾ 오실새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어 떼는 삼사 형젠데 나는 어찌 외로울소나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아가야 우지를 마라 이 베를 짜기가 다 늦어간다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74) 지명.

75) 지명.

76) 베틀이나 자리를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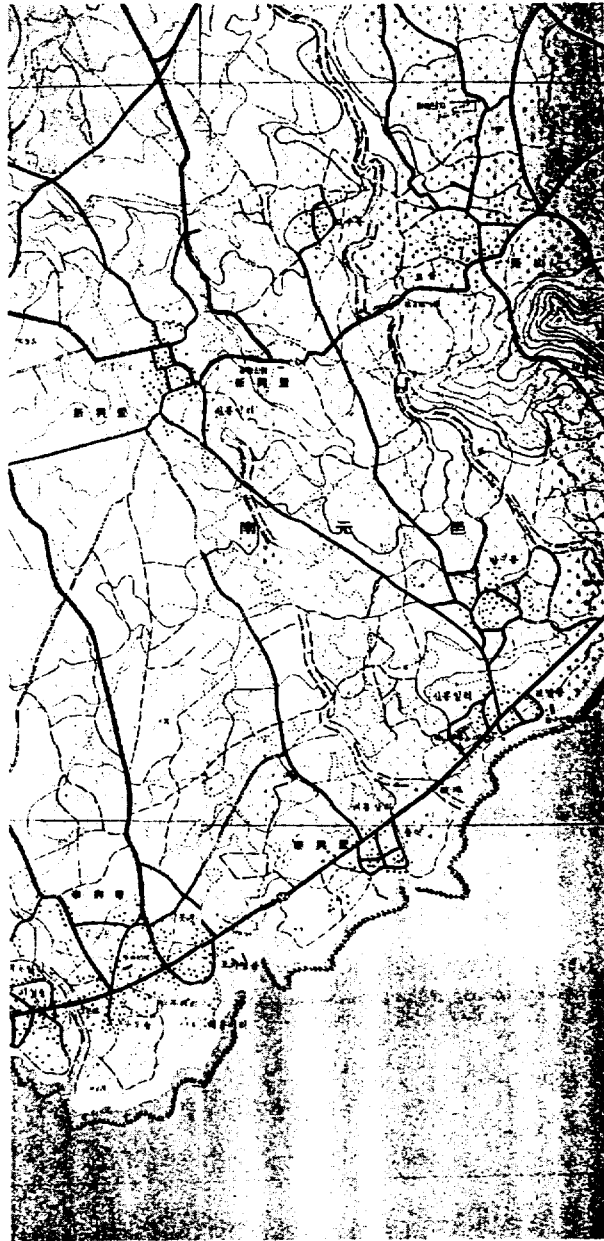
77) 옷을 맞추는 것.

들창 밖에 나리는 비는 가신 님의 눈물이로다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누나

南濟州郡 南元邑 新興里 現地學術調查報告

(2005. 7. 29 ~ 8. 2)

1. 조사경위
2. 마을개황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앙



신항리 부근 지도

설화

<목 차>

신화1리

- 1) 힘센 하르방
- 3) 골고루 죽죽
- 5) 딸은 도둑년
- 7) 콩데기 풋대기 1
- 9) 콩데기 풋대기 2
- 11) 토산땅 뱀 귀신
- 13) 설문대 할망
- 15) 마음씨 나쁜 계모
- 17) 운수 굶은 아들 삼 형제

- 2) 삼천 년 산 스만이
- 4) 아들 열두 형제를 죽이려 한새 어멍
- 6) 힘센 당포하르방 1
- 8) 일곱 성제 죽인 다슴 어멍
- 10) 힘센 당포당장 2
- 12) 김녕굴 전설
- 14) 아들 성제 간 꾀 죽인 계모
- 16) 문도령과 자청비
- 18) 죽음이 시작된 유래

신화2리

- 1) 지네를 죽이고 부자 된 거지
- 3) 종달 힘센 할망
- 5) 변신한 천 년 묵은 쥐
- 7) 여우내 지명유래
- 9) 똑똑한 셋째 딸
- 11) 지혜로운 곰보각시
- 13) 강아지 따라 저승 간 처녀
- 15) 고종달
- 17) 힘센 당포 하르방 1
- 19) 못된 새어멍
- 21) 남선비와 아들 일곱 성제
- 23) 힘센 당포 하르방 2
- 25) 힘센 하르방
- 27) 광산 김씨 설촌 유래

- 2) 산신령의 도움으로 부자 된남자
- 4) 월계 진좌수
- 6) 사만 년을 산 스만이
- 8) 처녀와 소금장수
- 10) 설문대 할망 1
- 12) 사람 흘리는 도깨비불
- 14) 콩데기 풋대기 1
- 16) 팽룡 도채비
- 18) 콩데기 풋대기 2
- 20) 설문대 할망 2
- 22) 사만 삼천 년 산 스만이
- 24) 콩데기 풋대기 3
- 26) 힘센 당포 하르방 3

1. 신흥1리

1) 힘 센 하르방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모열(여, 1927년생, 토끼띠)

요약 : 옛날에 덩치가 매우 크고 힘 센 하르방이 있었다. 하르방이 나무를 한 그루를 베어서 돈으로 바꾸러 가니 소를 주었다. 그러자 하르방은 소를 대롱으로 찢어 건강하니 시험하고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프면 "대롱아, 대롱아"하여 병을 낫게 했다고 한다.

힘 센 하르방이 있어나서. 우리 광산칩의 광산칩 하르방이 옛말 헛어. 하 이놈의 하르방이 어디가신고 허난 방엘 대가리가 특 썬 안자서 방에 영 허민 엔간히 크주게 이만이 행 방에 이신거 셋골방에 넷골방에 지금 이만이 큰 거 대가리가 그거 특 썬나서 경 해났다 옛날엔 내기 헤그네 또 저울레 가그네 술 훈 추 내기 헤그네 어디 업어가민 술 훈추 내켄 행 그저 이디 업영 오라고 경헤그네게 업어다 주믄 술 훈추 내영덜 춤 옛날엔 그추룩 해났다. 헤난 옛 말만 들었주

<조사자: 어디 산에 강 낭허영. 훈 그루치 낭허영 오곡 현 말은 업고?>

훈 그루치 낭 헤그네도 오곡 오랑 돈 바꿀거 어시민 오라그네 저 무시것 헤영 벵팔이주게 옛날엔 뭐술 행 건네주젠 험신고 허나네 쉼 건네길레 대 룡체를 찢러시나네 영 뵈러방 대롱 이시난 내주켜게 그 대롱 그거 틈내여 네 그 아픈 사름 고라 "대롱아 대롱아 대롱아" 헤동 가도 그 배가 조앗다 헤여 경허나네 옛날엔 대롱아 대롱아 헤도 병 조앗져게 그거 이겨냉 곧주 아이구 참.

2) 삼천 년 산 스만이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모열(여, 1927년생, 토끼띠)

요약 : 죽을 목숨이던 한 사람이 14일 동안 밤낮으로 굶을 하여 스만의 목숨을 얻어 병이 낫고 삼천 년을 살았다고 한다.

죽은켄 허난 큰 도시 강 큰 굶을 두일레 열나홀 날 허민 밤 일레 낮 일레 주게. 밤 낮 열나홀이주, 밤낮. 저 큰데 탁 씩위다그네 대신 맞고 두일레 열나홀 밤낮 열나홀을 밤낮 헤사 스만이 목숨 가져그네 스만 삼천 년을 산덴 허난 경 허난 이젠 큰 도시 와그네 큰 굶헤네 스만 삼천년을 살앗젠. 스만 삼천년 깰장은 안 살앗주마는 그렇게 오래 살앗덴 험 말이주. 스만 삼천년 살앗덴. 그자 아프민덜 굶 행덜 큰 도시에강 굶 험주. 두 일레 열나홀을 밤에도 일허고 낮에도 일허고 경행 허민덜 병 낮앙 올꺼주 낮으난덜 험주. 그것파 스만이 목숨 스만이 말이주. 스만 스만이 큰 굶 허민 스만 삼천년. 스만에도 스만 삼천년 살앗젠. 그 말이주.

3) 골고루 족족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모열(여, 1927년생, 토끼띠)

요약 :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이 사는 집에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을 묵었다. 나그네가 딸하고만 정을 나누자 시어머니가 잠을 자는 척 코를 골며 "골고루 족족, 골고루 족족"하였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며느리, 딸이 모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구들이 하나만이주게 구들이 하나만이나네 시어명도 흠어명, 며느리도 흠어명, 딸도 흠어명이란 세 흠어명이 한 방에 누웠 잠시난 손님이 오나네 방만 빌립센 하나네 방 빌릴것이 없덴. 어떻허난 이 한 방에라도 한 편에 조금 조금 누웠당 가켄 허난 어서 한 편이 누렌. 허난 그 제일 뭇부터 먼저 헛던 모냥이랑. 거 무시거 시어명이영 한 방이 누운걸 뚫허고 헤분거라. 말을 영 헛다여. 그 시어명이 저 “골고루 족족 골고루 족족” 문딱 헤줄거 다 헤주렌 헌 말이주. “골고루 족족 골고루 족족(코고는 소리와 비슷하게)” 그때 콧소리가 난 거옌 거 아주 옛날인디 옛날 이주게. 게난 자는 추록 허영 콧소리 헤나난 그게 이제도 콧소리가 잇젠. 골고루 족족 헤동 콧소리 헤나네 아이 이제 골고루 문딱 그 사람이 헤준거 아니라. 세 개를 다 헤브난 세 사람이 셋이덜 다 아덜을 난. 다 아덜을 나네 완전 홀름한 사람이 댓다 허여. 그 사람덜이 그런 말을 들었어 콧소리가 그때 낫젠.

4) 아들 열두 형제를 죽이려 한 새 어명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송복순(여, 1931년생, 양띠)

요약 : 새 어명이 전 부인의 아들 일곱을 시기하여 짐쟁이로 변장하고 남편을 속였다. 새 어명은 남편에게 아들 12 형제의 간을 내어 먹여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새어명이 남편과 아들을 속여 아들 여섯을 죽이고, 막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막내는 마지막으로 새어머니의 자리를 치워드리겠다고 한다. 막내가 이불 밑을 보니 새어머니가 먹지 않고 숨겨둔 간이 발견되어 새어머니는 쫓겨났다고 한다.

애기 다습 애기 열두 개나 이신디 간 거주게. 죽은 어명으로 들어가네, 사는데게, 아프덴 막 죽어가는데 헛, 이제 하나네, 어떻허든 좋음니겐 허난에

어디 강 보민 무신겨 쓴 점쟁이 이시난에 그디 강 보민 점쟁이헌티 강, 들어
 그네게, 들으민 곶아줄거난에 그 곶은대로 허민 병 구완헤진덴, 그건 또 그
 사람, 강 짱 와네 경 헌겨주, 다습어멍이. 게난 가나네 저 애기 애기덜 애로
 내어 먹으른 병 구완헤진덴 ㄱ랏젠 점쟁이가. 경허난 이제, 아이 아이고 나
 못살켜 못살켜, 허멍 막 죽어가느체 누워서 서라 막 무시겨 후나네. 막, 게민
 어멍헝 좋음니젠 허민, 아무디 점쟁이신디 강 들어와그네 게 나 병 구완허렌
 허민, 그 점쟁이 신디 가민 애기들 저 애 내어 먹으면 병 구완헤진덴 헤젠
 허고, 애 애를 내어먹젠 애 또 저 애를 내어그네게 내젠허난 애가 어디서게?
 아이고 어머니 게민 어멍 험니젠, 어디 저 나가 가그네 아들들 큰 아들 죽은
 아들 돈 아들들 오라그네 헤도 아니뵈나네, 이젠 켈 막내기 아들 오난, 어머
 니 저 마지막으로 머리에 니나 혼썰 잡아내어뒤그네게, 저 아들들 애 돈딱
 내어당 애 내와수덴 허멍 아저당 주믄, 그걸 먹지 안허그네게 먹는추룩 먹는
 추룩 허멍 누운 자리 알더래 못어불고 못어불고 허멍, 열 후난가 그건 돈 내
 어당 쥐가도, 먹어도 아이 나삼젠. 허멍 아이 나삼젠 허멍, 어이구 너 이시민
 그거 나 먹지 못헌다. 느네 저리 가뵈사 먹켄 허멍! 경행 가게시리 헤뒤그네
 게 먹지 안허영 자기 알더래 묻고 묻곡 허영, 경허당 이젠 켈 마지막 아덜은
 저 마지막으로 어머니, 머리에 니나 잡아와뒤그네 나두 마지막으로 저 애 내
 어그네게 먹읍센, 허멍 후난에, 경허렌 헨 이젠. 니 잡는추룩 잡는추룩 허멍
 영헤 후단에, 어머니 혼술 일어납서 나 마지막으로 자리나 치와 와뒤그네게
 나 애 내와블러들랑 머읍서게. 게난 어멍 일어나난에 영헝 자릴 확 걸영보난
 에 그 놈이 애 낸 걸 먹어서게, 먹질 안허네, 그 먹는추룩 먹는추룩허멍 그
 자리 아래 묻어노난, 이젠 뵈, 이젠 서른 성님들 모다줍서, 이놈의 애 낸거
 먹지 안허네 여기 다 묻어져수덴, 후멍. 그난 그 어멍을 막 그거헨 내쫓가 불
 엇주게, 내쫓가 붓젠 헨 말이 있어나서.

5) 딸은 도둑년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송복순(여, 1931년생, 양띠)

요약 : 딸은 결혼을 하면 친정을 안 챙기고 시집만 챙긴다고 하여 딸은 도둑년이라고 한다. 친정아버지의 묘자리가 좋으면 친정아버지를 묻지 않고 그 자리에 시아버지를 묻었다고 한다.

딸이 필요없다하는 거라 딸은 친정, 저 늙이 지비 그 시집이 강 챙긴다는 하는 뜻으로 그거라. 딸들은. 딸은 도둑년이렌 허멍 딸은 도둑년이렌 허여. 시 친정에꺼 굶어가젠만 허고, 시집이만 시집이 이녁 저 살 생각만 헤으네게 아주 친정 아방은 문젠 건 산 터를 좋은 데 만나뉘나게 지네 친정아방을 아니 묻고 너네게 지네 시아방을 그디강 묻엇덴 헤낫주게 옛날에는 게난 딸은 도둑년이렌 게난 경행 딸은 필요없다 허는거주게

<조사자 : 갹 경행 문으난 딸은 잘 되언마쑈?>

잘 되주게 되지 아네도 시아방은 지네 친정은 아니되고 시집은 이녁 잘 되젠허난 그디 존 터에 강 묻은 거 아니

6) 힘 센 당푼당장 1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홍대(남, 1937년생, 소띠)

요약 : 힘이 센 당푼당장이 있었다. 당푼당장은 모슬포에서 소문을 듣고 시합을 하러 온 장사를 모래판 밀리기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소를 빌려 나무를 해서 내다 팔기도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나무를 많이

해다가 파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를 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당뚝당장은 지게에 나무를 한 가득 저서 좁은 길의 담을 모두 무너뜨리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소를 빌려주었다. 당뚝당장이 들어올린 고인들도 남아있다.

여기서는 그 옛날에 이 힘센 당뚝당장이렌 허는 힘센 장사가 잇엇주. 음 저기가 저게 그 저 모실포 쪽에서 모실포 쪽 거 거기서 기운 썬 사름이 이시니까 또 그 시합을 부트리 온거라. 시합을 부트리 오니까 어디 잘못허든 잘못허든 너무 기운이 세부니까 뼈가 부러지겟거든. 그레 이저 모레판에 가네 표선 모레판에 가네 힘으로 영 놀러그네 어 놀러 딱 잡앙으네 놀러헿으네 상대방 놀러헿 놀러니까 그 모레 헿 영감, 이제 그 여기 여기서 난 하르방은 여 요 요까지(무릎을 가리키며) 상대방을 무릎 깔리젠 물 속에 들어가젠 놀르고 어 그 하르방은 이제 이 하르방 누르젠하니까 그 만도 못 들어가게 놀러니까 아이제 과연 그 힘세덴 현결 이제 인정이 됩수된 허멍. 저 그 다음은 밀리기를 현거라이 서로 이제 그 힘을 저 밀리면서이 누르기가 가만 난 가만히 서고 상대방이 날 밀리면 더 얼마나 밀려가는가이 경헿강 옛날에 그 발을 개간헿으네 띠발 띠발이 이제 굉장히 높으게 셋주. 이제강 그 영감은 이제 저 당뚝당장이렌 일곱 판을 밀려가고 그 저 모실포 쪽에서 온 어른이 이제 세 판이 밖에 못 밀리고 경헿 그러케 저 힘이 썬 어른이 잇어신디. 그 어른이 그 힘이 세니깐 먹는게 굉장히 많이 먹어이. 많이 먹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저 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동네 썬, 소이 소를 빌렿으네 이제 워트레 산에 강으네 나무를 헿으네 실러당 지영으네 그 초가집 지영으네 이제 그 쪼끔 살아짐직한 사름헌티 팔은거라. 그 이제 팔은 거라 팔앙으네 이제 생활헿는디 생활헿는디 그 자꾸 그 추룩헿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썬 안 빌려준거라 다시는 경헿 집 헿거리 치레 나무를 다 저네 저네 그냥 그 옛날에 지금 시대 지금 저 그 질 날비도 나무가 걸릴칸디 질 좁을칸디 그 정 그대로 와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발 그 경 안허든 썬빌려 줄테니까 가서 헿당하렌. 그러케 힘이 썬 하르방이 이싿덴 들어낫주. 그 어른

이 그 어린이 지금 저 고인들도 있주. 그 어른이 올려논 고인들도 있주. 요
저 올라가몬 돌 그 올려놔네 돌을 그 돌과 돌 사이에 큰 돌을 올려논거라.

7) 콩데기 풋데기 1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순자(여, 1935년생, 돼지띠)

요약 : 새어명이 자기가 난 자식은 팔데기, 자기가 안 난 자식을 콩데기라 하여 콩데기에게 밀이 터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였다. 콩데기는 맛 없는 콩만 먹어서 살이 찌고, 팔데기는 단 팔만 먹어서 죽었다. 또한 콩데기에게 멍석에 곡식을 널어서 까 놓으라 하였는데 참새가 콩데기를 도와서 곡식을 까주었다고 한다.

그 다숨어명이 그 안 난 아이들이라 거기, 계난 풋데긴 어명이 나고 콩데
긴 어명이 안 나신디 저 그 항을 영 참 터차뒤그네 콩데기신디 물을 흐나 그
득 일레노나레 터진 항에 물을 그득엿저게. 경 경허고 저 콩데기 콩만 콩만
먹고 풋데긴 풋만 풋만 먹어나네 풋먹은 이녁네 딸은 죽고 콩은 먹어나네 막
솔지고 현디, 젠디 뵤고 산디가 뵤가 멍석에 널아네 이걸 다 손으로 다 까렌
까렌허나네 까지 못하나네 불쌍하나네 생이가 와네 막 까주나 주서 먹젠 헤
가나네 아이고 그거 어명헌티 욱들으메 주서 먹지 말렌 하나네 그 생이가 도
와줘네 문딱 주서 먹지 안행 까췌텐 행게.

8) 일곱 성제 죽인 다숨 어명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순자(여, 1935년생, 돼지띠)

요약 :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어명이 죽자, 새 어명이 들어왔다. 새 어명은 아프지 않아도 아프다고 하여서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야 먹어서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경허거게 겐디 아덜 일곱성제 나그네 어명은 죽어사비신디 허나네 저 아덜 일곱성제와는 어명은 죽어부난 새 어명을 헤오난 저 아프지 않해도 아편 죽어지켄허멍 서방 보라 그 아덜 일곱 성제 죽여그네에 뭐 간인가 뭐 빵양 쥐사 이녁이 멀영 살아나켄 하나네 저 아덜덜은 다 곱정은네 도새기 새끼(웃음) 도새기 새끼 빵젠합디다. 도새기 새끼 간 일곱 개 빵다네 쥐네 먹는거 보젠 영 곱아네 하르방이 보나네 몬딱 곱져 비연, 그런 말도 나도 들어서. 어명은 경헤네 그 몬 아덜덜을 몬 죽여불젠 헛거라. 그 다섬아덜덜을 이녁 난 아덜 아니난 할아방헌티 시켜그나네.

9) 콩데기 풋데기 2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콩데기는 전 어머니의 딸이고 예쁘게 생겼으나 계모의 딸인 팔데기는 예쁘지 않았다. 계모는 팔데기만 잘 해주었고, 콩데기는 항상 굶주리며 웃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았다.

콩데기 풋데기 이야기는 우리도 전설로 들은 얘기주. 우리가 본 것은 아니고 그 콩데기가 콩데기는 그 전 어머니의 딸이고 팔데기는 계모의 딸인데 콩데기는 이쁘고 팔데기는 좀 얼굴이 곱질 안혀도 어머니가 없던. 계모가 외랑 살게 댜난 계모가 딸을 막 잘 헤준거라. 콩데기는 계속 땡기멍 구걸헤다시피

자기 몫 정말로 얻어먹질 못했. 저 굶주리멍 살고 풋데기는 옷도 잘 해입지고 집에 엄마가 이시난 겨난 춤 옷도 잘 입지고 그렇게 행 잘 살앗덴 허주게.

10) 힘 센 당풋당장 2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당풋당장이라는 힘이 센 하르방이 있었다. 하르방은 산에 가면 초가집 하나를 지을 만큼의 나무를 베어 왔다. 힘이 매우 세서 밥도 많이 먹었다 하여 '당풋당장 같이 살아보라'라는 말이 있다.

옛날에 저디 북토산에 당풋당장이렌 현 하르방이 이서서. 성은 광산 김씨고 우리광 곶은 우리집이 아방과 곶은 김씨디, 그 하르방이 저디 가그네 저 옛날에는 산에 가그네 나무를 베어그네 그 혼 짐을 지게에 놔그네 지영 오라 낫주게. 게민 그 하르방이 석 짐을 져오민 집을 초가집 하나를 지어놔젠 허주. 그 하르방이 경 센 하르방이 힘어나서. 먹기도 하루 쌀 반켠 허민 요새 그 돼로 두 돼 혼 때에 두 돼치 밥을 먹곡 경 힘도 세고 일도 잘 허고 겨난 혼꿈 허민 이젠 아이들고라 요즘은 그런 말이 어서져 중간에 깰정은 너네 당풋당장 곶이 좀 살아보라 그렇게 허멍 살아나서 그렇게 힘이 센 하르방이 이서서.

<조사자 : 아이고 막 재미진 얘기 헤 줘신게 할머니>

그 하르방이 그렇게 힘이 세던 하르방이 돌아가셔도 그 자손덜토 막 건강 허게시리 경 힘 션어요.

11) 토산땅 뱀 귀신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토산은 예로부터 뱀땅이라 하여 뱀을 보면 비는 사람도 있고 모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토산 사람에게는 뱀귀신이 붙는다고 하여 집을 빌려주지 않았다. 한 예쁜 처녀가 바닷가에서 시종들과 노닐고 있었는데 왜선이 나타나 강탈하여 처녀가 죽어 토산 뱀으로 환생하였다고 한다.

옛날에 이토산이 배염땅이엔 허주게. 게난 토산땅 토산땅 허주게. 게난 이 여기서 배염을 보민 막 토산 굴이 비는 사름이 있어. 경허고 또 토산 굴이 또 배염을 또 집애나 어딜 다 땡기민 그걸 막 모셔그네 뭇 당헤당 모시꼭 그렇게 허는 법이 이서나서게. 건디 지금도 그런거 믿는 사람이 흑시나 이신지 몰라도 그 중간에 ㄱ정은 그렇게 행 영 토산은 게난 우리 토산 사름은 어디 저 시애나 어디나 가그네 방을 옛날엔 집을 빌 수가 업고 방을 빌영 살앗주게 학생들이라도 근데 어디 동네가 어디나 지경이 고향이 어디나 허민 토산 이영 허민 방을 빌려주질 안허여 그 뱀 귀신 붙인다고 그렇게 헤났어.

<조사자 : 아이고, 게난 그 배염귀신은 어땡 사름을 막 괴롭히기도 헌텐 마심?>

배염귀신?

<조사자 : 예, 괴롭히기도 헌텐 마심?>

배염귀신은 잘 위허민은 잘 돼꼭. 조금만 이제 걸 거슬려노민 그걸 서불라 노민 막 집안에 막 가네 저 불편을 놓주게. 아픔도 허꼭 뭇 췌물도 손헤시키 꼭 어디 땡기당도 막 낙성도 시키꼭 그렇게 허난 그걸 토산굴이 모셔사 잘 뒤어나서 경헤났젠 헌다게. 잘 모셔나서. 그 배염당이 뭇 영 신고 허난 처음 이 우리 이 신방들 말 허는거 보민 옛날에 그자 애기씨가 애기씨영 허민 아

주 예쁜 처녀가 애기씨라고 하지. 애기씨가 어디 바닷가에 저 굴이 잇는 그 저 시종들 데리고 이젠 바닷가에 놀러가시난 예엔 헌 배가 예배는 일본 그 왜배주게 왜놈들 배가 예배라지. 여배가 들어오란 그 처녀이젠 막 다울림이 켜신켄 허난 그냥 막 그 돌아가는디 어디 새뱃더래 들어가난 이젠 그럴 강 심영 강탈을 허여부난 그게 이젠 그 사름이 그 처녀가 죽으난 배염 몸으로 환성을 뿔다허여. 그렇게 해서 그 처녀 몸이 배염 몸이 뿔댄 헌다게. 경해서 그레 그 처녀를 모시는게 배염을 모신다 허여

<조사자 : 아이고 그런 얘기도 이수다예>

그런 얘기가 이서. 그추록 허영 그 처녀가 배염 몸으로 환성을 시켜노난 은 세상에 그 토산 땅은 그 배염 땅이엔 헤그네 그 처녀를 저 주인으로 생각 헤여보그네 그 배염이가 토산 처녀라고 헤여.

12) 김녕굴 전설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3세대)

요약 : 김녕땅에 뱀이 있어 해마다 처녀를 바쳤는데 목사가 와서 뱀을 죽여 처녀를 살렸다. 김녕에서 궤에 처녀와 곡식, 씨앗 등을 싣고 바다에 띄우니, 온 평에 와서 처녀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아 옛날에 이디 어디나 저디 김녕땅이엔헌디 서화 저디 제주시에 김녕리 엔 헌디 그디 그 김녕땅이 이신디 헤마다 처녀 하나씩을 이제 그디 저승으로 바쳐 낫댄 허주게. 경허는디 그 목사가 오라네 그 배염을 죽여뒀네 이제 옴 그 처녀를 살려주고 또 흥번은 어딜로 어떻헤네 저 궤 하나를 저런 저 옛날 엔 저런 농 닭은 궤가 이서나서 그 궤에 처녀 하나를 들여놓고 곡식을 이제 몬 골고리 곡식 쏘 씨여 줍씨여 보리씨여 콩씨여 몬 씨여 몬 씨여 씨앗을 몬

그레 담아놓고 옷을 담아놓고 허영 그 퀘차 이제 바닷물에 띄와네 너 갈데로 아무데라도 강 목숨이 건져지건 살아나곡 경아니건 너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서 가렌 바닷물에 띄와부난 그게 어디 저 김녕으로 띄와분게 기냥 절로 성산포로 돌아오당 이래서 이제 온평이엔 허민 일로 저 동더레 가로넨 헤민 표선이렌 넘어가곡 신차민 넘어사른 또 저래가민 하차민 넘어 저 신사인 넘어 사민 온평이엔 혼 마을이 잇주게 온평이 저 대맛티 가네 그것이 바닷물에 털어점시난 건져당 그걸 보나네 그것에 몬 씨앗도 잇고 그 사름도 살아낭. 경행 당이 뉘고 그렇게 해났저만은

<조사자 : 아, 당이>

응. 그런 전설도 있어.

13) 설문대 할망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설문대 할망이 자신의 속옷을 해주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대 할망이 너무 커서 속옷 하나를 만들지 못하였고 결국 다리를 놓지 못하였다.

속옷을 그 천을 몇 필을 헤여그네 그 속옷을 해주민 이디왕 저 이 육깃 사 이에 다리를 놔 주켄 겐디 한락산 꼭대기 광 그 새에 혼 발짜국이민 영 가달을 티왕 가났젠 허주게. 경헌디 그 천이 모지렌 옷을 내일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난 그 할망이 그 일로 저래 다리를 못 놔줬젠 경헌 말이 이서. 설문대 할망이.

<조사자 : 아 그 할망이 그 할망이구나>

그 할망이 그 할망이주~

<조사자 : 게민 그 속옷은 얼마나 들었길래 경헛우가?>

얼마나 게난 그 속옷이 너미 할망이 커노난 천이 몰라 당헛수가 어서서 너미 커노난 옷을 영 뎃 필을 들여도 그 속옷 하나 만들수가 업엇어. 경허난 당허지 못허난 속옷을 만들 수가 어시난 그 할망이 속옷을 허여주민 이디서 육짖 사이에 다리를 놔주켄 해도 그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나네 그 다리를 안 놔줬젠 못 놔줬젠허주게

14) 아덜 일곱 성제 간 뻘 죽인 계모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계모가 전 부인의 자식을 죽이려 남편에게 아프다고 속였다. 남편인 남선비가 점을 치러 가자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남선비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들의 간을 계모에게 내어주었다. 계모는 그 간을 먹지 않고 숨겨 두어 아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남선비라 낫주게. 경헌디 그 계모가 아기덜은 춤 아기 일곱 성제 하도 아팡 죽어가는 첼 허난 이제 그 무슨 어디 강 들으난 그 어떠냐 점을 허난 아덜 일곱성제 엘 애엔 허민 이 간이 주게 간을 내어 먹으면 병이 나스켄 허난 그 아덜 일곱 성제 집엘 그 간을 내어당 먹으렌 허난 먹질 앓허연 자리 아래 그 냥 물어네 곱져불명 아이 먹언 경행 살명 그 아덜 일곱 성제 죽여부러트젠 경헌 전설이 이서서.

<조사자 : 아이고, 거 나쁜 어멍인게>

나쁜 어멍이 죽엇주. 남선비엔 호썰허민 남선비 닳은 사름이엔.

<조사자 : 게민 아들 간 다 내먹은 거라?>

그렇게 아덜 일곱 성제 애를 다 내먹엇젠 헛다게.

<조사자 : 남선비는 계문 아방이 그 애를 다 낸거라?>

경했주. 아방이 남선빈 그 계모고 큰 어명에 애기가 일곱 개 시난 그 일곱 쯤 미워헤연 그거 죽이진 못허난 아팡 막 매날 골골 누워듬서 이젠 어디강 문병을 허난 저 아기 일곱 성제 애를 내어서 먹으면 병이 나스켄 허난 그 아기덜 일곱 개 다 죽여네 간을 내당 애를 내당 맥이난 먹으렌. 아이덜 그릇에 주난 주어그네 영 베겏디서 이제 굶안 걸영보난 먹진 아녕 자리에 묻와서 소 급에 묻언 데찌비여뒤네. 이젠 그 전 나오란 뒷날은 아이고 이젠 병 나산 좋 앓젠 경헌디 내중엔 확히게 자릴 간 견영 그거 시난 그거 이거 먹은게냐. 이 거 먹지 아년 너년이 이젠 아기 일곱꺄 다 죽여먹은 년이엔 행 경행 헤낫젠 헌다게. 경헌 전설이 이서낫져.

<조사자 : 계민 그 다숨어명이>

다숨어명이 계모가.

15) 마음씨 나쁜 계모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계모가 쥐의 가족을 벗겨서 이불 아래에 묻어두었다가 자신의 딸이 아닌 전 부인의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딸을 못살 게 하였다.

난 즈세히 모르켜마는 그 계모가 짓도 계모 주게. 거 춤 콩쥐 풀쥐 닭은 사람인디 그 쥐를 이제 쥐새끼 할 해당 쥘 벗겨그네 그 자리 아래다 묻영 딸 그 이녁 난 딸이 아닌 다른 딸인디 자리 아래다 묻어뒤네 아방신디 저년은 아기 베어지난 애기 베영 그 자리 아래 묻엇젠 허난 어디 그런 일이 시젠 허난 강 보면 알꺼엔, 행 간 자리 견어 보난 쥐새끼가 시난 이거 새끼 베네 이디 지와

네 이디다 물어논거 아니넨 경혜네 그 계모가 옛날엔 그렇게 꾀일을 호연 모양이라. 경행 딸을 못살게 굴었젠 험다게.

<조사자 : 계모가 막 잘살아 마썸?>

계모가 큰 어머에 딸은 애기 베여지나네 애기 나네 자리 아래 묻었젠 허멍 허나네 지 아방은 어디 그럴 수가 이시켄 가보켄 허멍 간보난 쥐새끼 그딜 강 묻엉 와뒤네 이거 새끼 경 헛젠 경혜넛저마는 그런 일도 이서.

16) 문도령과 자청비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김병숙(여, 1926년생, 범띠)

요약 : 자청비가 문도령을 숙여 남자인 척을 하여 같이 삼 년 동안 공부를 하였다. 어느 날 같이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인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인 것을 모르고 옷을 훌훌 벗고 목욕을 하는 문도령을 야속하게 여겨 먼저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난다. 문도령이 자청비의 편지를 읽고 자청비가 여자였음을 깨닫고 자청비를 찾아 수소문하였으나 둘을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

그 딸은 공부가 궁허텐 해도 계집년이 공부행 뵈 헛데 인, 옛날 할망들은 허나네 이제 베끼 물질레 그 옹그레 물질렌 강 보난 그 남자아이 문수문장 문도령이렌 험 남조아이가 공부, 이제고트면 서울가는 거주게 공부 가켄허 난 아이고 나 저 우리 지 가켄은 안 허고 저 우리 여즈난 아이 데령가카부텐 아이고 우리 저 동생이 호나 시난 곶이 도라 거주렌 물짜기나 실영강 보내켄 이디 지두려 주렌허난 그 고집험 사람은 지들렛주게. 지들린텐 허나네 그 안에 그 지가 남조 입식 딱 입고 남조로 츠런 그 그 물질레 와난 아이가. 저 지네 오빠 추록 행 갖주게, 가네, 곶이 가난. 곶이 가네 일 년을 한 숨 년을 공부허는다. 경해도 그 남자아이인 우정들어네 여잔 즐 몰랏주. 7치 호 방에 살

멍 공부해도 몰르나네 막 가이가 이제 저 그 옛날엔 대얼통에 영 골랑으녕에 오즘을 막 남잔게 대갈통에 게 호호호호 고치나네 막 멀리 대얼통 걸러가민 막 니네 웃을겨여 옛날 말 고라가민 나 우리 할망들헌티 들어나신디. 저 집 몇 거릴 그 녀길 걸로 막 공불 잘행 오게 되난. 그걸 내기허게 헤난. 이제 막 집을 몇 거리허나네 이제 가인 여자아이네 남자아이보담 오즘이 한 생이라 막 우하하헤헤 몇 거릴 더 하하 그 남자 총각보다 몇 거릴 더 녀겐. 몇 거릴 더 녀겐 헤나네. 막 이젠 그거해도 지연이 안 뉘난 이젠 흘 수 어시 이젠 고향에 오게 뉘난, 오다네 또 이제 목욕하제 내에 저 큰 못이시나네 돌이가 목욕하레 가지 안해샤. 목욕하레 가난. 그 ㄱ치 그추록 안 헐카부덴 여자아인 헤도 그 남자총각을 마음에 시난 여자아인 경허는 거주게, 게난에 ㄱ치간 목욕헤도 그걸 모르는 거라. 남자아인 당췌 여자 카부덴 모르는 거라. 그저 웃 벗영 가이 앞에서 몽틀랑 몽틀랑 하하 황글랑 황글랑 모세게 들어도 그 여자아인 손 발만 영 영 영 셋으멍 웃을 돈 벗질 안헤넨 허멍 이젠 경허멍 이제 헤나네 막 다 왕글랑 왕글랑 남자총각은 굽는다 손발만 벨착 벨착 허다네 남세펜 싹싹싹 남세펜에 나무 편지를 썬. 이 어리고 미흡헌 멩청한 그 문도령야. 문도령이 이름이난.

<조사자 : 문도령이 이름마심?>

응. 이름이난. 여존줄 남존줄 혼 삼년을 공부헤도 혼디 공부헤도 몰르는 이 어리고 미흡헌 문도령야. 헿 썬뉘네 특하게 그 목욕하는 독드레 드리쳐뉘네, 난 가노렌. 앞에 가노렌. 확 ㄱ라부럿주게 지는 손발만 셋영 혼디 웃 벗영 여자라부난 목욕헤지냐게. 게난 확 굴앙 보나네 아이 동글 동글 터운 걸 글 쓴 걸 보난 경헤시난. 아이고 ㄱ치가게 야야 ㄱ치가게 불르멍 웃을 재게 입 쟈허나네 하히 혼 가들레드레 두 개 들리우령 화들락 화들락 굽허난 입질 못 허연. 막 경헤도 미치지 못헿 지만 가분거 아니. 지만 가부나네 이제. 고향에 가네 이젠 살멍헤나네. 이젠 막 서로 경헤도 좇아보젠 공부헤나네 어떻헿 좇지코 막 좇젠 막 서뉘 노력헿 뎡겨네 이젠허네 그 문수문장 문도령이 그 무 시저허는다 그 여자아이가 왔는덴허나네. 여자 아인 자칭뉘인가 일흡이. 게

나네 이젠 그대를 알나네 막 좃겐 헤가나네. 저 무시거렌 좃겐 막 헤나네 좃
 앙 훈디 무시거헨 부부해가넨 살아보젠 좃겐 막 헤난 이제 좃겐헤도 먼디로
 만 소문만 들영 막 경행 말자 헤넨. 말자헤넨. 그 문수문장 문도령이렌 현 총
 각은 막 또 무시거렌 살고 여자아인 또 무시걸로 자칭비로 행 살고 허나네
 이젠 나중에 알앙보난 그추룩행 살안. 이녁이 숨 년을 강 공부 훈 방에 살명
 헤도 여잔줄 남잔줄 몰랑 살아노난. 올 땐 경허난 막 화나네 그추룩 헤나네.

17) 운수 곳은 아들 삼 형제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김병숙(여, 1926년생, 범띠)

요약 : 부잣집 삼 형제가 점을 보았더니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하여 고생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삼 형제를 공단장수, 비단장수, 양단장수를 시켜 내보내었다. 삼 형제가 하룻밤 목은 곳에 마음씨 나쁜 여자 주인이 삼 형제의 물건이 탐나서 그들을 연못에 빠뜨려 죽였다. 다음날 울레에 꽃이 피어 지나다니기를 귀찮게 하자 그 꽃을 화로에 던지니 꽃이 타며 구슬 세 개로 변했다. 아름다운 구슬이 탐난 여자는 구슬을 삼켰고 임신을 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삼 형제는 훌륭하게 자라 모두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유 없이 죽었다. 아들 삼 형제가 모두 죽자 여자는 억울함을 마을의 책임자인 김치원에게 하소연하였고 김치원은 여자를 건디다 못하여 염라대왕에게 만날 것을 요청한다. 염라대왕이 오자 어두운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김치원은 무서워 기둥 뒤에 숨었다. 염라대왕은 모든 것을 알고 기둥을 칼로 썰어 보라고 하자 기둥에서 피가 나와 김치원은 놀라서 나왔다. 김치원이 사정을 이야기 하자 염라대왕은 그 여자가 삼 형제를 죽였다고 모두 이야기하여 여자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 끌어 보주. 이제 아덜 삼 형제 나네. 이제 우리 모슬 땅에 땡기든, 막
 운수가 굿덴. 그 부제칩이 막 돈 한 디 부제칩이 아덜 세 성제가 난디. 막 운
 수가 굿덴. 야네들을 어디내보네영 고생을 시키나 무시거 안 허민 무시거 허
 덴 허난. 이제 아방네가 이제 허난 공단장수, 허난 비단 장수 허난 그 무신
 장수 세 개를 내놔주. 그 풀레 땡기명 어디 고을마다 땡기명 므을마다 땡기
 명 고생허명 게 고생을 시키젠. 보내난 에 서이가 본래 2치 그저 춤 이제
 므을에 강 “공단삽서, 비단삽서, 양단삽서” 경허명 세 성제가 2치만 땡견 2
 치만 땡견 헤도 이제 풀진 못허고 이제 주막엔가 어디 식당엔가 강 먹젠 어
 디 밤 머정으네 떼 먹고허젠 배고프고허난 먹여주렌 허나네 방 내주난. 머즈
 렌 허난 에 공단 짐이여 비단짐이여 뭐 양단짐이여 몬 들이난 그 저 여조가
 들이난 밥헤주고 막 헤네. 건 애기 어신 사름인디 밥헤주고 허난. 지 잠자노
 렌 허나네게 오꽃 허사람사 빌언 죽여신디. 그 비단 양단 몬 츠지허젠. 솔작
 이 죽연 그 올레 바깥에 큰 못 잇제? 못들에 갓당 들이쳐부난 죽연. 그 총각
 들을 들이쳐부나네 이제 들이쳐부난 이제 그 그 여조가 물 물 맥이레 그 어
 디강 저 그 뒤시 강 물물 먹젠 영 허민 물 주땡일 북! 허게 그 무신 꽃으로
 꽃으로 나와 박! 굵어 불고 일로강 이거 뭇 놈의 꽃이넨 허명 이 편으로 강
 물 물 주땡이 행 먹이젠 허민 또 박하게 굵어불고 허난 이제. 그 저 그 여조
 가 그 꽃을 확 꺾영. “꽤심한 꽃!” 물을 경 굵어분덴 지네 들어오는 올레 영
 바꺼레 영 측까지 그거이 그 여자가 집더레 들어 올때 딱! 흐흐헤헤 나갈 때
 딱! 허허 그 혼으로 게 죽인 혼으로, 순서로 막 꽃으로 나완허난. 게난 이제
 그 꽃 그 꽃을 옛! 이 놈의 꽃 또 앗당에 그 이제 옛날엔 게 부섭에 불살라
 나서 화리 2치 마리에 부섭, 화리 그 불더레 앗당 딱 질러부러져. 꽤심허덴.
 아니 지들러 보난 그 놈이 소룩허게 그 꽃이 사라지나네. 서뭇 그 이제 거시
 기 다마, 사탕 고치 세 가지 동글동글 동글에 동글이 고치 나와네. 그것가 나
 완 불담젠 불더레 불보젠 영 보나네 하도 고으난. 그 여조가 얼먹젠 헌거라.
 놈의 애길 죽영 영 허는디 게 원수를 안헤나 하도 아까웁 영 주서네 내부지
 못허네. 아이고 손에 놔도 하도 아까웁 고으난 이략에 난 저략에 놔도 하도

고우난 아이 입에라도 봐보젠 사탕 7치 동글이 7치 흑노난 이제 입더레 흑노난 소룩하게 녹아 비연. 녹아불지 안헤나. 아까왕 그 여자가 입더레 무난. 소룩하게 녹아부난 이제 애기가 뉘거라. 애기가 뉘여네 이제 서너달 되가난 막 배가 형만헌 헤고 이제 애길 나나네 아덜 세 성제를 난 거 아니나. 그 사람들 살아 온거지 혼으로 총각 세 개를 죽여네 게 목영 공단짐을 지 들어 놓고 허난. 이제 세 성제를 나나네 이제 학교 붙으나네 막 공부 잘허연. 큰 아덜이나 셋 아덜이나 막 공부해노라네. 그 사람은 막 원수 갚음이주게.

<다른 할머니 : 세 시간에 할망이 혼자 고람수가?>

혼자 고람쥌. 우리 큰 아덜은 큰 아덜은 영 허게 말 이레 올라서나네 “어머니 나 응과 급제 해수다”. 아이고 게난 어멍이 기쁠 거 아니며 응과 급제 해수다 헤뉘 그저 텅글랑이 죽어불고, 또 버금 아덜은 “나 응과 급제 해수다.” 헤뉘 텅글랑이 죽어 비연. 또시 세척 아덜도 갱헤네 저 “나 응과 급제 해수다” 텅글랑이. 아덜 세 개 죽어부나네 막 막 화가 나네 이제. 이제 7트면 우리 동네 이장, 이장이 책임 아니냐게. 이 동네. 그뎌 김치원이 그 동네 책임이 나네 그

<조사자 : 누게 마썰?>

김치원이렌 헤라 그때 옛날 말애. 김치원이 그디가네 막 원정을 들영 막 탕 탕 문질 허멍. 허나만 잡아가주 아덜 세 성제 혼날 혼시에 잡아가는 세상이 무신 세상이. 막 췌사지도록 막 탕 탕 문질 치멍 허나네 그 김치원은 건디 단 버치난 염라대왕이렌 헌건 막 큰 높은 이제 7트면 대통령 이주게. 막 나라 염라대왕 염라대왕신드레 이제 연락을 아맹헤도 험따고 허난. 그 이레 전함을 그 여조 아덜이 아니다. 원수로 난 아덜이다 헤연. 경헤도 매날 하루 삼시에 밥도 못 먹게 봐두난 못 살켄 또 허나네 이젠. 그 염라대왕이 아무사신디 덩기질 안 허주게 막 높은 어른이난. 이제 염라대왕이 저승 차시에서 막 높은 어른이난. 아무날 사오시에 나가 가크난 그때 꼭 기다리렌 허나넨. 이제 그저 하루 이시난 오켄헌 날에 그저 하늘이 거먹색 구름허멍 그저 어찌나 천둥허던지 그저 어둑 어둑 허다네 그저 파지직 딱허난 그저 버쩍 오라네 사네

염라대왕이 버쩍 오나네. 곱아네 김, 김치원은 겁나네 불러봐똥도 확 곱으멍
헌게 지등 대부러서. 지등 뒤이서 겁나난 지등 대부나네서 곱안. 겁나난. 지
등 대부나네 이제

<조사자 : 지등 대서 마씀?>

지등대부난 영 지등 뒤에 곱으난 확 지등을 대부난. 이젠 그 염라 대왕은
어디가시넨 허난 몰르켄 허나네. 이제 툽을 가져당 저 지등을 써라고 그 염
라대왕은 알주게. 지등을 싹싹 싹가난 피가 빨끔 난 거라. 피가 빨끔 나난 그
땀 잘못했습니덴 허멍 옆드렁으네 아맹헌 여조가 날 못 살게 구난 경했수덴
허멍 옆드리나네. 그 여자 강 심어오렌. 그 여자 강 불령 심어오난 강. 막 옥
에 가두고, 너가 아무 댕에 아무 고을 이제 운수가 굿덴헌 애들 세 성제
공단, 비단, 양단 장수 너 죽여네 금을 차지하고 앉아 잇덴. 어 원수로 나왔지
너네 아덜이 아니렌 허멍 막 그 사름이 곧고, 막 그 여조 막 몰 멧 바레 방
치레 죽이렌. 저 년. 그 년 그 여조를 죽이렌 허난 겁나네 그때 사뭇 허허 칫
간에 그 디딜 방아레 강 아래 떨어정 즈살을 했다고 헤라. 그 여자가.

18) 죽음이 시작된 유래

조사일시 : 2005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신흥1리 마을회관

제보자 : 김병숙(여, 1926년생, 범띠)

요약 : 옛날에는 죽어도 살아서 저승에 걸어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한
살 난 애기와 열다섯 난 신랑을 두고 온 한 여인이 매일 근심하자 저승왕이 이
승에 가서 그들을 챙기라고 하였다. 죽은 어명이 와서 아이를 챙기고 물도 기
른다는 것을 안 방상 할망이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도 신발을 숨
기고 여인을 향아리에 숨기자 화가 난 저승왕이 여인의 몸은 향아리에 두고 영
혼만을 저승으로 빼갔다고 한다. 그 때부터 몸은 죽고 영혼만 저승으로 가는
죽음이 시작되었다.

애기, 애기도 나곡헌 혼 살 난 애기에 막 어린 때 죽, 죽으나네. 옛날엔 저 죽은 사름을 이제 2치 죽음 안행 그저 저승오라 허민 절영가낫덴 헤라게. 산냥, 산냥. 게난 산냥행 저승을 가난 막 근심을 허영. 허난 무사 경 근심을 허고 뉘헝딘 허난, 이제 집이 혼 살 난 애기에 저 열다섯 난 신랑에 이제 내 비뉘 오난. 근심을 안 허영 때를 못헤 먹엄실건디 어뎡헝니견허난. 이제 저승에서 저승왕이 가그네 게른 낮이랑, 저 낮이 아닌 밤이랑 솔짜이 강 동네 사름 모르게 가그네 물도 절영 뇌취두고 애기 젓맥여취두고 행 오렌. 허난 며칠째 막 멩기고 헤가나네. 그 애기 2라 저 누게 오랑 헤취니 저 머리도 빗져 주고 허난, “엄마가 완.” 허난. 도시리 고모 주게 헤난. 동네, 저 동네 할망이 아닌 이녁 방상 할망이 저 따시랑 어뎡오른 이제 날더러 고르라이 고르라

<조사자 : 뭐라고요?>

고르렌, 나더레 고르렌. 아이 혼 며칠 지낭 경허뎡 오랑 살림 살아주느디 고만히 살아시른 저 무시거 헝건디 아이 간 고르나네 이젠, 오랑보난 경 아이 머리 빗져주고, 뉘 굶젠헝시나네. 큰 항, 항아리 속드레, 그 저승서 시간에 안 가른 돌레 오주게. 심으레 저승차사가. 사름으로 돌아가곡 돌아오곡 헝주게 이제 2치돌레 죽질 안허고 게난. 돌레 올거나네 아이고 저, 아이고 나 시간 비뉘 혼저 가쿠다 가쿠다, 나 신 어디간넨 어디가넨 헤가난에, 신 혼꿈 곱져두고 이 항드레 제게 곱으라 이 독드레 곱으라 헤뉘. 톡 두깡 더꺼버렸주게. 항더레 기어들어강. 게른 경허른 살아지카부덴. 경허난 그저 시간뉘 안가난 그디서 저승왕에서 돌리러 안가난 허나네. 독에 곱아 이시난 어서. 혼으로 안죽, 혼으로 뎡가부켄. 혼을 혼 시작허난 죽어분거라. 겐 시간 넘어 뒷날 아침에 항드레 두깡 열어노난 이시나네 이야이야 나오란 헤도 편드렁 죽어분거 아니 게난 죽음이 시작뉘덴 헤라 옛날에 경 안헤시민 살앙으네 갖다왔다 헝건디. 게난 경헌게 좋을 건디 우린 허나네 할망들은 경 2라라.

2. 신흥2리

1) 지네를 죽이고 부자가 된 거지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거지가 홀어명과 딸 하나가 사는 과부집에 갔는데 밤중에 딸 방에 젊은 남자가 들어갔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고 야단이였다. 다음날 어머님이 그 일을 모른 척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젊은 남자의 뒤를 따라가 보니 그 남자가 천 년 묵은 지네임을 알게 되었다. 거지는 지네를 죽이자 홀어머님이 자기 딸과 살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자 거지는 딸이 지네의 새끼를 뱌다며 숲을 태우라고 하였다. 그러자 딸의 몸에서 지네 아흔 아홉 마리가 나왔고 거지는 재산의 반과 딸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날은 저물고 어디 가볼텐 없고 훈 집이 간 보니. 홀어명침이 똥 하나 데령 홀어명침이라 과부집이라. 겐디 방이 들인디 들어가난 도화방엔 똥이 눕고 안엿 방엔 어머님이 눕고 헐디. 아 밤 중에는 에터네미 귀에 흘쭉헌 놈이 그 똥 누운 방에 강. 그 또 거 또 잇어비엇네. 거 뭐시엔 고르멍. 이 문 열라허니 문 들꺼 연다 말이어.

<조사자 : 이녀데로 열어져?>

응. 열어져 열어져 들꺼 연다는거라. 어땡헿 열어그네. 얼마 어서그네 똥이 비명소리가 야단이라. 못 견뎌 웬 젊은 놈이 들어갔는다. 비명소리가 야단이라. 게난 어머님은 그걸 알면서도 물리레 갈 수가 업써. 그 흐루짜만은 아니주게. 겐디 가이는 그 거지는 영 문 바께띠 영 훈쭈서 지 이런 디서 가깝다 말이어. 걸 문 들어서 경헿 나갈 땐 또 나가멍 이 문 더꺼라 히뜨하게. 또 더꺼 진다 말이어. 그 뭐엔 내가 훈 말이 그런 말인데 그 뭐시엔 고르멍. 이 문 열

려라 허니. 들걱하게 열어줘 하. 뒤었다. 이젠 좀그라 헨. 들걱하게 좀가 하. 이젠 대낮이완. 불그니까니 그 과부보고 간밤에 똥 방에 이상헌 일 잇어난줄 아느냐고 하니까, 그 시어명은 알면서도 모른추룩

<조사자 : 거지가 경 물어봐>

응. 물으니까

<조사자 : 그 바보가?>

그 과부가 알아도 모른척 하는 거주게. 잘 아이 안다고 그런걸 알곡 당신 똥 눈 방에 어떤 흥측헌 짧은 놈이 그 열 비명 비명소리 여간 아니더라고 그리고 얼마 어시면 나가불더라고 이 나가난걸 이젠 그 년이 거의가 뒷춤가 거든 어딜 가는고하니 영 보니 올레 밧테 큰 돌 아래레 들어가는거라. 큰 돌 아래. 아 게난 그 문 열명 위에 그 문 열천동 그 무시거엔. 그거 곤건디 잇어 비연 그거라.

<조사자 : 주문을 외웠구나?>

응. 그거라 경헤네 그것이 어떤 놈이나 허니 에그 싸우네. 우에 올렛 밧테 큰 돌 아래 지네라고

<조사자 : 지녕이>

천 년 묵은 지녕이 천 년 묵은 치녕이라고 아 그레엇군. 그래서 지네보고 “그 병을 구원헐테니 나 말을 듣겠느냐?” 아. 구완만 해주면 듣겠다고 숯 네 마더리만 호곡 장작 두어 마차. 응. 장작 화목 두어 마차 호곡 준비할 수 잇겠느냐 허니. 아 준비할 수 잇다고 장작 두어 마차엔 그 넓적한 돌 우터레 영 밀려 노아네 불솔르곡 스방으로 숯 여섯포 허여네. 그 우에 불솔르곡 호영. 이젠 그 돌 우이 장작날 불살랑 때려가면 지네가 나올꺼 아니라 말이여. 이젠 가이넨 장짓터나 가리고 그네로 영 망 보다가 지네가 영 나오니까네. 그 지네 그 수젯불꽃더레 탁 지저부러턴 말이여. 경헿 이젠 그 지네가 죽은 거라 죽어부런. 이젠 집에가서 여간 그 구신은 지네 구신이니까니 저녁에 뵈와보면 알꺼라고 그 전에 빌어봐도 소용이업고 또 빌어봐도 소용업고 이젠 호 며칠 기다리명이 호끔 퍼뜩이는 사람이 엇어. 이제는 그 누구로 뵈을 허

느냐 내가 우리 딸을 말안 살며는 재산 반 갈라 주겠다고 아 지네각시를 내가 어떻게 말으냐고 하하하하 지네각시를 어떻게 말을 말어나고 저거 저거 배분 것이 지네 뱃다고

<조사자 : 아~ 지네 새끼 배영>

어 지네 새끼 뱃다고 갱 지네 새끼 뱀 건디 나말데로 듣겟냐고 행 듣겟냐고 경혜그네 숯 훈 마다리아경 불살르라고 불 살르곡 그 딸 보고 넣으라고 옷 뱃견 배 꼭더리 멜룩허니 지네 근데 지네 새끼는 아흔아홉 개라고 호는 것이여 저기가 멜룩허민 나오곡 멜룩허민 나오곡 거 갱 나는냥 그 숯들에 저 버비었다고 허여. 갱 죽어부니 이젠 병은 조아부니 이젠 그 재산 반 말으곡 허영 그 거지가 이제 성공했다. 하하하

<조사자 : 하하 거문 그 거지가 재산 반 말으곡 그 지네각시렌 훈 것도 돌 양 산거네?>

응 막 지네 뱀 것 몬 때부난 이젠 사람뉘난

2) 산신령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남자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한 남자가 어느 날 산신령을 만나 굿을 해도 낫지 않는 동네 부잣집 처녀가 아픈 이유는 지붕에 있는 천 년 묵은 지네 때문이며 그 지네를 죽이면 그 처녀가 낫는다는 것을 듣는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의 말을 믿지 않지만 남자의 말을 실험삼아 듣고 남자는 지네를 죽이고 병을 낫게 한다. 또 한번은 산신령이 물이 귀한 고을에 물이 나는 곳을 파지 않고 있다며 물이 나는 자리를 알려 준다. 남자가 그 마을에 가자 역시 물이 나지 않는 자리를 파고 있었고 남자가 물이 나는 자리를 안다고 하자 고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남자가 말한 자리에서 물이 팔팔 나오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게 된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지네를 죽여 살아난 여자를 얻어 성공한다.

응 또 것도 지네 때문에 거 헌 잡놈인지 허크리허레 뛰어댕기당 보나네 어떤 산신령이주 동네 아무 동네 처녀가 아파네 신방 빌어당 무당 빌어당 곳을 호는디 그 산신령이 아무 집이 딸 아팠 곳헬지만은 아이 낫는다고 거 곳홀 병이 아이라고 게문 어떤 병이파? 허니 그 그 지붕 지붕 산말에 큰 천 년 묵은 지네가 있다고 지네가 있는디 그 지엿 지엿장 두 장만 떼어서 그 지네를 죽여블며는 그 사름이 낫는다고 하 그래여 하 경헤다보니 아인 것 같더라고 곳헬서. 곳허는디 이젠 곳을 호명 집이선 부모네는 초상을 호는거라 죽을디도 아인디 곳헤도 아이 낫는다고 초상을 허는딜 강 그 딸 병을 구원해주겠다고 허니까네 저 미친놈 저 허튼 놈이 헛소릴 헛소릴 호냐고 경허니 동넛 할망 훈 할망이 아파 그 헛말인가 기젯말인가. 훈 번 실험적으로 들어보라고 허니. 에이구 들어보자고 경행 어떻게 나슬꺼냐 호니 숯 훈 가마만 장만헬 불살를걸로 호곡 송곳 비찍허게 다섯 개만 헤서 사름 다섯만 빌어서 상머리에 올라강 지에 두 장만 떼서 그 송곳으로 그 상머리를 쑤시며는 큼직한 지네가 털어지면은 그 숯불러레 털어지게시리 아 경행 우리가 툭 터진게 불러레 털어정 아 죽엇단 말이야. 응 아 죽어부니 이젠 그 누구로 그 집에도 아 그 딸이 이젠 막 그 아버지가 어떻 허니까네 아이 나 그저 무신 병 구원헬질 꺼주 다 경 여자 영 호리로 아이 호다고 경행 이젠 경헤영 나오는 브름에 이젠 또 산신령 하르방이 뉘엿 아무 고을엔 물이 귀해서 우물을 파는디 그 물 아이 난디 판다고 그 가람 가운데 큰 뽕낭인디 그 뽕낭굴아도 그 뽕낭 굽에 파면 물이 활활로 솟아오른다고 아 경헤단보니 이젠 아 그 물 귀헬 물 파는 동네가 이서. 경행 그거 알앙 슬슬 돌아보니 가람 가운데 큰 뽕낭이 잇단 말여 아이고 이디로구나. 이젠 므을 책임자보고, “아 이 므을엔 저 물 날 디 내 버려두고 왜 물 아이 날 디 강 물 파는가 원 거” 거 어떤 말이나고 어떻게 거 물 나왕호는거 알겠냐고 파 보여 파 보면 알거라고 파도 아이 나. 경행 그 사름훈티 들엇주게. 게민 어디 물을 잘 날 디가 잇느냐고 이 가람 가운데 큰

뽕낭이 있는데, 그 뽕낭졸라다가 뽕낭 굽 파면 물이 잘 난다고 아 이젠 아이 미친놈이고라 옛날 공공 이 졸랑 들고나면 물이 졸랑 물 나면 흐주마는 아이 나면 또 거 고목을 고야지 이젠 몬 졸라비여네 이 옛날 나무를 졸라비 였다고 졸라블게 될 것 아니냐고 아 경 말하는디 저 이서야 일 흐기도 아이 돼기도 에이 우리 여기 파봤자 물 아이난게 우리 물 난덴 혼디 혼번 파보자고 뽕낭이고 아무낭이고 뭐 좌우간 파보자고 거 탄 사람덜은 에이 거 헛자 헛일이네 거 무신 물이 날 말이고 갱 그런디 어거지로 졸랐어. 졸랑 그디 거 뽕낭 그 물통에 어느헌티 물이 콰콰하다 말이야. 하 이젠 히야 요거 아는 사람이 들렀다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게 그거 신은 산신령이 거 가르쳐준 거 아냐. 그래서 나서 물 잘 나니까네 그 사람덜은 거기서 호응받고, 모녀 춤 지네 죽여분 각시 얻영 잘살고 허영 그 지우에 그 머산도 막 그 사람을 위로 해주고 잘 살았다고 그랬어

3) 종달 힘센 할망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신흥리의 힘 센 할아버지가 아내가 아기를 배자 소 백 마리를 잡아먹 여 낳아보니 딸이었다. 그 딸이 종달리에 시집을 갔는데 물을 길러 가다가 동네 청년들이 못 드는 돌을 보고 획 던져버릴 만큼 힘이 센 할망이 있었다.

구좌읍 종달리 신흥이영 종달 사이가 남, 북군 경계라. 마젯 드러에 종달 리 할망이 아니 신흥리 할망이 종달에 시집갔는디 신흥리 하르방이 힘이 센 하르방이라서 힘이 센 하르방인디 굳센디 센 하르방인디 그 하르방 아방이 각시 장개처에 각시가 아기 배니간에 쉼을 백 마리를 잡아 맥엇단 말이여.

<조사자 : 쉼을 마심.>

쉐, 쉐, 소 소 소

<조사자 : 아, 쉐 마심?>

백 마리를 잡아 먹으니까네 나아보니 딸이라. 딸이라 딸이고 이젠 아들을 배니깐네 딸이카 또 딸이카보덴 아, 아흔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여그네 누이헌 티 위낙 딸려 힘이 경허니 그이가 종달리에 시집을 갖는다 종달리에 시집을 가네 시집간 뒷날은 옛날에 헛돼게 물긴단 말이여 물길러 가려하면 동네 청년들이 모여들어네 그 동네가에 디딤들이라고 영 들르는 돌 그거 잇는다 젊은 사람들이 돌 놔그네 푸들락 푸들락 험서. 이젠 물길어 올때 보니까네 그 사람들이 어서 그 돌은 잇고 그 가라웨 어그네 그 질도 잇고 논밭이라. 논밭에 그만 뒤쳐부러서 하하하 물허벅이고 뒤쳐버리니까네 이젠 다시 물길어가고 몇 번 다녀가니까네 또 청년들이 아이고 이거 어떤 자식이 그만 디딤들을 들쳐부렀다고 디딤들을 그만 논밭에 펼친거지. 들렁 내놓겐 하디 내놔져? 막 뽕들락 뽕들락 하는거지 헤헤 그 여자는 물허벅 지어져 영 오다네 영 베령 무사 거 못생긴 잡파리들이라. 하, 하. 아이고 어떤 녀석이 이거 들쳐내수다게. 들이쳐 파리헤수다게. 파리헨거 아직 못 파네쿠다게 여보게 물허벅 부리지도 않허곡 지냥가네 영 놔다난 바갈드레 혹 땡기명 자. 장난도 조그만이 글로왕 무시기들 장난들 험서 하 젤 세난 하르방이 할망이라 한거라. 게난 할망인디 그 하르방은 어디저 요 표선리 모래판에서 무신 씨름대회 한덴헤 대정 당장 이란 헨 사람도 또 세났다 아이가. 대정 땅장허고 가이면 당팔당장하고 저 시흥리의 그 부씨 하르방하고 헨 세놈이 씨름하디 당팔당장이 벌려 저 시흥리의 부씨하르방이 일등해났다이가. 그거 어디서 들은 풍월이주게.

4) 월계 진좌수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금능에 진좌수가 글을 배우러 다녔다. 하루는 선생이 진좌수가 창백하게 앉아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자 진좌수는 어떤 여자가 길에서 입에 문 구슬을 준다고 하였다. 선생은 다음에 그 여자가 구슬을 주거든 삼켜버리고 첫 번은 하늘을 보고 두 번은 땅을 보고 세 번은 땅을 보라고 한다. 다음날 진좌수는 또 여자를 만나고 선생이 말처럼 구슬을 삼키자 선생이 달려와 그 여자를 혼내었고 여자는 도망갔다. 도망가는 여자의 뒤를 보니 꼬리가 아흔 아홉 개 달린 여우였다. 몇 해 후에 진좌수는 두부 사역다가 강간을 당한 여자를 만난다. 여자가 남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자 진좌수는 화를 내며 두부 장수는 죽고 남편은 병이 나왔으니 가서 남편 밥이나 해주라고 한다. 여자는 진좌수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진좌수의 말대로 두부장수는 죽어있고 남편은 병이 나아있었다. 또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진좌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 아이가 길에 었드려 죽은 척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진좌수에게 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다. 진좌수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이는 죽었다고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가 보니 진좌수의 말대로 죽어있었다. 이러한 진좌수의 영험한 능력은 널리 퍼져 중국에서도 찾아왔다고 한다.

금능에 진좌수렌 한 사람이 옛날에 살아서 진좌수렌혜. 이름은 국태란 하르방이고, 그 하르방이 흑생인디 옛날엔 구한군 때나네 훈 사람만도 가르치고 댕사람만도 가르치고 여르만 사람들헌티도 가르치고게 서당이라는거 요새 학교 모양으로 글 가르치는 게 서당. 경헌디 진좌수가 선생네 지비지만 글허는디 글을 읽으레 댕겨, 옛날에 구한문은 집이서 줘자다그네 식전 아침강 글 읽다그네게 오랑 조반 먹영 또 강 공부허영으네 점심먹으레 와그네 오구행. 경헤났는디 게난 그 진좌수가 선연이 글공부흐는 서예가 좀 셋 떨어진 셋 좀 중간에 떨어지는디 홀삼 죽잡흔디 갓던 모양이라 그런데 가잇던디 글읽어지는 선생이 보니 진좌수가 파랑한디 얼굴이 색색이어서 하, 아이가 뉘뉘를 당허는 것 같다. 넌 어찌니 얼굴이 그렇게 빠졌냐고 나 어뎡 안헐수다. 머린 아픈디 호냐? 아픈디 어수다. 아맹헤도 너가 이상허다고 이상허다고 보

통은 아니라고 아무 뭐 뭐 아무래도 뭇일 이신것 같다고 그렇게 사름이 젊은 아이가 경 새파랑허게 뭐 그렇게 쫄쫄해질 필요가 잇겠는나게. 게 진좌수가 하허는 말이 게 이상헌 일이 잇긴 잇우다고 여기 저 질을 가만문은 여가네 좀 적적헌터 잇는디 드나질어 일찍 생경 오랜호른 어떤 곱딱헌 처녀가 날 알아그네 게 입에 구슬을 몽렛당 이거 몰라면 몰면 받드러 몰하명 영 헤낫수다. 게난 몇 번이나 헤서? 아주 여로번 헤신거 닳어. 켜 내일도 내일 아침도 올 때 경헐거 닳아. 경허거우다. 경허네 너가 구슬을 받을 때 받긴. 그 구슬을 니가 꿀꺽 삼켜 삼켜 불라고 삼켜서 첫째라 하늘보고 두 번째라 땅을 보고 세 번째라 사름을 보라고 경 가르쳐 놓고 위는 와서는 선생이 헌 말이 이것은 틀림없이 라므은 아닐것이라고 수시대는게 게난 그 부근에 가넝 영 담 바깥으로 왕 보는거라. 담 구멍으로 몽테기 두 개 난 영보니깐 아니 왔다가 가이 올라가니깐 그 어떤 처녀가 달려들었네 안는게라. 안장 얼마심에 그만 그 구슬을 꿀꺽 삼켜버린 모양이라. 막 심었다고 막 하명 그체면 그 선생이 담 넘어 몽테기 지팡이 탁탁 두드렁 왜 한 여인은 젊은 년들이 이게 노상에 서 윗줄을 허냐고 몽덩이로 그만 두들젠 허니깐 그 여자처려는 그만 저 내뻘 영 도는걸 보니 일로 무신 꼬리가 몇 개 아흔 아홉 개가 보이더라. 그것이 사인하여 여의가 벽년 뉘른 그런 솜씨가 부른다는 거주게. 경행 가 버려서 경헐가보니깐. 경헐가보니깐에 그 구슬 물영 뭐 하늘 보고 땅 볼를 알아서 선생 오는 것만 때려틀 사름만 봐징 경행 그 일 후에 몇 해 후에는 그 진좌수가 집에서 들어져 세순을 먹엇다허니 문더기 뉘다허니 세수하러 영 나간 그 애 걸어가 저 애 걸어가 영 하믄 찾아가보니 어떤 여자가 자리를 찾아오다가 중간에서 두부 사먹고 강간을 나간 하는 여자란 말이여. 거주장스러워나네. 이젠 방 안에 들어 가신디 앓아다가 얼마머시네 어떤 여자가 올랑 남편 괴로왕 데리왔덴 게 이젠 그 말 대답 안 허고 화여고라게. 꽤심한 년 너가 오다가 두부 사 먹어고 강간호지 아니 허열나고 그렝 여자는 노안 발광헐 터이야 너의 남편은 강 보믄 병 나사서 이제는 앓아헤 자기 올 때만 기다림시네 가그네 무시거 음식이나 잘 먹으셔 헤놔두라고 경허고 거 강간헌 두부장수는 헛

시라도 저기네가 저기가 상기 옆드령 덕저 주라고 허니까 이럴 수가 있냐 허
 고 오당보니. 두부장수가 죽어단 말야. 경헨 저고리 버선 덮어주엇단 말야.
 집에 강 보니 남편이 세 판정이 아픈 사람 닭아 보이지 아니허니 그 사이네
 낮아 그 쪽에 나상 죽영 어떤 남자가 지 몽똥이렌 허명 막 두툼허고 무시거
 렌 허명 발이로 와서 너 아무들로 아무덜가면 더리와레. 저 인골의 잇어네.
 사람 골박세가 시니간에 거기 걸언 물을 먹으라고 먹으면 낫는다 여러 번 굶
 도 앓고, 그 뿐이며 예이 어디보자고 가자보자고 그 말한 데로 올라가니간에
 달라 앓은 캐에 인골에 물 걸은 게 잇단말이야. 거기 지렁이 두 개가 죽어
 묵을 나이도 없다만은 이젠 먹을 거 허여네. 저 역새 아틀에양 역새 영 이
 아리영 구부령 체면 거 구멍나는 게라. 게난 그거 뉘네 한 주먹 빨라먹고 두
 주먹 빨라먹으난 머리가 확산헌 거라. 하 이거 아이쿠 그제 좋은 거라 지엔
 종안. 집에 드러강 그 쪽에 어떤 남자가 가네 각시가 자기 배를 맞춰잘막 못
 견더 헛다고 허면서 경 영 훈디 창호지 이서나신디 창호지 훈 보따리 폭 빠
 저그네 이곳 사람들이 곳아서. 경헨 집으로 완. 아 그 사람이 말이며 그 뭐
 약도 안헤신디 그 사람이 댕긴 고이 해산 아니 순산헌단 말이며. 순산해영
 그 중에 병자를 잘 안다 하니깐이 학생들이 거리에 질에서 훈 대 삿대씩 늘
 다가 저 진수 어른 병 잘 알덴허레. 우리 훈 사름 저기 강으넨 옆더지라 죽은
 추룩 허그넨 우리 죽엇전 행 병 받으령 허게. 경허넨 훈 놈이 돌아 저기 돌아
 가그넨 질에 옆더려주게 옆더지고 자빠져주나주 자빠지니 진좌수 어른와가
 난 그 아이덜이 아이고 선생님 저기 같이 놀던 아이가 지돌 아파 죽어감수
 다. 잘 병 봐줍써게 “이자식들, 너네 날 시험해 불라고 어. 시험해 불라고 험
 지. 아이는 벌써 죽엇어” 게난 야. 진짜 퍼축 모르네 고사 우리가 시험해보령
 그리 가져가 쟈디마는 죽을 리가 없다고 같이 가 보자고 선생님허고 같이 가
 보니 죽어서. 정말로 죽으니깐 선생이 힘을 노니명 아이에게 물 훈마리를 골
 게 맨들만 허겄다고 힘만 늘면하게 짐만 질러당 침질르데로 말올허게. 힘을
 빼면 죽는다고 경헨 봐보니 그 아이가 죽엇더라고. 진의원이 사람에게 대헌건
 참 베개 밑에 다 잘 알고 그 때부터 모른 건 잘레 왔다 아닌가 경허니. 그 지

역에 소문이 널리 퍼져서 중국에서 대모라당 비친 사름 세사름이 그 진좌상 찾
앙 물어보니까네 벌써 그 집에 죽어서 어제 염장해버렸다고 경행 그만 그
사름들이 데려가 버리고, 그 진좌상 아이고 오래 살아지민 더 팔명헐건디.

5) 신랑으로 변한 천 년 묵은 쥐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천 년 묵은 쥐가 신랑으로 변색하여 진짜 신랑은 부모에게 가짜로 오
해받아 쫓겨나게 된다. 남자는 상심하여 바다에 나가 물 흐르는 데로 흘러 가
다가 여자만 사는 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살던 남자는 천 년 묵은 쥐에 속임
을 당하는 부모와 각시를 생각하며 절간에 가서 그 쥐를 이길 방법을 묻는다.
절의 스님은 고양이로 쥐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 고양이를 품고 부모에게 다
시 찾아간 남자는 천년 묵은 쥐가 진짜가 아님을 밝히고, 그 쥐의 새끼를 뱀 각
시의 배꼽에 고양이를 놔서 쥐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고 행복하게 산다.

경해서 지르고 사는 집인디 아덜이 결혼을 허개 댓어. 결혼허게 뉘나네.
천 년 묵은 쥐는 신랑으로 변색하고 삼 년 묵은 흰 수툰은 몰로 변색하고
제라헌 신랑은 아, 신랑이 몰랑 잔치날은 그 제라헌 신랑보담 앞이 강 톱 아
갓단 말이어. 그 제라헌 나중에 갓다말이어. 하. 이젠 신부집이서 야단이 난
거라. 이거시 뭐 이변이냐고 말이어.

<조사자 : 신랑이 둘 나타낭>

신랑이 두 명이난 얼굴고 꼭 닮고

<조사자 : 하하>

하. 이거 이런 재주가 있냐. 이거 원 하, 이거 원 어느게 어느게 신랑인지
구별을 못 한다고 하 옥신각인 도좌보단 원, 도좌보담 홀 수 엇이 모녀 들어

은 걸 신랑 무틀 천년 묵은 쥐라. 그래서 시겐 아 경해와네, 제라한 신랑은 마쫘띠 갖주게. 마쫘띠 가니까니. 아, 이거 신랑이 두 개연 이거 어떠냐고 야 단방야 허다가. 흘 수 웃이 문저간 신랑을 신랑으로 허연 생각해여 모션 가네. 새각시 모션 가뒤네. 그 제라헌 아덜은 냉중갓어. 냉중가서, 지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네 부모네가 “아, 이즈식 우리 아들은 신부 모성 집의 왔는데, 너 어떤 즈석이 완 지랄허냐?”고 아, 내가 즈식 아덜이라고 내가 내가 저거 멀쨍헌 놈이라고 게니까 고정 아이 들어 게문 동네 사름 내가 문딱 모다 들어도 뭐 그게 그말이주. 뭐 게민 애를 저미반. 경허니 이젠 제라한 신랑이 오 죽힐꺼라? 어디강 죽어보주 살아보주 이제 악바리허영 나간거라. 나간 가당 오당 보민 바닷가 우에 당허연. 바위에 만장 바다우에 남죽이 하니에 우에 앞더레 오니까 그 남죽을 타갓고 무진장 바당에 간. 가고정헌 가는 배로 가는 거라.

<조사자 : 어디로?>

어드로 앞바른데로, 그냥 물가는데로 남죽 가는양. 게난 죽어지건 말아불자고 게연 죽저 살저 허는 게, 멩기다가 어느 섬에 간 내렸다 말이여. 내련 보니까, 거긴 또 남자가 귀헌디라. 남자가 귀허니 흠어멍덜이 천지라.

<조사자 : 아, 막 좋은 디 갖구나?>

그날 저문 때부터 이 흠어멍으로 저 흠어멍으로, 저 흠어멍에서 이 흠어멍으로, 경 매일을 경헛주게. 경행 살다가 문득이 그놈의 천년 묵은 쥐, 요놈의 거 좃아보질 못허고, 주인이렌 허는 거주게. 경 굴앗자 부모네영 7뚝질 안이 헌거주게. 집 생각이 문득이 나서 이젠 떠난다고 집의간 말허건, 이디서, 아니면 남즈 어신디 흠어멍덜만 이신디 살아봤자, 그것도 혼웃이 좋들 아녀고, 그놈의 쥐한테 속은 생각을 하니 부모한테 꾸지람 받은 생각을 하니 그것은 부모가 잘못이 아니고, 이놈의 쥐가 잘못인디. 이놈을 어평허냐, 허멍, 멩이 단 보니 절, 절간에 당헛어. 그디 강 혼 사흘 살멍 시님보고 “천년 묵은 쥐를 잡을 수가 잇겠느냐, 잇겠소”하니, 시님헌 말이, “잡을 수 잇지요”, “어찌허민 잡을 수 잇냐”고 “만년 묵은 고양이면 잡을 수 잇지요”, “만년 묵은 고양이

이를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느냐”, “아 여기 있다”고 아, 이젠 경혜네 내가 사정이 이만 저만 이만 저만 허는 이유가 있으니 그디를 좀 빌려 달라고 해서 가정가라고 경허니 고양이 혼없이 몬 만 년 묵은 고양이를 혼없이 무시저 잔 고양이가 어지간이 클거라. 거미 저장을 뒤편 허젠 허민. 참 중 그 이 소매 넓은 옷을 입영 갖추. 그 소매에 고양이를 들치고 이젠 부모레 찾앙 와서. 찾아완 부모헌티 호에낫 떼빗 절허고 “저가 아들 맞습니다.”허니 “아이 미친 녀석 우리 아들 저기 있는디” 하하하 “너 어떤 놈 새끼가 생 지랄허냐”고 허냐고 “아닙니다. 저가 아들입니다.” “아니여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아들 어딴수가”허니 “저 방에 있다고”허니 “게민 제가 강 보쿠다” 고양이 옷 소매에 들이쳐 놓고, 저 방에 강 보니 두 가시가 2치 잇는 걸 봐서. 고양이가 그때 고양이가 용맹을 친거라. 몬 내용져니 고양이가 확 탕 나오터만은 대뜸 물영, 시아비 죽인 강 터틀인 것이여. 터틀영 갱 죽이니까니 풀랭이만 나완이. 이젠 부모네도 그걸 보고 각시꺼지라도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고양이를 갖당 아덜보고 이제 사정할 판이여”, 내가 본이 아니게 저 놈헌티 속아부러트지는몰랐다고 아덜 아닌 지를 모르고 이럴 수가 츠마 잇겠느냐고 경혜서 게난 그 부모냥도 잘못했져 부모냥도 알고 그 쥐만 나쁜 놈이 변색해놔다고 그 뒤에란 부모 효도 잘허곡 춤 그집이 가면 그저 각시는 이거 쥐새끼, 그경 이 아이 배여비연. 이거 쥐새끼 배엇다고 젠 누구라고 허연 고양이 영 잡아 왕, 배꼽에 낫더니 쥐가 벨랑 나오고 죽어비연

<조사자 : 하하하하>

고양이 옆에 잇당 그거 몬 물어불고 물어불고 경행 그 쥐새끼 몬딱 죽이고 각시도 인정이 생각 그르지 안허곡 그 쥐새끼 몬딱 죽어지나네 각기도 돌아오네 그 집에, 그 집이 서로 맥영 막 잘살앗덴

6) 사만 년을 산 사만이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스만이란 사람이 아주 가난했는데 아내가 머리 판 돈으로 총을 한 자루 사서 사냥을 나갔다. 사냥을 나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시체 있는 지점을 알려 주었다. 다음날 찾아가 보니 정말 시체가 있어서 포대에 그것을 담고 집으로 돌아왔다. 포대 속에서 시체가 '보호해 줘'하고 말을 하자, 스만이와 아내는 그 뼈다귀를 보호했는데 점차 부자가 되어갔다. 이 썸 되자, 스만이 각시와 스만이는 뼈다귀를 버렸는데, 꿈에 찾아와 '당신은 사흘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저승차사를 잡으려면 밥 세 그릇과 신 세 켤레를 가지고 산신에 가서 빌어야 된다.'라고 했다. 스만이 산신에게 가서 기도하며 숨어 있는데, 삼차사가 와서 그 밥을 먹고 신을 신고 하다가 스만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갔다. 이제 스만이는 삼천년을 더 살아서 스만 삼천년을 살았다. 삼차사는 다시 스만을 찾으려 하였지만, 삼천년 동안 찾지 못했다. 마지막 껍질을 내어, 삼차사는 냇가에서 숯을 씻었는데, 이때 스만이 숯을 씻는 놈은 처음 봤다 하여 스만을 잡을 수 있었다.

스만이란 사람이 집이 가난해서 주거나 받거나 굶주린 턱이라 막 참 배를 움크려 주며 죄고 행 전지당도 버청 각 스만이 각시가 옛날엔 그 머리 여자 머리 값 많이 쥐나서 계남 각시냥으로는 머리 졸라서 이거 시장에 강 팔아그네 쓸 상오젠 가서 서방을 줬더니마는 아 쓸 상오지만 쓸은 상오지 아니하고 총을 만들어 상 와서 하~ 총을 한자루 상화서 빙작 웃으면서 이젠 우리가 살게 됐져 각시는 총으로 무신 배부르게 뭐 잇다고 속으로만 아이고 그래서 저 날부턴 사냥을 가는디 저 그런 저런거 맞추명 조물게 먹는게 식량 대응으로 먹는 종인데 하룬 비가 너스설 오는디 사냥을 나가서 어둡고 멧도 모르고 땡기다 보니 산에서 길을 잃고 헤가져버렸단 말이야 경허니 그 뭐저 산에서 그 굴인가 그 사람이 의지할 구렁시 조금씩 가이 이젠 거기 그날 저녁 뗏디로 물렸더니마는 밤중에 비몽사몽간에 어떤 여자가 와서 총을 빌릴 수 없겠

나고 뭘 하겠냐고 나 죽인 놈은 포질하겠다고 경허니 나가요 아무지점에 여
 기서 몇보거리에 시체가 냉겨자오리 다져시일거 아니나 시체를 보여 달라고
 아 잠을 깨보니 꿈이란 말야 고약시럽다고 앤 그러저러하다가 밝으니까 앤
 그 말한지점에 가보니 멍그러진 곳에 머린그러지고 아랫배가 술하게 잇다말
 이야 건이 그 때를 이젠 포따리에 싸서 집에 놓으러 와서 집에 놓으니 각시
 는 뉘인 처리아 말로 못하나 한평리 그냥 놓아 내부니깐이 놓아내버려도 뉘
 날은 이제 사마연 또 사냥을 나가 버렸어 사냥을 나가보니깐 아저 보따리에
 밤해영으냉 포따리 속에서 나 시체를 보호해줘 나 시체를 보호해줘 하 별랄
 별라 먹었다니깐 하이 영 그리서 그 말 들어내 가 보니깐 아 지 인골 뼈다귀
 사람 뼈다귀 그리서 잇어드라 봐야 야 이걸 어찌나 어찌나 어찌나 경허난 어
 두워서 남편이 어디간 사실대로 말하니깐 아 그 그렇다고 그 잘 우리가 어떻
 잘 오 참 매장이랑 못할지라도 어떻 잘 보호해주면 그때까지 해주다 줘야 그
 대로 해보자고 아이 그걸 참 잘 위하니까 아 순식간에 갠 뉘 참 얼렁뚱땅 하
 니깐 그건 참 무엇이든 흐든 잘뉘고 부자가 뉘간다 말이여 게난 그거 위험으
 로 댕기주게 경허니 동네에 그 괴상한 여자가 와서 그 말 저말 말도 막 말
 또 하다가 흐는 말이 스만이 각시 하는 말이 이젠 우리 저 떼어질 위험으로
 살마니 사니까 이젠 그저 저 떼어져 그만 내어 불고 어디든 갠단 말이야 저
 이젠 뉘날은 그날 저문 후 스만이 꿈에 막 그 현몽을 한다말이여 그 뼈가 이
 제는 스만이헌티 이제는 나도 당시네 위할마니 위하고 당신네도 이제 우릴
 나를 버린다니 이젠 그만 나가겠다고 경헨당신도 이젠 앞으로 저 오래 못살
 계라고 에 더 오래 못 산다고 경헌데 깨나보니 꿈인에 뉘날부터 그 하도 참
 고배어가비영막 떠나지 아니 할 테니까 당신은 생명이 이젠 사흘 밖에 어시
 니깐이 줌 그 저 저승 처사를 줌 웨야된다고 저승처사 어떻헿 웨야가나 하난
 밥 세 그릇하고 신 세 켤레 만 해서 산신 하르방 그 저기 빌라고 경허른 빌라
 고 하른 빌어두고 어디 숨영 싯다에 너 산신 삼처사와 내려봐서 그 밥세그릇
 먹고 신발 신고 흐민 당신 잡으래 오당 그만 잊어버려 뉘다 들어간다고 아이
 경하자고 아 이젠 그 말드러네 그 산신령네 밥 세그릇 흐고 쉼 세 개 시엇하

고 행 세 결레 하고 그 밥 앞에 놓고 행 뭐 참 가면 살려달라고 기도한거주게 기도해뒀 한쪽에 가만히 숨어지니깐이 웬 놈 세 개가 와가네 아 여기 밥잇주 게 밥먹게 게여 우리 배고프니 먹자게 세 사람이 먹어전 신신어가지고 이제 는 가지고 스만이 잡으려고 잊어버령 돌아갔단 말이여 돌아가 보니까 이제 는 스만이는 살앙 돌아왔는디 그 글자우지는 글고치는 개성적으로 위해서 위하니까 스만이는 글자우지에 삼천을 삼천 년을 더 살아 사만 삼천 년을 살아서 그 좀 사만 년에 사만 년됐면 됐면 죽으레 그만 다시 기도해봐네 삼천 년을 더 살아난디 어 더살안 지켜져 노넨 땡기다가, 땡기는중이였는디 이 저 승청년이 가정에 강 염라대왕에게 아니쉬명 안쉬명 혀차명 곳 강 잡아오라 하니깐 삼천 년을 땡겨봐자 스만이 너신 너싯 찾지 못하여 아 이젠 괴로 냇 가에 물에서 솥을 씻어서 그 삼쳐사가 솥을 씻노라하니까 스만이가 건너가 다가 헤헤 웃으멍 쟈장 별놈도 다 잊네 솥도 씻으면 곳는가? 나가 스만 년을 살아도 솥 씻는 놈을 처음 봤다고 아 경행 아이고 스만이 특 심영 그만 가버 려서 경혜에는 그 스만이 각시는 그대로 그냥 살았고 스만이는 삼 천 년을 더 살아그네 다시 잡형 드러갔다는 어른들 말이우다.

7) 여우내 지명유래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여우내라는 것은 如, 蠶, 愛가 합해진 것이다. 처음 하르방이 간 집터 에서는 살기가 힘들었다. 삼 년만에 그곳을 떠나 따듯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에 집터를 세워 여우내라고 하였다. 그 때부터 자손이 번창하여 잘 살았다고 한다.

여우내란 것은 뭐냐하면 곶을 여, 구름 운 자에 사랑 애잔디, 서추는 하르

방이 처음 집터는 저 고성리 정당양이렌헌 옛날 신헌지관 구신것치 잘헌땡 허는 집안이어서. 그대간 빼여네 집터를 뵈는디 가이난 여긴 막 몰찬 무장전 막 너른 병디라. 병디에 돛방당으로 올찬받고 행 뵈 혼 사년 살아보니 출기 만 하고 혼어시 벨난 소득이 어시난 다 이만이로구나. 소득이 어시난 습 년 후제는 삼 년만이 집터를 뵈겿어. 뵈건간딘 집터가 좋은덴디 지금까지도 택 호가 이서. 알큰집이라고 헌덴디. 처음 지스 디는 만아버지렌 그냥 내버르른 안뵈고 형, 셋짖 형한테 서영거지면 제일 죽은 하르방인디, 나의 팔 대조 주 게. 팔 대조인디 처음 살던 디는 그 셋짖 형보고 무인촌이라주게. 사름 안사는. 적적하니 벗 삼아 벗 삼은점 해서 그냥 삼센헤두고 저 서편에 간 지리를 삼멘디. 게난 형제가 동뵈이는 동침이렌 호고 서뵈이는 서침이렌 호고 경허 연 사는디 경 사는 도중에 정당장에 우연히 만났어. 집의 와서. 집의 오연 옛 날에는 뵈난간이렌 혼디 배갯테 마루가났주. 거기 앉은채로 좀 지관들이 비치 좀 노즌듯흔 사름이어서. 게난 할망이 전에부터게 아나게, 언 정당영 들어가 윈, 여디강 살아봤자 출기만호고 혼 삼년 살아도 소득이 별로 없고 하니 가니 어디 뵈뵈하고 설키니 소득될디 거즈르민 혼안 영 안즌채로 서뵈의 곳 자왈 진때난 저 아무부근에 선난디 이시난에 고르치멍 저 지점을 좌우를 절 처지면 다 스춘간 일보당 어왕으녕*질 헤나쿠다 허멍 돌아오다네 그리 질 헤 내멍 여기 집지면 뵈뵈할것이고 참 당디 거뵈못하쿠다 허난 아이고 좋은 데로구나. 게난 그디강 지서네 집터가 좋으니까이, 집터가 좋으니까 막 아름다워서, 어여뵈여겨, 사랑허는 뜻에서 여우내라고 헛어. 여우내라고 허연데 글로후에 여기저기 이동네 저동네 구름곳이 행 편편조각처럼 별개져 삶으로 가이는 톨막톨막 여우내랏어. 편편조각처럼 그디저기 떼어전 살아나난. 톨막 톨막 여우내렌 허연. 게난 나가 요새다 톨막톨막 여우내란걸 생각해보니까 과거가 믿엇던거 다 틀리게뵈단말이야. 게연 그거 찍은거 먼것번에 온 사름 들 아정가서. 그거 복사해뵈 가져오쿠덴 허멍. 경허고 그 우리 팔대조가 서영 게 좀 죽은 하르방인디 경 당대에 부자로 살아봤자 후가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어시난에 셋짖형은 이살당 이쪽으로 왕 살고, 또 들짖형은 그 동침

위쪽에 오란 사난 웃동칩 알동칩 허멍 해나디 웃동칩 셋성이들을 양자로 들였어. 양자로 들이니까 데령후에 좀 부나니까니 가이는 머슴들 일하는 일꾼들 데령 살앗주게. 일꾼들 데령 사네 허는데 옛날에 조세실란줄 알아?

<조사자 : 예>

세줄에역 셋을안권. 셋을 내건 저 토산이란디 밭드레 낫주게. 밭이 간 주난 그디 조시에 고슬리 가는디 그 양재로 온 아들이 고치 몰려와서. 구영도 정나영 곳치 몰여완 올때는 쉼 식근주 집이 툭툭 털지 아녕 집이 툭툭이란 그 조쿠보리 훈이름을 영행 안앙와서. 안앙와신디 아버지, 그 양재아방이 착하넌허카부덴 새만 짹짹, 새만 짹짹 짹짹. 그니까 경만 자꾸 허영. 게난 뒷날은 이놈 이루제 컷자 큰 제사를 운영못하겠다고 졸아서. 지네 딸인 죽흔 밧이라 졸아서 큰 제사를 운영 못하겠다고 게난 십 년 전에 대답을 했어, 바야흐로 바야흐로 데려강으네 훈 돌포후젠 저 훈군이엔 헌디, 저 서훈엔헌디 우리 종씨주게. 게난 아들 스형제 난 열한조카 열한촌조개를 양재로 들여와서. 열한 촌 조개를. 스 형제에. 게난 스 형제에 계속 죽은 하르방 아들이 우리 하르방이주게. 게연 돌아완 데령 왔는디 가이는 손저되난 열세 스촌 성제, 또 증손자는 스물여섯 성제, 거친 손지가 막 훈 오에서 육십 명이 뉘엔. 게난 그 당시에 열애 관계촌이라고 열애관계촌. 그때 관계촌이라고헌 말 해낫주게.

8) 처녀와 소금장시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한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각시보다 처제가 더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처제와 함께 있고 싶어서 처제에게 고사리를 꺾으러 가게 하고 자신도 따라 가서 처제를 안으려 했는데, 처제가 완강히 뿌리치자 처제를 죽인다. 처제를 죽여 둘무더기에 묻어두고 모르는 척 집에 간다. 그 때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다

가 날이 저물어 무인처에 갔는데 불이 밝은 집에 가보니 한 처녀가 머리를 빗고 있었다. 처녀에게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고 배가 고파하는 소금장수에게 처녀는 저녁을 먹으러 어느 제사집에 갈 것을 권한다. 처녀는 그 집에 조용히 들어가 병풍 뒤에 숨고,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형부를 보고 나를 죽인 놈이 절을 한다고 화를 내며 나간다. 이상하게 여긴 그 집 사람들이 병풍을 걷어보니 소금장수가 나오고 소금장수는 이제까지의 일을 사실대로 말한다. 드디어 그 집 사람들이 사위가 처제를 죽였음을 알게 되고 다음날 사람들이 소금장수와 그 집에 가 보니 소금은 돌무더기 위에 있고, 돌무더기 밑에서 처제의 뼈가 발견된다. 처제의 부모는 소금장수에게 처제의 뼈를 맡기며 재산의 반을 갈라 주어 소금장수는 행복하게 살았다.

훈 잡놈이 장개를 갔는다. 가서보니깐이 이녀 각시보단 처제, 처제가 더여 뻔 안아보구정 헌단말이여.

<조사자 : 처제가>

처제. 아 이거 어느 때 영 언제 안아보코 이제는 막 그 봄철낭 고사리 꺾을 철에. 이젠 가시어멍 처갓집에 가시어멍 보고 요 아무디 고사리가 몽클몽클하게 참 참 좋은디 이십디다 저 처제 보냄서 나영강 고사리 꺾영오게. 가시어멍은 곧 들영 야 너 아무디 고사리 좋앗젠 행게 곱이강 꺾영오라허난 이젠 아니가쿠덴허는거야. 아니가쿠덴헌디 이젠 그 잡놈은 이제 막 마음에 아까워 노니깐 어떡허든 돌양 가젠만 허는거라. 어땡어땡행게 이젠 홀수 어시 그 처녀가 말 들영 고사리 꺾으러 곱이 갓단 말이여. 고사리 꺾는딘 조용처주게. 조용처니깐, 요 곱이 저 위에 무인처에 강으네 그리가고 저리가고 허멍 참 무인처에 가난에. 강 처제를 안젠 헌디 막 부등치는거 아니라. 도시 도시 안지 못허게. 갹 홀수어시 걸 죽여비어서. 죽여비연. 돌무더기 해낸 돌무더기 팡으네 그 속웁더레 그만 물어비엇단 말이여. 물어비똥 노려완. 그런치 안헌 등 처갓집이강 처제 외십디가 허난. 아니왔다. 아 일찍일찍게 나보다 막 앞이 간줄 알아신디 어디가서. 새삼스럽게 경허멍. 경행 뉘 그날이나 그 뒷날이나

그 뒷날이나 가고 경지내명. 날이차고 돌이차고 참 해가 차가도 노새 아니들
어와. 이젠 홀수 어시 그냥 뜨는말로 싯젠가 무시건가 혼다고 말이여. 경 흐
는 중에 소금장수는 새에 소금 지고 소금 풀러 땡기당. 해는 지고 무인처에
갓는다. 하 어덜어디라고 인가를 동경 갈수가 엇단 말이여. 갱 배려보니 불이
베룡한다가 있어. 저것이 인가로 생각허영 그덜 좌우간 좇아가서. 소금 싯글
것도 있고 허연. 소금싯글 것도 있고 허연 거기 좇아강 보니. 여자가 머리 빗
는다. 머리 빗어나서 이것 춤 건너가다가 어두워서 여기들어와수다. 경 행 그
짐부려뿔 들어옵서. 짐 부려뿔 짐은 문 베꼈더레 논덴행 짐은 놓고 새 매젠
행 잡아보민 억새. 새 땡디 새 잡아 묶을디. 영 영 나무카부덴 영 보민 어웁
이라.

<조사자 : 나무카 보덴 심영보민 억새라>

억시라. 새 땡라고 잡아 거기 잡아 땡라고

<조사자 : 억새가 뿔파>

어웁어웁

<조사자 : 아 어웁>

어웁만 여만 있고 나문 없단 말이여. 어땡 어땡행 낭 참 어누세 어세노나
게 봉가네 나무에 자루뿔어뿔. 들어가니 들어가면서 저녁을 안 해신디 식사
홀수 어수파 허난. 여긴 식사하는 집이 아니우다. 머리빋어뿔 나영굴이 가민
저녁이 싯켓 저녁 좀 잘 자성을거우다 나영 흐술가게. 갱 머리 빋언 굴이 이
젠 오는디 어디로 어떻게 문 뛰어오랑 이레 말한지모르게끔 어떤 집이 창호
구들 창문으로 그레 싯짜 들어가는거라 조용히 아무 말도 강 얘기 안 허꼭
저 병풍뒤에 앉앗단 말이여. 게난 상에 음식올린걸 몬딱 그 사람을 먹게시리
헤젯어 게난 경고랑. 제 때되영 이젠 제사를 땡기는디 맨 마끝엔 그 형부가
절을 하젠 허는거라. 하 어덜 이 시발놈 날 죽여둔 원수가 어디 절을 홀라고
확하게 이젠 확하게 문 밖에 나가분거라. 나가부니깐 이젠 제관측에선 아 거
이상하다고 제전이 음복도 거 상에 올린 것도 몬 실어 먹어부러. 이 사람 절
하젠허니 저 원수가 나한테 절하젠 한다고 허명 내뿔고 이상하다고 그 사위

보고 말하니깐 사위보고 말하니깐 새 펜지롱하게. 갱 병풍을 확 걷어보니 아 어떤 놈이 아자서. 넌 어떤 놈이 거기 왔느냐. 갱 사실대로 끝났단 말이여. 그런거 아니고 내가 소금장신디 소금 풀러 다니다가 해는 질무렵인디 해진 후에 인가는 엇고 붙은디 좇아간다는게 어떤 처년가 혼 저 처년지 아줌만지 머리 빗영게. 아 거 넘어가는 사람 저 기숙 혈 수 어시넨행에. 짐부러똥 들어 읍서행으네. 짐은 그문 베끼디 부러놓고 새를 매젠 허니 매젠행 보니 어욱만 자꾸 문직어지고 겨우 낭 봉강에 새 매두고 허영 들어강. 저 식사홀 청구홀 말하난에 저녁허는디 식사허는데 아니니깐 나영 굴이 가민 잘 먹게된다고 해서 굴이 온게 여기왕으네 잘 먹고 그 여자는 그만 확하게 나가부렀다고. 아 경행 이제사 알았다고 이놈의 사위 사위놈 짓이라고 사위놈이 절하젠 허 난 저 놈의 새끼 지랄이라고 저시또 나발이라고 몬딱 다 딸도 이놈하고 붙어 시니깐 굴은 놈이라고 해서. 경행 이젠 뒷날은 붉으니까 이거 소금장시보고 그기는 소금집 부리고 새 매시간이 찾을 수 잇잖아. 좇을 수는 새매고 소금 그 물등에 부러시니깐 잇지만은 어덜어디라고 나 혼데 영 좇아 갈수가 엇다 고 계난 이젠 그 부모네가 가이 낸 고사리 꺾으레 지방을 어느 촌 대개 짐작 행 강보니깐이. 소금은 돌무더기 위에 부렁 있고 지 소금 짐은. 새는 저 낭에 매 있고 경행 아 여기로구나. 여기로구나. 행 시체는 어시니깐 어평호코 허 다가 돌무더길 헤싸자고 집이렌 찾아와시간이 돌무더기가 집되실거아니 집. 돌무더기 헤싼 보니까나 침 빼만 사랑하게 해 낯에 그거 담아당 가이는 그 소금장시허고 소금장수가 이미 현도가 운다기 영 쯤 돼니까니 소금 장수가 우리 딸 영 말앙 잘 위로 허고 허민 재산 반 갈라주겠다고했단 말이여. 갱 그 쪽에 그 재산 반 가르고 그 귀신 위하고 행 잘 살았다허는 말이 잇어.

9) 똑똑한 셋째 딸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금장아기, 은장아기, 검은장아기 딸 삼 형제가 있는 사람이 비가 오는 봄날 형제를 모아 누구의 덕으로 너희들이 태어났냐고 묻자 첫째와 둘째는 부모의 덕이라고 했으나, 검은장아기는 자기 복에 태어났다고 하여 내쫓는다. 검은장아기가 가는 날, 부모는 장님이 되고 형들은 황지네가 된다. 어느날 밤 셋째 딸은 한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아들 삼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차례로 마 팔고 들어와 손님을 보는데 첫째와 둘째는 집도 좁은데 손님을 왜 받아들였냐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손님대접을 안 한다. 그러나 막내는 손님을 받아들였다고 부모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손님이 주는 쌀을 맛있게 먹는다. 다음날 손님은 마판 구덩이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셋째 아들과 그 구덩이에 가서 노란 흙을 퍼 시장에 팔게 한다. 시장에서 노란 흙을 천 한냥에 팔고 셋째 딸과 결혼한다. 결혼하고 호강하며 셋째 딸은 부모를 그리워하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장님 거지 잔치를 열고 드디어 부모를 만난다. 셋째 딸과 사위는 부모를 극진하게 반기고 부모는 눈을 뜬다. 셋째 딸은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옛날 사람이 딸 세 성제를 나서 딸만 세 성제를 낳 사는다. 사리랑짜 저것도 이것도 아니헌 사람인다. 봄 더렌디 비가 축축하게완 일 못가고 허니깐 집이 다 모여 앉았는디 딸 성제를 보고 이리오라 허영. 오란 아방이 묻는 말이. 큰 딸은 금장아기 셋 딸은 은장아기 셋째 딸은 검은장아기. 경헌디 은장아기 보고 너는 누게 덕분으로 살아지는 줄 아느냐. 큰 딸은 은장아기는 “예 아버지 덕과 어머니 덕입니다마는 배꼽아래 성그른 덕 덕으로 삽니다 살 줄로 압니다” 영 해영 셋 딸도 보래잉 역시 그대로 답해연 셋 번짜 검은장아기는 불령 “넌 누구덕분에 살아진줄 아느냐” 하예 “전 아버지 덕도 아니고 어머니 덕도 아니고 배꼽아래 성그른 덕보고 삽니다” 하연 이런 쾌심한 여자라고

<조사자 : 하>

하 쾌심한 년이라고 과시 떠나라고 보기도 싫다고 어떤 여자가 부모를 부모로 생각지도 안하고 백반에 부모 덕분에 산데 허므는 사는 녀석이 쾌심한

년 떠나라고 그만 혹 켜넛단 말이여 아이 어서 기해설적부터 입엇던 옷 모
 딱 자근자근 몽 포따리에 싸멍 머리에 이게 헤영 새에젠 식구 잡으렌 들어
 안쳐서 “아버지 저는 떠나 갑니다” 영허내, 아버지가 잘 가렌 허젠 대문을 확
 거덩 문두이 저무이 문 조므른 뒷터레 탁 자빠지난 그만 문지두리에 눈 영든
 고만 봉사되불고 저 어멍는 부엌에서 또 딸 잘가렌 허젠 정지문 베끗디 확
 나가당에 문지두리에 중이 걸런그만 자빠정 봉사되불고

<조사자 : 뒤에 걸런?>

문지두리에.

<조사자 : 문지두리에>

응. 걸런에. 형들은 은장아기 뿔장아기는 땃들 우로 그만 확 나가민은게
 땃들에 미끄러 려자빠정 청지네 황지네가땃고 계난 어멍 아방이 봉사땃부
 뿔단 말이여. 봉사땃다고 아니가지도 못하고 가젠하니 간다고 나강 감감허
 는게 해는 저물어 가고 앞더레 보니 인가는 엇고 혼 번은 혼 편인 그쪽에 보
 니 오막살이 하나 있어. 그 집이 들어강 밤이 몇엇당 가자고 그 집이 강 보
 니 노파 혼 하르방이 있어. 하르방이 잇이난 사실대로 이젠 질 넘어가다가
 이제 날은 어두워가고 가불 디 엇언 여기 들어왔노라고 허니까니. 아이고 여
 기 아덜이 삼 형젠디 아들이 들어오민 큰일난다고 집이 쭈잡한디 어디레 의
 지할데가 있냐고 거절해분디. 이젠 그 거절허는걸 그대로 들은은 이제 가불
 디가 엇어. 바로 막 디 막 대드는 거라 더허게시리 당신이민 별 수 잇겠느냐
 고 당신이민 집을 떠날 적에 이 오막살이 들렁가겠느냐고 나도 집이 잇엇자
 이거야 들렁오지 못헿 홀몸으로 땃기는 놈이, 땃기는 사람이 남이 집이 묵게
 땃는게 사실이지 어멍 그렇게 반대허민 사람이 살수 잇겠냐고 경헿 말에 질
 령으로 하르방이 들여놔어. 들여난 해진 후에 어스름헿 때 얼그랑탕얼그랑
 탕허는 소리가 나. 그 노파보고 저거 무슨 소리냐니깐 우리 큰아덜 마판 구
 그렁 오는 소리라고 경헿 와시메 마판 큰아덜 들어완 받 어떤 여자가 잇이
 니깐. 저 어떤 여자냐고 허난 아방이 허는 말이 이런저런 지나는 사름이 어
 득우니 홀수어시 여기들어왕 거절 해봐도 노새 듣지 안앙 들어왔앗다고아

이고 어느 쪽에 궁댕이 우리 대고 어느쪽에 손님 궁댕이 델거나고 쪽잡한다. 경허고 이젠 마판걸 씻엉 솥아서. 솥앙 대구리 쪽은 지네 아방을 주고 꼬리 쪽은 손님을 주고 가운데 도막은 즈기가 먹고 정행 이젠 먹었으네 얼마어시 난 또 일랑 거리는 소리가 낭 또 저거 무슨 소리냐고 허난 우리 셋아덜 마판 구글리느소리라고 쟁 오랑보니 역시나 손님 잊이난 셋아덜도 큰아덜 모양으로 꾸지람허는거라. 어느 쪽에 손님 궁댕이 대고 어느 쪽에 우리 영댕이 델거나고허명. 경혜빳자 별수 어시니 이제 마판 씻엉 솥앙으네. 똑 형 모양으로 머리 쪽은 아방주고 꼬리 쪽은 손님주고 가운데 도막은 즈기가 먹고 행. 세 번째 아덜은 또 이제 얼마어신 구글리는 소리가난난 저건 죽은아덜 오는 소리라고 죽은아덜 오니간 저 또 노인이 이말저말 고르니간 그래수까허고 경허고 혼어서 굿게 생각을 안허여. 이젠 마씻언 솥앙으네. 대구리는 자기가 먹고 가운데 도막은 지네 아방을 안네고 아, 대구리는 손님을 주고 가운데 도막은 지네 아방을 안넛구나 자기는 꼬리를 먹는거라. 마지막째가 좋은 놈이 었주. 아 그렇구나. 그날 저녁에 자당. 뒷날 기영 나가도 쫄은 더러 가정나 갓던 모양이라. 쫄 낱에 밥허영 큰 아덜 셋아덜헌티 앓단노니간이 영 봐서 아 이거 버랭이 밥 아니먹는다고 허허 아 나룻밥이렌 주는거 버랭이밥 아니 먹는다고 이제 거 세상 본데어신 밥이라노니간 버랭이 밥이라고 쟁 죽은아덜헌티 앓단주니간 이젠 걸영먹는거라 걸영먹으난 이젠 큰아덜이 셋아들한티 맛종으냐 맛 좋다고 이거 맛이 착살 좋다고 자기도 먹어본다고 걸영먹어보니 맛 좋난말이여. 하 이렇게 맛 좋은 게로구나. 쟁 먹언 그날 저녁은 거기 있다가 뒷날은 그 아덜 삼형제 보고 손님이 그 마파난 땅에 마파난 구덩이를 좀 구경할 수 어시나허니간. 큰 아덜 셋아덜 성제는 마파던 구덩이 흑만 잇 일건디 구경할게 뭐냐고 아니고르차줘. 죽은 아덜은 아 구경허젠 허민 구경할수가 잇다고 해서 들앙 강 구경시키니 큰 아덜 마파난 구덩이엔 처 마른 똥 무룩이 쌓아져 잇고 셋아덜 파난 구덩이엔 물 똥만 쌓앙 잇고 죽은아덜 파난 구덩이엔 보글락한 노락 흑 잇는거라. 보글락한 노란 흑만 잇어.

<조사자 : 노란 흑이 잇어.>

어. 노란 흑 보양하게 노란 흑이 있어. 계란 죽은 아덜보고 이걸 보따리에
 문 담으라고 이것 담양 흑 담양 뒤향꺼냐고, 담양가민 살 방도가 있다고 담
 양가서 집이 강 뒷날은 삼 형제보고 이것을 시장에 강 풀양 올사람 어시냐.
 진짜 큰아덜 셋아덜 흑덩어리 누게가 산다고 흑을 누게가 산다고 경혜. 죽은
 아덜은 거절을 안하고 이걸 폰다니 대금을 얼마에 받으면 좋겠소 허니. 대금
 은 물건만치만 달라고 허라고 그러자고 장에 가정갓단말이여. 장에 가정강
 훈 쪽에 늑 물건 벌인 옆에 벌연 앓아봤자 어떤 늑 구경하겠다고 하는 늑이
 있어. 아 파장은 돼가고 마지막으로 설렁 치워볼카 어떻하카 허는 순간에 어
 떤 노파가 절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하 오늘은 나 사고픈 물건 낫네, 경허명
 조꼐디 오는거라. 조꼐디 왕 봐서 “이거 얼마받겠소” 허니 “저 고른대로 물
 건 만치만 주시오”. 천 냥 줄테니 어떠냐고 대답을 안해서. 계메 “훈 냥만 더
 줄수 없어요” “아 그러지요” 천 훈냥 췌네 다니면서 다음 번도 잊거들랑 또
 가정오민 자기가 사갓노라고 허여 그 천 냥 받당 천 훈 냥 받고 행 집이왕
 손님한테 천냥은 주고 훈냥은 보금짝에 행 자기가 놓고 이젠 그 셋째 딸하고
 결혼해서. 맨끝에 아덜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조사자 : 누가 셋째 아덜이?>

손님이. 셋째 아덜하고 결혼해서 그 천 냥 받은 돈으로 집사고 밧 사고 헤
 서 안락하게 걱정없이 잘 사는 편이다. 올해 훈 수십 년 잘 살아지니깐 부모
 생부모 부모 생각을 헌단말이여. 하이고 봉사 틀림없이 봉사되실건디. 어떡
 허민 부모 좇아볼 수가 있겠는고 그디 좇아봤자 그딘 어실거여. 벌써 죽었
 는가 살았는가 모르니 어떻 찾아야 될건고 이젠 남편하고 두가시가 의논했
 어. 어떡허민 부모를 좇아볼 수 있겠느냐. 봉사 두 부처가 다 봉사됐다고 경
 허니 남편하고 의논하는 것이 그렇지 말고 우리 봉사 거지 잔치를 두일레 열
 나흘 하자고 영 험시민 흑 강 닿을지 모른다고 거 생각해보니 그게 바람직
 허단말이여. 그러자고 봉사거지잔치를 허는다. 열나흘 뒤턱 사방팔방에
 거지덜은 문딱 거지떼가 모여들영 잔치먹으레 오랑 먹으멍들이차. 지네 부
 모네 닳은 사람은 안보인단 말이여. 열나흘차 해가 거진 저갈 무렵에 아 문

가로 들어오는 거 보니 지네 부모네가 혼 지팡에 두 부처가 지팡에 들어온단 말이여. 아고 저 우리 부모네라고 쟁 그디 일보는 사람고라 이상이랑 손님 받지말고 저 마끝에 온 거지랑으네 대접도 아무 것도 안네지말라고 안네지 말고 잔치를 끝내와 달라고 먹쳐달라고 게난 이젠 잔치를 먹엇어. 먹으니 이젠 그 두부처가 두부처헌티 이젠 딸이영 사위영 강 손잡으멍 아버지 나 누구 우다 나 사위우다 경행 울멍헨 알거렌 경행. 이젠 세숫물 평오렌 세숫물 평오렌 행 아버지를 문져 물 줍아 발르니깐 아버지 눈이 이상하다. 두 번 세 번짜리 하니 눈이 완전히 완전히 떠부러단 말이여. 이젠 어머니를 세수시키자고 어머니도 세수 시켰는다 어머니도 역시 한번 줍아 발르니깐 좀 베통행 세 번차 눈에 발르니 눈이 완전히 좋아부러어. 하 이젠 생인 되부러어 하 이거 참 눈 나스는거 닷다. 허여 쟁 의복허연 게어서 입히곡 잘 그때 그날 차린 대로 잘 행 대접하고 그 뒤엔 잘 모셔그네 잘 살멍 이젠 그 위에 형들은 이젠 오게시리헤넨 그 재산 끌고루 삼형제가 갈랑 삼형제가 잘 살앗단 말이여

10) 설문대 할망 1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키도 크고 힘도 센 설문대 할망의 아들이 오백 명이 있었다. 오백 명을 먹일 수 없었던 아버지는 형제보고 도둑질을 해오라고 하고 팔죽을 쑤어 아들들을 기다린다. 돌아온 아들들이 팔죽을 먹고 너무 맛이 좋다며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온 막내는 맛이 이상하다고 하며 팔죽을 살펴보니 사람 뼈와 머리카락이 있어 아버지가 팔죽을 쑤다가 빠져죽었음을 알게 된다. 오백 형제는 너무 슬퍼 끊임없이 울고 눈물이 얼어서 오백 장군이 된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길 뿔아 산방산을 만든다.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바닷가에 발을 담고 물장구를 치어 범섬에 구멍을 만들었다. 어

느날은 설문대 할망이 명주 백동으로 속옷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놔 주겠다고 하여 그 일을 시작했으나 결국 명주 속옷을 만들지 못하여 다리를 놓던 흔적이 남아있다. 설문대 할망이 목욕을 하고 싶어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물장오리라는 큰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설문대 할망이 아덜 오백 형제라. 오백 형제다. 설문대 할망이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헌디 제주도 한라산을 삼으로 열두 번 걸어치니간이 한라산이 뻗다는 거야. 사방오름은 그 할망 나막신 신언 나막신에서 툽툽 터니간 사방오름이 뻗고 하하하. 그렇게 뻗건디 그 오백형제가 아덜이 되니간이 식량당허기가 어려운 일이주게. 게난 흥번은 몬 도둑질을 내보내서. 너네 몬 나강 도둑질을 해오라고 경 안하민 살 수가 엇다고 살 수 어실테주게. 오백 성젠디.

<조사자 : 오백을 어떻 백영 살아질거라.>

도둑질을 나간에 동장 등지 동서 섭섭에 사방팔방 땡기다가. 이젠 아버지는 고만이 생각해보니 도둑질을 해오민 거 죽이라도 흥 줌씩 쥐야혈건디 안뉘겠다고 풀죽을 끓여서. 큰 가마에 오백 형제 먹젠허민 저 머시는 가마사라 주지. 풀죽을 쑤는디 쉼. 아덜덜이 먼저오는냥 그 먹어보니 풀죽 맛이 좋아. 아 맛 좋다 맛 좋다 참. 맨 마 끝에 들어온 녀석이 풀죽을 먹어보니 맛이 좀 하 이상허다 성제가 다 풀죽 맛 좋은 줄 아는다. 국 가마로 간 짓는 걸로 짓 영보니 뭐 드굴럭허게 걸려. 사람 빠가 이서. 아이고 아버지가 죽 짓다가 이 죽 짓는 것에 그만 헛놀령 그만 죽가마에 빠전 죽은거여. 쟁 또 짓단보니 머리카락이 나오라 아이고 틀림없다고 아이고 틀림없다고 쟁 그때게 아버지 아버지 허명 막 저 오백형제 막 울어. 게난 영실에 그 오백 장군이 그 설문대 할망 아덜 오백형제가 그 울당보니 눈물이 얼어붙영 그만 하하하 눈물이 얼어붙영 그 오백장군이렌 현 것이여. 오백장군이. 쟁 용심나니간 이 할망이 한라산 꼭대기를 그들그들 흔들어보니 흔들어정. 용심낭으네 이걸 확 빠낸 세와부난 세와부난 산방산이 뻗어. 하하하 산방산이 뻗어.

<조사자 : 한라산 뒷봉을 떼영 던져부난?>

어. 갯 산방산이 뻗어. 갯 산방산이 되고 이제. 아이고 경해나네 이제 한라산을 배개 삼양 누웠 이제 알더래 바당 알더래 발너뿔 바닷물에 물장구 치는디. 바닷물로 물장구 치는디. 서귀포 이 저 범환이 범섬이 하나 있어. 그 섬더라. 발을 쭉 뻗어. 갯이네 문옆으로 구멍 두개가 났어. 그저 켈 모양으로 켈 모양으로 그제 설문대 할망 발로 밀려부난 터진거지. 하하하. 갯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제 입을 건 엇고 제주도민 보고 그렇지 말고 명주 백동만 해오민 내가 소중행 입어서. 이저 목포까진가 다리를 놓아서 걸영 땡기게 허겟다고 걸영 땡기민 제일 좋겟다고 해서. 아 거 명주 백동도 어려운 거라 혼 동이 쉰 필인디 쉰 필인디 혼 필이 스무 자라 혼 필이 스무자고 혼동이 쉰필이고 백동이니깐 어만씩 허게. 아무리 소중히 해도 어느 자락에 부족허면. 부족허기 때문에 다리를 못 낫주게. 못 낫 저 조천이 웅장벽 허지렌헌디 혼작 발노고 신촌이 무슨 빌레머신디 그디 혼작 발 낫에 시작할걸로 혼술 표 잇게 잇다하여 발자국이. 갯 이젠 다리를 못 낫 설러불고 에 이젠 목욕이나 허여야 겠다고 목욕을 하젠 허난 시외 거 용암못 용두암에 용암못 것도 물 깊은 물이라. 그 물에 가난 발 겨우 조무라. 아 이것도 목욕 못허겟다고 이젠 홍리 그 서귀포 우에 홍리. 고향이 어디짜?

<조사자 : 저는 제주시 노형>

노형. 아 노형. 성이에 헨디 그 미신거 큰 물인디 그디가니깐 요 정에난 배기 안와. 아 못 썩겟다고 이젠 저 산에 저 물장어리? 물장어리 큰 물이 잇다고 그디강 그 물이 창 터진 물이 하나 이서. 그디강 목욕하젠 들어가니깐 그 할망 그자 음썩 음썩허게 들어강 그자 들어가분 후에 그추룩한 후에 고작꺼정 안나와. 하하하

<조사자 : 고작꺼정 안나와. 하하하>

고작꺼정 안나와. 설문 할망 오뿔 죽어비어서게. 죽어빈거라게. 고작꺼정 아니나오난. 경헌 말이 잇는디

11) 지혜로운 곰보각시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만권(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홀어명의 아들이 재산이 모자라자 잘사는 집에 가서 색시를 구해달라고 한다. 남자는 나이가 찬 큰 딸이 있는 집을 알아서 그 집에 찾아가 자기를 소개하고 딸을 달라고 한다. 딸이 있는 부모가 승낙하여 결혼 준비를 하는데 큰 딸이 곰보였다. 그것을 모르는 신랑은 결혼을 하였고 첫날 밤 각시가 곰보인 것을 안 남자는 화를 내지만 곰보각시는 대꾸를 잘 한다. 다음날부터 각시는 현명하게 살림을 잘 하여 사람들은 남자에게 훌륭한 각시를 데려왔다고 한다. 후에 곰보각시의 집에 함께 찾아가니 곰보각시가 또한 현명하게 행동하여 곰보각시의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

에 옛날에 테고가 이서

<조사자 : 테고 마심?>

테고 집, 집 빌 놈 집, 아무 집 벽 잇잖아. 아무 아무서라도 처음부터 시길라.

<조사자 : 아 예>

아무 집 이웃마을도 다 알게. 아무 집 아무슬럼에 아무 집 평그런 그런 집으로 그런 집에서 잘 살란. 자손대이 허니깐이 그만 재산이 모지라지고 홀어명 아들이렌 행으녕 당어른이 됐다 말이여. 당어른이 되니 옛날 재산이 그대로 심은 생활해봄이 수월텐디. 아, 거 재산은 그만 뭘 내려가 불고 자긴 홀어명 아들이고 헤노니깐이 이웃들은 완. 새해조배들을 안 헌다 말이여. 이상하게 안 해도 줄데주게 뭘 문제라기 줄데라. 경허니 멀찍이 가서 혼 심 킬로 혼 대참 넘어가서, 넘어강 그자 아무 말도 하든 아무 아무집이에 혼 대도 알 아직함 알암 알긴 알테주 멀리가도 경허니 경 멀리가네 혼 집에 들어강. 아

이서 아흔을 살은 아무이 손자우다 영허니, 아 그거 옛날부터 테고가 아니고 잘 사는 집이라 “어이구 어떻게 영 와서?” 허난, “그게 아니구 원 고르면 죄송헌 말이주마는 나가 당어른 되고 나가 홀어명 아들이우다라고 경헌 때문에 어디 원 잠 고를 사람도 없고 경헌 때문에 날루 그렌된수다, 어디 당원된 열러잇건 새각시나 구해 줘서” 하니깐 영 헤노난 아무집이 딸 큰 딸 거 당원돼서, 가이 가이 흑 줄때사 영허난 이제 그 소개 헤줍써도 아니고 기냥 자기냥으로 가서 자기냥으로 간 그 집에 찾아간 그 누구집이엔 들은게 나난 거 “아무댁이과” 하노네 “응 어 어디서 머슴 완” 간 코가 납작히 절하고 “나 아무만 살아 아무집이 손자우다 어허 어떻게영 어떻게 어떻게 왕?” “그게 아니고 내가 참 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강 과부 아들인디 여기 별루 그럴 사람도 업고 나냥으로 데김 밖에 허 수 업다고” 해서 댁에 당원된 딸님이 잇다 허니깐이 허흔 헤 줄수 업을가 영 생각해 보단, 아 거 처음 고른 일이고 좀 명예잇는 집안이고, 처음에 할만한 사돈을 안허면 다음엔 적당한 사름 만나기 어렵는 것이니깐에 “아이고 경허주. 이거 쳇 혼사 처음으로 나들은 말인디 거 쳇 쳇 말인디 거 거역 헐 수 어서 경헌 노추” “경허면 고맙습니다” 하명 이젠 사주 보러 오란 사주는 안 보고 택일하고 현 잔치 한 사흘안쯤 되난 어떻게 준비가 되수가 인사도 허고 또 새색시라 허는 사람 꼬락지를 못봐 새각시는 꿈보주게. 하아 새각시 얼굴을 어글지 못봐. 경헌 헐 만 하니깐 쥐실 테주 경헌 잔칫날도 뭇 가마속에 들어 앓아 저 장옷테영 미영 머리에 특 써 붙은 무신 얼굴봐져. 그럼 얼굴 못봐 경헌 집에 데려가네 식사 헐 땐 장옷 영 거더내 밥 먹을 땐 새서방 친구들이 보파리 영 봐에 새서방 알아듣젠 알고란 속은치냥 입 속으로만 “아이고 저런 새각시랜 데려 와시냐고” 경헌 소리 귀에 들런. 에이구 낮 봐두든 지 생각으로 내일랑 데려당 돌아 가불주 경 생각했단 말이여. 경 생각헐 기들누거에 이서 얼굴을 안 비추언. 경헌 놀단 이젠 모딱 기분 후제 “새서방님이 가네 야 이 무적눈에 잠이드나 무신 얼굴에 잠이드나 무슨 염체에 잠이드나” 경헌 새각시가 허는 말이 “이 야밤 중에 생긴 놈아 얼굴아서 얼굴았나 굶고파서 구졌느냐 이 말소리도 잔밀행라 영 장사 소리도 잠이

드라. 너 눈이 산에 간 화목 잘해난 방 잘테니 ㄷ뚝뚝으로 잠 잘든다” 이거야 아 이거 얼굴은 영혜 짱 속은 밴드랑케 말을 참 그럴 듯이 곧다 말이여 대답 못허게 고라 대단 말이여 ‘하 요거 속은 지 평랑케 요망 진게’라고 이젠 들라 불켄 허다 들라 불 생각은 이제 안 난다 잇는다 “잔칫집에 가사네 좀 부성치 해서야 험다”고 하난 “하랑허면 허주” 경험 뒷 날은 경험 가네 거기 잔칫집에서 그만두나 먹언송 말아송 흐명 영 보난 계집아이 두 아이가 상바람에 상 차려다보니 막 그냥 짬방이라 상 열 개면 열 개가 각각이 불개서 밥, 국, 무신 케젓, 김치 젓이니 장쪽이 뭇 그리 그리 저래 그리 저래 뭇 딱 혼가지 같지 않험 각각 이라서. 계난 요사름 이젠 밥 먹는체 마는체 허란 확 일어남 그 상 차려거 차레로 마딱 열이면 열 상 구짝 같으게 시리. 웅 구짝 같으게서 는 영 봐 웃어른 신디로 전역을 상을 노니 뒷에 구석으로 산 “하이구 얼굴은 정해도 하는 저이 뭇 혜대는 것은 잘 허기라 상도 착착 내놓고” 이젠 지네가 막 칭찬 허느니라 칭찬하는기라. 계난 혼 낮이 기울어 가니깐이 밥 거르는 할망이 “아이구 잔치꾼은 하고 밥 조그켜 밥 조그켜” 계난 “밥 조그짓 흐면 날 줍서 날 거리져 다 그 시켜야” 아 이젠 말아거리블라 말으나냉넝 “밥은 잔치밥은 이거 그릇 가득 거려 안 됩니다. 그릇 가득해 거리면 먹다 뱀기든 쓰레기통에 대겨 볼 수도, 땃기땀 어덜 갑니까 도새기도 잡아 불고 개도 어신 모냥이고 들어났다 내블은 동네 사람 욱하고 나직나직 걸려 가는게 이추록 허여 거르지 않은라게” 계난 나직나직 거리는 다 먹게주게 조그만씩 거르문 다 먹던 먹언. 이젠 잔치 해가 서리 비슷허난 잔치 총각 다 잔치꾼들 다 왓수다 하가네 밥이 영 혼 가득이 남는기라. 하 계난 그 남은 밥을 이젠 그 병상에 모딱 모여 수 들을렌 이젠 가는 잔치 먹거렌 잔치허고 이젠 그 때 이젠 설거지 모딱험 그릇 같은거 막 씻으고험 정리해 두고 “이제 저 해가 어두운 따문에 날 집 갔다 벨랑 오랑으넝 이거 정리 허쿠다” 허난 계난 저 경 간게 들어서건 뭇 방마다 뭇 청소허고 빈 항아리 이시난, 옛날에 뭇 허벅에 물 길어다 항들에 비와서 그 물 걸렁 무신거들을 험. 계난 항 뒷방에 모딱 물 비워 제가 비우고 나네 젼 당상 하루방이 “그 새소남 모르고 너 아우가 이럴

라고” 그런 경헨 저 곳으로 완에 “너 참 색시 혼난 데킨 마슴 시원허니 좋은 걸 구해왔져. 어 참 착실허게 일 잘헤시난” 게난 경헨 이젠 잔치 먹어서도 다 행진 거 갑수다 형명 이제 집에 와네, 혼 보름 말이에 잇는 친정에 이젠 두각 시가 가시니깐이 시어명이 영 처제들이영 이젠 마당들에 나오명 처부영 처 무영 마음이랑 명 “아이고 우리 사위” 허고허명 “아무 서방 아이고 고맙게 잘 오랏구나 잘도 왔구나” 막 칭찬 허는 기라. 허네 자 막 참 받아주는 거라. 게난 들어강 이젠 되받고 그날 저못 제사 끝엔 어명이 딸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 시집 강보난 어떠헌 어땡 어땡헌대 허니” 허난 “아이구 어머니도 들께 세움까 날 같은 년 데려 가는 집이 들께 세움까 보잘게임 세움까” 하 게난 어명이 “아이고 섭섭하게오나, 아 무신거 황당했구나” 이엔 어명이영 아방 그날 스뭇히 일어나기를 “저 같은 사위 살려 줘사주 어땡혀 살려 줘사주” 경 허주게 돌아서 갈 땡 암체 두 마리 암말 두 마리. 게헨 님말해주고 밧 좋은 밧 천 평 문서에 해주고 경헨 주명 “이 밧 버스렁 먹으명 이 세 말만 잘 먹영 사른 너네 살아 듯 만다” 경허니 사아듯만허니 그 말 가져강 뒷 뜰에 또 뒷 에 붙영 새끼 네 마리가 해마다 새끼를 아니 새끼를 평평 낳단 말이여. 낳니 만이 앙 부자가 되가니깐이 동네 사람들 무신 곰보 영 무신거 나와 불렌 한 거지 사모님 사모님 허명 막 그 사람은 잘살았다고

12) 사람 흘리는 도깨비불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양순이(여, 1931년생, 양띠)

요약 : 도체비는 물똥덩이 같은 불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였다. 남제주군 쪽에 좁은 길에서는 도체비 불이 자주 나타나 사람을 흘리기도 하고 허깨비가 나타났다고 한다.

아이구 도체비사게 그 무섭주게. 도체비가 처업에 그 영 뭉뚱당이 같은 걸로 불 하나 땀다가 짝 퍼져가지고, 퍼져가지고 그걸 뺏싸그네 뭉뚱당이 닳은 거가 거이 유리라 깨어보든, 도체비 뺏쌩보든 그거게.

<조사자 : 뭉뚱마심?>

뭉뚱당이. 뭉뚱당이에 깨어보든 그 저 뭐 유리하고 뭉뚱당이라고 그거 처업에 영 헤 가지고 도체비 땀당. 땀그네 처업엔 불 하나로 땀다가 짝 벌어져 영 짝(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벌어져그네, 사름 흘리고 또 그 허깨비 나그네 사름 헛 말 고르멍 사름 흘려그네 막 어디라도 흘령 가불고

<조사자 : 그런 일이 실제 잇어나수가?>

아 게 이 남제주 쪽에도 경 헤 낮어 남제주 쪽에 옛날에는 남제주 질이 없어가지고 소릿길⁷⁸⁾로 살안. 옛날에는 시에 2라, “성안 성안” 하지 옛말로 옛말로 저 할망 하르방들 성안 가노라고 하면서, 그 질로 가다가 그 저 막 허깨비 나가지고 흘령 막 꼭 처녀로 나오라그네. 흘령 할망도 막 어디로 곳영 가불고 막 밤 중에 질리워그네 할망 하르방도 막 질리워 며칠동안 질리고 질리다그네 다시 여기 쫓앙 돌아오고

13) 강아지 따라 저승 갔다 온 처녀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양순이(여, 1931년생, 양띠)

요약 : 서귀포에 사는 처녀가 죽었다가 하얀 강아지를 쫓아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물에 떨어졌다. 물에 떨어져서 깨어나 보니 첫 번째 문에서는 곳을 하고, 두 번째 문에서는 산신이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세 번째 물을 가니 불공드리는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고 있었다. 다

78) 소릿길 : 소로(小路).

시 강아지를 따라 물에 빠져 살아서 나왔다고 한다.

저기에 서귀포 여자 어른 인디에. 그 어른이 그 분이 혼 팔십 몇 일건다. 그 어른이 옛날에 죽어나고렌 허는 말을 곧는 걸 자기냥으로 자기 죽어나고렌. 죽어네 혼 며칠 죽엇당. 오 깨어나지 안 허네 살앗는다. 하양훈 강아지가, 하양훈 강아지가 이 강아지 조름⁷⁹⁾에만 쪼차가문 살아진덴. 꿈에, 그 강아지 조름에만 쪼창 그 강아지가 물드레 떨어져네, 떨어지난 이녀이 깨낭 살아나 신디. 죽은체 저승에 가고난에 첫 문을 들어강 보난에 막 인정⁸⁰⁾허고 제주도 사름은, 그 곳 허는거 선생님 압니까?

<조사자 : 예 인정허는거 굿하는 거 마심.>

그 굿허고 인정짓고 경 막 험꼬, 굿허고 살려줍센 인정짓고마 험꼬, 두 번째 문을 들어 들어가보나네, 하양훈 산신 하르방이 산신 할아버지 이거렌 얘 기 허는디 그 어른 곧는 말이, 산신 하르방이 허는 말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났다고 너는 올 때가 안 났다고 돌아가라고 세 번째 문에 가보나네, 세 번째도 들어가보나네. 불공허는디 들어가져렌 마썸. 불공을 막 스님들 들이는 그저 저,

<조사자 : 바라춤마심?>

아 맞아. 바라춤, 바라춤 추면서 막 바라춤 추는 디를 들어가는데, 따시 나 왕 강아지 조름에 오다네, 강아지가 물들에 털어지난. “참박(물에 떨어지는 소리)” 허게 털어지넨. 이제 살고 경현 역사를 들어서마심. 여자 어른인디 그 어른이 살아시문 혼 팔십 뉘는디예. 그 어른이 혼 며칠 죽영 며칠 이녀네 부모 말이, 혼 숨일 동안 숨도 아니쉬고 문 죽어네 죽은 걸로 무시거허난. 영 가슴에 손 데민 가슴을 따뜻하고 숨도 안 쉬고 무시거 허난에. 막 죽은 걸로 알아네. 오늘꺼정만 기다리고 이제 막 그 여기 제주도 사름은 죽으문에 영 오그라지카부덴 막 묵음니께 묵으는거 알지에 선생님은예? 경 혜연에 문 다

79) 조름: 꿈무니. 뒤.

80) 인정(人情): 신(神)에게 바치는 모든 재화의 총칭.

준비도 뒤편 했다. 숨 일찌 날은 강아지 앞 조름에 오당 물에 떨어질 때에 지가 깜짝 혜연에 “하악(크게 숨뱐는 소리)” 헤가그네 경행 허난에. 또 부모 네가 경 굴는거 보난에 이제 저승을 경해도 저디강 보난 어디 어떻헌거 이제 다 보였다는디 흐끔씩 흐끔씩 그 어른 막 들음직허게 고릅디다.

14) 콩데기 풋데기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양순이(여, 1931년생, 양띠)

요약 : 새 어머이 전 부인의 자식인 콩데기를 미워하여 터진 항아리에 물을 길어두라고 시켰다. 콩데기가 항아리가 터진 줄 모르고 물을 채우려 하자 까마귀가 “구렁질라”라고 하여 송진으로 항아리를 막아 물을 채울 수 있었고 곡식의 껍질을 까는 것도 새가 와서 도와주었다.

콩데기 풋데기렌 현 건 웨손지나 웨손지허고 증손지허고 업어그네이 업영. 애기가이 웨손지는 업고 웨손잔 업고, 성손지는 걸렁가지고 혼저걸으라 업은 애기 발 실리웁져 웨손지는 업어가지고 엔날 할망은 딸만 귀해서 웨손지는 업고 증손지는 걸렁가지고 업어그네 걸으명 증손지더레, “혼저 걸으라 업은 애기 발 실리웁져” 그 추룩허고 콩데기 풋데기 어멍헤영 풋데기 콩데기 험시나허면, 웨손지는 맛있는 풋죽만 썩 멕이난 삐작말란 아들 손지는 미우니까, 아들 손지는 미우니까 콩죽만 썩 먹은 이 애기는 콩죽만 멕이난, 흥알흥알 막 술지고 경 막 헤가지고 엔날에 웨손지 증손지 차별 헤가지고 엔날 할망들은 경 헛주게. 엔날에 할망이 큰어명 죽은 어멍 잇이든 큰어명 난 애기 죽은어명 난 애기 잇지 안웁니까예. 큰어명 난 애기 내비두고 저 집에서 물 길어다그네 밋 터진 항에 물 길러당노렌 데려다 노코 하렌. 피 엔날에 피 게어그네 그거와 이제 굴아두고 헤그네 방에 내리곡 헤그네게 그레오렌. 이

넉넉한 딸 데리고 가브난 딸은 물허벅에 물 길어다그네 비워뒀 강 오랑보민 비워뒀 오랑보민 그것이 세어볼곡 허난. 가마귀가 나무 우에 까옥까옥 허멍 “구렁질라 구렁질라”허영, 구렁질라가 무신 말인고 이젠 항아리 영 주위엔 보나네 밋 터진 항이난에 옛날에 송진소나무, 송진 해당에 구렁지난에 물도 혼냥 질어노코 경허난 검은 쉹이가 오라네, 쉹이가 오라네 그 띠 잇는건 후 딱 똑똑똑똑하게 까난 딸 해연에 그것도 몬 까지고 경허난 이녀네 죽어븐 어멍은 오란에 뽕그랑이 옷 입고 오란에, 옷 입지고 머리 무시거 옛날 이녀 애기 딸은게 오죽 머리 허꺼지게끔 살앗우가게. 게난 그 머리 몬 다와네 다 와네 뽕룩하게 이녀네 어멍이영 어멍 난 딸이영 이젠 그래 가시난 아이고 언 니 어뎡헿 오셔수가.

<조사자 : 아>

옛날엔 죽은 새를 경도 하고, 머느리를 시원치 안헿 머느리 난 애기를 걸리고 딸 난 애기를 업어 그네. 옛날엔 그추룩 헿주.

15) 고종달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두선(남, 1931년생, 양띠)

요약 : 육지에서 고종달이라는 사람이 한라산이 유명한 제주도에 왔다가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종달리를 꽤 씩하게 여겨 물혈을 모두 끊으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농부에게 고종달이 이 동네 행깃물이 어디있냐고 묻자 농부는 이 동네에는 행깃물이 없다고 하여 고종달이 토산 땅의 행깃물은 혈을 못 끊었고 아직도 토산땅에는 물이 나고 절도 지어졌다.

육지서 그 고종달이라고 헿 사람이 이름이 고씨고 저 뭐 성은 고씨고 이름은 종달이라 그것은 헿 신앙이라. 요즘 그트른 철학 박사. 게난 제주도가 지

금 2치 엔날도 섬이고 한라산이 유명하지이.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하니까 섬이라도 유명한 곳이니까 그 유적지가 많으니까 온겨여. 뭐여 답사를 헐라고 그 지리를 답사 헐라고 이게 어떻게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나. 그 철학 박사. 요즘 철학박사 여가 아니여. 그래서 왔는데 어디 저 뭐이나 성산읍 성산면 그 저 어딘가 종달리라고 헌디가 있어. 종달리 마을이 게난 그 별로 포구도 옛날에 큰 디가 없으니까 죽은 어선 호끔 뭐 막 돛대라서 왔을꺼여 아마 와서 거기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이 부락이 무슨 부락이냐고 하니깐. 여기 종달이라고 헌단 말이여 종달이라고, 아 종달이는 내가 내 이름이 종달인데, 듣기에 거 내가 경해도 육지에서는 알아주는 사름인데 내 이름을 함부로 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고약하다고 경해서 그 저 뭐이가 혈을 땀어. 물을 어숫⁸¹⁾이영 관음사 갓당 생수 나쁜 그 물 떠다가지고 절을 지었거든 엔날은 물은. 그 물을 아무디나 그 물이 요즘이야 수돗물이시니까 지하수에서 올리지만 엔날은 어디 산골짜기나 어디서 그저 생수를 땅에서 솟아난 물을 깨끗한 물을 절을 그런 물을 따라서 절물도 잊지안하여 그디도 그 물이 있으니까 절을 지은겨여. 관음사도 마찬가지로. 땅으로 물이 나오면 그 땅으로 물을 이용할라고 절을 그래서 지은겨여. 게서 그러니까 그저 물 나는데를 전부 혈을 떠붙었어. 물 못나게 자기 이름 따라했다고 꽤쌌하다고 해서. 그래서 차츰차츰 성산읍 표선으로 흐르는데 표선면 요기가면 요 내(川)가 하천이 있는데. 그 쪽으로 저 쪽에는 표선면이고 이 쪽에는 남원면이라. 게서 거기까지 그저 넓은 농토가 있어 농장. 요즘식으로 농장. 엔날은 그저 수로 밭 갈아 가지고 이제 저 뭐 조도 같고 콩도 같고 메밀도 같고 허는디 큰 농장에서 농부가 밭을 갈았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조금 쉬었는가. 어떻했는가 하니까, 어떤 모르는 분이 와가 여기 고부락 마을에 표선 저 표선면 토산리에 고부락 마을에 행것물이 어디냐고 하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 고종달이런 헌 사름이 농부 보고 물으니까 그 저 뭐인가 농부는 밭가는 농부는 췌질메⁸²⁾라고 아는지 물

81) 어숫: 어승생 악.

82) 췌질메: 소의 등에 있는 길마.

금 2치 엔날도 섬이고 한라산이 유명하지이.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허니까 섬이라도 유명한 곳이니까 그 유적지가 많으니까 온거여. 뒤여 답사를 헐라고 그 지리를 답사 헐라고 이게 어떻게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나. 그 철학 박사. 요즘 철학박사 여가 아니여. 그래서 왔는데 어디 저 뭐이나 성산읍 성산면 그 저 어딘가 종달리라고 헌디가 있어. 종달리 마을이 게난 그 별로 포구도 옛날에 큰 디가 없으니까 죽은 어선 호품 뭐 막 돛대라서 왔을꺼여 아마 와서 거기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이 부락이 무슨 부락이냐고 하니깐. 여기 종달이라고 헌단 말이여 종달이라고, 아 종달이는 내가 내 이름이 종달인데, 듣기에 거 내가 경해도 육지에서는 알아주는 사름인데 내 이름을 함부로 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고약하다고 경해서 그 저 뭐이가 헐을 떼어. 물을 어숫⁸¹⁾이영 관음사 갓당 생수 나쁜 그 물 떠다가지고 절을 지었거든 엔날은 물은. 그 물을 아무디나 그 물이 요즘이야 수돗물이시니까 지하수에서 올리지만 엔날은 어디 산골짜기나 어디서 그 저 생수를 땅에서 솟아난 물을 깨끗한 물을 절을 그런 물을 따라서 절물도 잊지안허여 그디도 그 물이 있으니까 절을 지은거여. 관음사도 마찬가지로. 땅으로 물이 나오면 그 땅으로 물을 이용 할라고 절을 그래서 지은거여. 게서 그러니까 그 저 물 나는데를 전부 헐을 떠벌었어. 물 못나게 자기 이름 떠라했다고 꽤쌌다고 해서. 그래서 차츰차츰 성산읍 표선으로 흐르는데 표선면 요기가면 요 내(川)가 하천이 잇는다. 그 쪽으로 저 쪽에는 표선면이고 이 쪽에는 남원면이라. 게서 거기까지 그 저 넓은 농토가 있어 농장. 요즘식으로 농장. 엔날은 그 저 수로 밭 갈아 가지고 이제 저 뭐 조도 같고 콩도 같고 메밀도 같고 허는디 큰 농장에서 농부가 밭을 갈았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조금 쉬었는가. 어떻했는가 하니까, 어떤 모르는 분이 와가 여기 고부락 마을에 표선 저 표선면 토산리에 고부락 마을에 행깃물이 어디냐고 허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 고종달이렌 헌 사름이 농부 보고 물으니까 그 저 뭐인가 농부는 밭가는 농부는 쉼질메⁸²⁾라고 이는지 물

81) 어숫: 어승생 약.

82) 쉼질메: 소의 등에 얹는 길마.

라. 모를거여. 아마 우리, 저도 훗 뭐인가 훗 수십 년 전에는 잇엇는다. 아마
 요새 서른 즈께도 잘 모를거여 쉼질매 몰라? 모르지 낭으로 이렇게 영 꼬부
 라진 낭 이렇게 선 거 잇어(손목을 굽혀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꼬부
 라진 낭을 이제 해 가지고 이제 몰 낭 영이지 몰 낭 영 이영 세워가지고
 사름타잡아. 그 비슷헌거여. 그 모양을 해서 엔날 조상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만든거여. 만들어가지고 쉼 우에 언저가지고 이제 이제 저 가슴으로 다리 사
 이로 해가지고 올랑 메가지고 이제 그 저 심도 실르곡 밧에 갈 때도 쟁기로
 간 거지. 게서 그걸 그 그 저 쉼질매에 쟁기를 실어가지고 가서 이제 질매를
 부러보고 잇는데 아마 더우니까 그 농부는 그 쉼질매 밧에 뭐인가 식기로 우
 리 말로 몰대지 그 걸로 그걸로 이제 쉼질매 밧에 영 물 담아 영 이렇게 낚서
 먹으려고 그니까 쉼질매는 뭐술 무슨 나무렌 허난 꼬부라진 풍낭이라 풍낭
 을 베여가지고 만든거여. 게난 풍낭 2튼 건 엔날엔. 영 생겼어여(손을 굽혀
 보여주면서). 게서 이제 그 사름이 갑자기 생각하기를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밧에 쉼질매를 이렇게 부러놔지. 밧 갈 때는 쉼랑 밧 갈고 이제 갈 때 올
 때만 그걸 저 도구용으로 이제 실르고 요즘 같으면 싣고 갖다 갖다 허는 거
 니까. 게니까 해난 이제 그 사름이 생각하길, 아 이제 저 쉼질매 밧에 행기에
 물 담양 이렇게 이거 벧 안 맞으난 벧 맞으면 뜨거울꺼난 낚당 먹젠 허난.
 아 이제 꼬부라낭 행깃물이라고 그 물, 그 저 마사희인가 어디 가민 물 놔정
 잇지 안해. 그 비슷헌거여 그 비슷헌거라. 그 쉼에 그걸 실러가지고 갈 때 농
 장이 멀은 지게에도 지는데 그 농부가 편리를, 편안헐려고 그자 쉼에 시르고
 가 쉼에. 경해서 이제 그 고종달이는 그 농부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우
 에 그 쉼질매이로 쟁 가가지고 그 밧에 그늘 해가지고 저 벧 쪼지 않게 먹으
 려고 그레놔서. 여기가 꼬부라낭 행깃물이라고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 마침 그게 어떻게 산디 그 쉼질매 밧에 행깃
 에 물을 담아서 벧을 쪼지 말게 밧 가다가 먹으려고 논거지마는 마침 그 기
 회를 다가가지고 그 꼬부라낭에 행깃물이 어디 잇느냐고 물으니까 그 쉼질
 매가 꼬부랑 낭이여 꼬부랑 풍낭이라. 이게 꼬부라낭 아래 행깃물이라. 이렇

게 됐던거라 거니까 그 종달은 그 이상허다 뭐인가 그 학생모양 그 노트에 적영 와서(조사자의 필기구를 가르키며) 고종달이가 어디가든 무슨 뭐 있고 뭐 있고 적영 와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고부락 아래 행깃물 그거니깐 농부는 내가 여기 이 부락에 여기 이 동네에 몇 십 년을 살았는데 이 고부락낭 행깃물 이런 말밖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게난 고종달이는 이상허다 해서 아 이거 문쇄가 문쇄가 잘못됐다고 이거 책에 문쇄가 잘못됐다고 경해서 이거 다지워 부러어. 경해서 이 글로 적영완 물나는 데가 많주 지금도 물이 나고 토산에 물이 나고 거기 절도 지어졌어.

<조사자 : 예>

16) 펠롱 도깨비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신흥2리 마을 게이트볼 장

제보자 : 김경보(남, 1939년생, 토끼띠)

요약 : 펠롱 펠롱하며 밤에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며 펠롱 도깨비라고 한다.

달에서 착 달 빛에 반짝반짝 허게허면은 저런 나무 우로 짝 가는거 달단말이여. 그래 그것을 도깨비라고 해. 반사 된거 펠롱 도깨비가 이서, 펠롱 도깨비. 펠롱하게 날아다니는 그 똥 벌어진데 그 똥벌어지에서 나온건데 그것도 일종의 펠롱도깨비라고 하지. 펠롱 펠롱 펠롱 펠롱 펠롱하게 밤에 오일장 밭에 안개가 복삭끼고 똑 이실 때 그렇게 한거라. 게난 그 펠롱 도깨비 그 거시기가 모양이 뭐냐며는 땅버러지 모양으로 돼고이, 몸뎡이는 꺼믄데, 몸뎡이는 꺼며. 몸뎡이는 꺼믄데 꼭 풍뎡이 저 무신거 잇잖여 풀리 풀리 쪽에 요만한 펠롱이여. 요것이 착 놀민 놀 때마다 풀랑지가 아짝 퍼진 펠롱 펠롱(손을 오므렸다가 퍼며)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펠롱펠롱 한다고

<조사자 : 아, 그 모양을 보고 필통 도깨비렌 허는거구나예>
 계난 그 반사가 이렇게 출라출라 다니며는 그것이 반사돼가지고 밤에 오
 월 장마 때 이런 때는 잘 없어. 밤에 오월 장마 때에 이렇게 산 저 나무가 많
 고 우거진 속에 그런 것이 펠롱펠롱하명 따라다니지.

17) 힘센 당뚝 하르방 1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신흥2리 마을 게이트볼 장

제보자 : 김경보(남, 1939년생, 토끼띠)

요약 : 힘이 센 당뚝 하르방이 소를 빌려서 나무를 하면 너무 많이 해와서
 사람들이 소를 안 빌려주었다. 당뚝 하르방은 자기가 한 나무를 지게에 지고
 오다가 마을의 담을 모두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부터 당
 뚝 하르방에게 소를 빌려 주었다.

힘센 당뚝 하르방이렌 하는 하르방이 어떤 하르방이나면, 힘이 장사라.

<조사자 : 힘이 장사>

그러니까 초가집 서리가 마흔 여덟 개지, 마흔 여덟개.

<조사자 : 초가집이 마흔 여덟 개>

응, 서리⁸³⁾ 서리리는 게 요만이 집 우, 저 뭐 차 덮으는 거 우인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 하르방이 힘이 워낙 세니까 거기 고수동이라는디 살아났는
 데. 그 하르방이 이제 뭐 저 쉼들을 빌려서, 모쉬⁸⁴⁾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그
 지 나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아무도 안 빌린단 말이야. 거니까 그 사람 그 하
 르방이 이젠 자기대로 지영오면서 상토산으로 부락으로 짝 걸어오면서 막
 담을 다 헛사버렸단 말이야. 하이고, 다음부터는 이젠 그 하르방이 짝 곤기를

83) 서리 : 서까래.

84) 모쉬 : 마소(馬牛).

그러니깐 동병사람들이 하이고 내일부터는 우리 쉼당으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헤가지고 그 하르방네 지금 고수동 가면 담 다온 거 이 닳은 돌을 기냥 툽툽 들러노앙. 담으로 다 와헤놔넌

<조사자 : 그 하르방이?>

응, 그레 엔날에.

<조사자 : 아이고, 막 힘이 셋구나예.>

당뽕 하르방이라고 최고 힘센 사름.

<조사자 : 당뽕하르방? 그게 무슨 뜻 마심? 당뽕은?>

당뽕이라는게 그 뽕 이름.

18) 콩데기 풀데기 2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첫째 어머이 난 딸은 콩데기이고 둘째 어머이 난 딸은 풀데기이다. 첫째 어머이 죽자 둘째 어머은 콩데기가 미워서 콩만 주고 자기 딸에게는 팔만 주었다. 어느날 동네에서 굶을 하는데 멍석에 곡식을 깔아 쌀을 골라 놓으라고 한다. 콩데기가 울면서 앉아있자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 콩데기를 도와주고 터진 항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에는 까마귀가 날아와 도와준다.

옛날에 딸 하나난디 큰 엄마가 돌아가셔브난 다시 또 둘째 어머을 헤도다 둘째 어머 딸 하나는

<조사자 : 아>

둘째어머도 왕 또시 딸을 낳거든 그러니까 둘째어머이 좀 그 몬저난 딸을 미워 가지고 자기 난 딸은 막 사랑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이~쌀이 엇어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엇주. 죽이나 쉼 먹고 이렇게 하니깐 음~ 거기 몬저 큰어머

의 딸은 미워가지고 콩죽만 썰 주고 당분간은 저 팻죽이 맛은 좋거든. 경 자
기난 딸은 팻죽만 썰주고 경허난 이제 팻죽만 먹은 아인 팻데기, 콩죽만 먹
은 아인 콩데기 이렇게 헛거든.

<조사자 : 아>

게니간 성을 콩데기고 아시는 팻데기라 게난 이젠 그 팻데기보고 팻데기
를 업언 동네 굿 허니간. 니 굿 알아지느냐? 무당 행 허는 거

<조사자 : 아>

응 그 곳 보래 가명 콩데기보고 이 마당에 멍석에 나뭇을 싹 하게 넣어동
가명 이걸 다 쏘로 까라고 그렇게 해돈 가브난 아이 막 울명. 아이구 이걸
어떻게 쏘로 다 까리 허노렌 허난 새가 하늘에서 폭삭내런 멍석에 속박아잔.
막 “독독독독독” 입으로 막 새를 쏘을 좇으니간 그만 먹어브렁시카브덴 콩
데기는 아이구 요 새야 요 새야 다 먹어불지 말라. 우리 다슴어멍 오른 나
거다 쓸까는 렌 헌건디 날 두드린다. 요 새야 요 새야 그만 먹어라. 허멍. 새
두리는 소리 ‘후~주~’ 허니간 새는 뜨르릉 허게 느난 채가 그자 꼭석체가
딱석하고 영 보니간 쏘 하나씩 까진 것도 있고 허연. 아 경행 거 이상허다
허노렌허난 조꿈이시난 또 새가 완 그 멍석에 폭삭 앓안. 막 독독독독독 까
난. 이구 요 새야 요 새야 쏘 다 먹어불지 말라. 우리 다슴어멍오른 나 육헌
다. 허멍 새 다올려 불므로 후따~쥬야. 허나넨 사가 팔하게 나나네 이젠 또
새가 박삭하고 쏘만 스랑 헛거든 게난 그제 너미 불쌍허니간 하늘에서 새를
내려와서 그 쏘를 까준거야 그렇게 하니간 어멍은 물로 쏘는 가이가 못 까실
거난 쏘 안쫓다고 때리주 완보니간 쏘를 스락하게 까노니월 이젠 아이구 이
상허다 허멍 또 어떤 괴로운 일을 시키 헤 네 이젠 따시 뒷날을 또 그리 굿보
레 가명 항 굽 하아리 굽에 고망 돌라가지고 이 항에 물을 2디기라 나 온때
에. 물을 2디기라 이젠 콩데기는 물을 질어당 항에 영 비우은 항에 물이 있
어. 또 강 물 길어왕 비울때 또 물이 없어 구멍 나브난 물이 없어 하 길어와
봐도 물이 어시는 막 은당보난 이젠 오래에 주옥 낭에 가마귀가 올망 앓안
‘구렁지라 구렁질라’ 허난 저게 뉘 뜻인고 허연 뒷칩이 할망선티 강 아이고

우리 다슴어명은 팻테기 도랑 굿 보레 가명 날 고라 항에 물 고드기렌 헌디
 질어당 낱 보른 비운때는 물은 잇고 강 또 질어와 보른 물은 잇고 양. 가마귀
 는 저 우리 주옥낭에 앓안 구렁 질라 구렁 질라 험수다 거 무슨 뜻잇파 허난
 뒷 칩이 할망은 구렁지랄게. 그저 경허명 항아리 벌러진 조각 요만이 헌리주
 영 봉가당 주명 이거 그 궁글이레 강 득 허게 놔그네 초로 이렇게 허영 불이
 라 그러면 그것이 구랑냐? 게난 그 가마귀. 구렁질렌헌거 그 구렁질렌헌거
 막앙 그 뒷노라 헌거야냐. 허난 이젠 가정 와네 그 가이는 굽 터진 줄도 몰랐
 어 경헌디 그렇게 허난 보난 고망이 나시난 그레 그 주재기를 놓코 이제 초
 로 굳엇어 굳으난 물 지어다 노른 경가미 강 와도 또 잇고 허난 어이 항이
 고득아 불엇어 경허난 가마귀도 하늘님에서 도와준거라

<조사자 : 아>

그래서 물도 고득이니까 어명은 와서 터진 항이니까 물은 못 질언 못 고득
 앓을게여 왕 보니까 물도 고득앙. 그 앞 날엔 쌀로 다 까봐. 이러니까 아~ 이
 거 이상허다 해서 이제 원 이아이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인디 그 그 꼬지만
 해서 그 콩데기는 아주 그 정승의 집이 정승이라고 허른 이제 곳으믄이 뭐
 국회의원급 그런 집이 그런 집 안에 시집을 가고 얹전하다 한 소문이 나브난
 그런 집안에 시집가고 팻테기는 팻만 먹으난 영양실조 걸렁 배짜 말랑죽어
 불엇어 그렇게 뻗다고

<조사자 : 경허난 착하게 살아야 크라>

19) 못 된 새 어명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새 어명이 전 부인의 자식이 미워서 쥐를 죽여 딸의 이불 속에 묻어
 두었다가 남편에게 처녀인 딸이 아기를 낳았다며 거짓말을 한다. 딸을 오해한

아버지는 딸의 왼팔을 잘라버리지만 착한 딸을 하늘이 도와 딸은 팔을 되찾고 행복하게 산다.

또 한가지 또 이제 또 어머님이 죽어 분디 새 어머님을 헤오난 딸 하나 못놓고 딸 하나만 잇는 집

<조사자 : 하나만 잇는 집>

허긴 영 헤도 아방은 딸을 사랑하는 디 이제 어머님이 그 아방 눈치모르게 가를 막 미웁 죽여불구자 헤영 경하난 아방은 그때 대감이라서 대감이라 부나네 조금 영 지장에 올르는데 계난 이제 쥐, 쥐새끼를 이제 그 껍데기 털을 배겨 가지고 물 살짝 데워 담그면 털이 내밀이 베겨든 이제 그 조금 털을 내어 피를 내어오난 딸 어디 딸은 아방 대감 어디에 공부하래 서당에 보낼때에 딸 이불에 강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 쥐새끼를 그 이불 속에 묻었다가 묻었다가 그 대감 보고 아 그 저 딸이 나가본 시간에 나가본 딸 막 딸을 헐렁하는 느낌 딸자리를 취웁 딸 방을 청소해 주겠다고 대감보고 계난 대감이 아 고맙다고 이불을 확 털떠트리난 쥐새끼가 털어지고 이불에 피 발라진거 아니

<조사자 : 아>

아이고 거름도 비웁 석지근한다 그렇게 함운 경하난 이젠 그 어머님은 아이고 투투(침뱃는 표현) 더러왕 양반 집이 이런 딸을 낳다고 자기가 어떤 딸이 남자 친구를 헤 와가지고 임신이 돼서 그렇게 지웠다고 씩운거라. 그렇게 이 양반집이 이런 일이 잇는냐고 이런 딸을 집에 놔두거나고 막 대감보고 하나네 대감은 어이가 없어네 그 딸 와서난 영 하덴 들어보지도 안하고 그 죄가 너무 지서분 하넨 나 죽여불지는 못하고 나 팔 한쪽 그차줄거 그차줄거내 싸매여서 주거드랑 운수대로 어딘 강 상지믄 살고 죽어지믄 죽으라. 이 지케기 내어 나사주 저새끼 뇌양나가 창피해 못 살켜 경하난 예 아바님 원대로 합서 하나내 오른 팔을 영 내어오난 영 아방은 배려봐 오른 팔론 무시거 땅에 꺼라도 봉가 먹을 꺼난 왼팔로 내어노라 헨 왼팔을 내노난 딱 그차네

<조사자 : 아>

이제 탁 싸매여 나가라 헨 내 나 비여거든 이제 가단 가단 어디 가단 보나
네 큰 어워기 아즈막이 여워기 여워기 터기가 있는 여워기가 있어게

<조사자 : 그게 뭐꽈?>

술밭에 어워기라고 새 풀이 주게 풀

<조사자 : 아>

더해진거 그리 가그네 팔팔령 의지에 나잔 밧젠하난 그리 영 배리난 그 어
웁페기 쌍으로 물이 빈질 빈질 빈질하게 물이 나와서 그제 그 물을 영 헤그
네 애도 몰랐저게 그 팔도 영 헤어 잡아먹젠 영허여 먹으난 이 꿈에 왼쪽으
로 먹으라 햐여 눈을 영 떠보난 아무도 어서 그게 이상하다 헿 왼쪽으로 막
여기 막 아파도 영 심어내 웬쪽으로 영 먹으난 팔이 붙어부러서

<조사자 : 아>

이것도 하나님의 도혜라. 경혜낭 이제 팔만 가지면 내가 왜 못 사느냐 이
젠 산에 왈랐당 이제 민간에 내려와서 민간에 내려왕 막 배고프믄 호고 이제
놈의 그것이 아방네 배낭 발인가 어디 배낭 밧에 앉아 배낭밧이 가네 영 누
워시난 이제 배는 털어지믄 먹젠하난 툭 털어정 이제 뿔굴어 가불고 툭 털어
정 이제 뿔굴어 가불고 허난 이제 거기 그 아방이 그 배낭 돌아보래 와네 옛
날에 갓이라고 한 것 저 종이 신문 모양으로 연극 할 위는 커지고 아래는 쪽
아지는 거 머리에 쓰는 게 이서나서 아방 갓이 거기 이서 갓이라고 짓을 이
거 뉘젠 허건 이렇게 커진거란 요리 배가 툭 털어정 속으로 나지 않나겟냐고
그러니깐 그 배를 먹이네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고 이렇게 이렇게 헨 것도
있고 그러니깐 죄안 없으면 다 하늘에 살릴 수 잇는 거라

<조사자 : 착하게 살아야 겿구나에>

그래서 그 사람 잘 살았다구

20) 설문대 할망 2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육지 할망인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고 키가 아주 커서 한라산을 만들다가 조금씩 흘린 흙은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덩치가 매우 커서 아흔아홉 필 속옷을 입었다고 한다.

설문대 할망이 육지 육짓 할망이라 보렌 육진디 이 제주도에 오름 영아리니 붉은 오름이니 한라산이니 제주도에 오름이 그 설문대 할망이 저 제주 한라산을 만들언

<조사자 : 하하하~ 한라산을 만들언?>

한라산을 만들젠 그 어떠케사 커신디 육지 혼 가달 노코 제주 혼 가달 노코 이러케 이러케 벌겨사네 삼으로 육짓 흘글 한라산더레 맨들젠 가명 흘글 호꿈씩 털어진 것 조금 털어진건 죽은 산 크게 털어진건 큰 산 이러케해서 경헨 그 삼으로 그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었써.

<조사자 : 아~ 경헨 쪼그만 떨어진건 오름뉘고, 겐디 할머니 무사 한라산은 영 세워시민 산처럼 영 생겨야 돼살건디 무사 영 가운데가 영 파쳐신가마심?>

그거 겐 그 훑아사당으네 잘락잘락 비우당보든 거 카진디 이실꺼여 나 거 깨진 모르고~

<조사자 : 하하하 아이고 막 커신게 거 한라산 만들젠 허믈>

겐디 그 할망이 옷은 속옷을 아흔아홉 필을 들어넨 속옷을 헤노았쨌

<조사자 : 어 막 커부난>

응. 아흔아홉필 그건 속옷을 헛쨌~

<조사자 : 그 맹주 속옷이렌 하지 안옵니까?>

이 맹주던 배던 무명이던 그 할머니 속옷은 많이 들었덴. 아흔아홉 필을 들어야 속옷 하나 헤연 입었다

21) 남선비와 아덜 일곱 성제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남선비에게는 아들이 일곱 형제가 있었다. 새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려고 점쟁이로 변장하여 남선비를 속이고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아들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고 한다. 현명한 막내 아들은 돼지의 간을 내어서 새 어머니에게 주고, 마지막에 새 어머니의 자리를 치워주겠다고 하여 이불 밑을 보니 먹지 않은 간이 있었다. 이에 새 어머니는 측간에 목을 매어 죽고 남선비는 때문에 목을 매고 죽고 아들 일곱 형제는 모두 살았다.

남선비라 한 이름이 하르방 있는 거 아니냐 남선비도 이제 아들 일곱 성제를 나동 남선비 각시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니깐. 이제 또 새 어멍을 헤오난 새 어멍이 막 배아팍 저 아구 배야 아구 배야 아구 배야 허민 그 남선비는 옛날엔 이 저 산에 가그네 마 파다그네 먹었서 쏘이 죽으니깐

<조사자 : 마는 뭐파?>

마라고 이기도 이땅 마 밧티 흐나이나 있나 마는 이 저 감저 꺾추록 저 영 수랑흔거 이만씩 흐거 옛날엔 산에 강 그 쏘이 어시니까 그 마를 파다그네 먹언. 숲양 썰영 밥에도 막 먹고 푼죽쌈 먹어났젠 헤라 건 우리도 그건 안 먹어봤는디 우린 옷대가 먹은거라 경헤니까. 그 남선비는 산에 마 풀래 가불면 그 남선비 각시는 그자 놀당 남선비가 돌아가민 아이구 배야 아이구 배야 허민 남선비가 와서난 아이구 난 배 아팍 못가난 요 밧 너머그네 영 허영 요 쪽으로 강 보면 거기 치메 쓴 점쟁이 막 잘이는 점쟁이가 이시니깐 거기 가그네 나 점을 저 달라고 우리집이 사람이 막 배만 아프니깐 어떤 때문이파 허영 점을 저 오라고 남선비보고 그러면 일로 꾸짜가지 말고 요러케 영 돌아가렌 돌아가렌 헤동

<조사자 : 무사 돌아가렌헤신고?>

나 끈건 들어. 그 할망은 남선비보고 돌아가렌 해둥 그 할망은 치메 하나 가정가그네 확 거기강 써그네 거기 강 아쟝거든 남선비는 와시난 점 점수과 점쟁이 좃앙와수다 허난 예 어떤 일로 좃앙 읍디가 허나네 우리집이 마누라 가 매날 윈 아프고헤네 어떤 일고 아프는고 점쳐줍써 허나네 그 치메를 안 쓰면 얼굴을 볼 것 때문에 치메를 쓴거라 치메 쓴 점쟁이가 잇다 헤서

<조사자 : 치메가 뭐짜?>

치메 거 우리 할망들 입는 거 잇잖아. 치마, 거난 치메를 써야 남선비가 자기 얼굴을 모를꺼야나 치메 영 가져강 영 허리 딱 묵언 점을 쳐 줘센 허난 이젠 영영영영 허다네 아이구 이 병은 아들 일곱 성제 애를 내어 먹어서 조으쿠다 이제 경 고르난 이젠 남선빈 이젠 올 때엔 저 이 점치레 땡길때에 셋질로 안갑니다 오라난 질로 감싸 쪽 허게 돌아감쌌. 경헤든 자기 셋질로 뛰어와네 아이구 배여 아이구 배여 하노렌 허난 하르방이 어떻 와넌 아이구 무사젠이나 고티디가 아이구 입으로 말이 아이나커라 아이구 고티써 아이구 고티써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레 먹어서 좃넌 아이구 나 죽영 설러볼주 나가 거짓갈로 아들 앨 내먹디 이젠 읍로 영행 영영 돌아그네 요 어느 그 상커리에 강 강 보면 거기 맥 쓴 점쟁이가 아자시난 거기강 들어봄써. 맥 아라지크냐 맥이라 고 헌건 꺾으로 즐아그네 바구니 ㄱ짜 허영 옛날에 꼭석 담는거 이서나서 가 마쇠 ㄱ추룩헌거 경허난 이젠 그 맥을 남선비 즐아는 맥이 시난 맥 아져네 영행 돌아가렌 해똥 새로 뛰어가네 그 맥을 영 쓰민이 맥 궁기로

<조사자 : 아, 예>

보이지? 켜 아자시난 남선비가 가시난 아 어떻게 읍데가 허나네 우리집이 사람이 그러케 자꾸 아파네 점치레 오랜 허난 또시 영영 해보는 척 허당 아이구 이거 죽은 일두 아니구 이거 윈 아들 내미들 애 내어 먹기 전에는 이 병은 못치쿠다 허난 경헤든 저 셋질 허지 마랑 점치레 땡길덴 돌아감니덴 오라난 길로 감쌌 해똥 자기 셋질로 돌아와네 아야 아야 허노렌 허난 남선빈 와시난 아이고 무사거에난 곱읍디가 허난 그 말이 그 말이라 훈 말로 전계

허나네 이젠 저 남선비는 이젠 각시에 막 바쳐부나넨 이젠 아덜이라도 죽여
 똥 각시 살리젠 칼을 곁잡시나네 일곱챗 아덜이 아버지 우리는 어머니 살리
 쟈 허민 우린 죽어도 좋수다 어머니만 살림 아버지영 꺾지 어머니만 살림 좋
 은디 아버지가 우리 일곱성제 여기 엘 내어노민 우리 이 떡다귀는 아버지 혼
 자 치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 나가 이젠 우리 일곱성제를 다 산에 가그네
 성님네 여섯성제 엘 내가 내영오건 나 허나만 남양오거들랑 나 허나만은 아
 바지 치울 수 이십니다 이렇게 했거든 일곱 챗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것
 도 이제 좋아뵈덴헤네 이젠 성님들 7라 다 이젠 산디로 올라 그룹센 헨 일
 곱 성제가 와네 산에 와네 막 울단보난 산 도야지 여섯 개가 보골보골보골
 도야지 새끼가 이신것 뵈엔 경호난 이젠 성님7란 성으란 이 동으로 가그넨
 이 동 동살랑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살국 이제 셋성으란 서
 쪽으로 가서 열심히 살국 셋작성은 북쪽으로 가서 열심히 살국 넷작정은 남
 쪽으로 가서 열심히 살국 이 여섯 성제들이 다 셋꺼져서 열심히 다 가그네
 삼센 게민 나는 그자 나 죽어도 좋고 난 나 이견대로 헐꺼난 성님만 다 허꺼
 저그네 열심히 삼센 헤된 그 도새기 새끼 산도새기 새끼 일곱 개를 이젠 존
 존한 거난 이제 아버지 칼 7는 것을 그 칼을 날 줍서 산에 가그네 성님네
 애 내영 오쿠다 행 칼을 아경갓거든, 글로 도새기 새끼 그 도새기 새끼도 거
 하나님에서 보내준 거라 경행 그 일곱 개를 엘 내어내 이젠 쌍 와네 이거 성
 님 이거 애 여섯 개 여섯깁 째 이거 성님 여섯 성제 애우다 이거 이거 뭐 다
 먹어똥그네 날라그네 일곱차 거 다먹어지건 날라그네 아버지고라 날 애 내
 도렌 허영 먹영 병 줍서 아이고 설운 애기덜 엘 이거 쥘쥘허멍 이젠 저리 가
 비어사 먹주 이 저 이 중헌 환자잇는디 약 먹는디 아찌 안허매 죽은 아덜이
 거기 아즈니깐 방 베끼 나가라 허나네 나와네 이런 궁기 딸라서 형 폐와지난
 그 영 헤그네 피 입에 먹은추룩 영 헤똥 베개 아래 영 문곡 또 아상 영영 행
 베개 아래 문곡 영 피를 그렇게 헤써 그러케 허난넨 이젠 아이구 아이구 이
 쟈 조아지는거 담따 허나만 더 먹어시민 활딱 조아지켜 허나만 더 먹어시민
 활딱 조아지켜 허난 느네 다 들업다

<조사자 : 예 거짓말로예>

그러니깐 이젠 나도 이거 들은 말 아냐 옛날에

<조사자 : 거 나쁜 어명인게>

그러니깐 이젠 저 하나만 더먹어서민 조아지켜 허난 어머니 나 이젠 죽을
꺼나넌 어머니 마주막으로 어머니 자리나 치와뒤그네 죽으쿠다 영 일어남써
나 자리 치우쿠다 허난 그 애 베개 아래 묻은거 보카부텐 이 증뱅 든디 그
오웬 뺑 걸런디 자리 치우문 안된다 자리 치우지말라 경허난 이젠 그자 휘악
하게 걷으난 애가 벌경케 나오나네 이젠 말헐말 어시난네 저 도통에 그 화장
실이

<조사자 : 예예예>

옛날엔 베갯디 담 봐그네 돼지 길르는거 잇자나 거기 가네 이젠 그 도통
우에 영 사름 걸쳐 안는딜 애 이거 이러케 낭 영 논디 잇자나 이러케 이러케
허난 이런디다가 야게 걸런 돌아맹 죽어서 자기가 이게 이게 뿔 뿔 맛 말헐
권한이 어시난 애를 묻은거 봐부난 경행 죽어비엇서 죽고 이젠 남선비는 이
젠 이 요즘은 이디 잇지마는 옛날엔 이 문으로 영 댓 저 낭문으로 영 열엇당
뎛것닥 허는 문이 잇져 대문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이제 새 이제 새로 걸려
네 그 대문에서 이러케 목걸령 남선비는 죽어불곡

<조사자 : 아>

게난 그 성 그 일곱성제는 다 살앗거든

<조사자 : 아>

경허난 이제 그 시방은 하관리 예수교여 하관겨 다 이시니까 이 구신이 잇
지마는 훈 뎛 년 훈 십년 전까지라도 이 도통 이 측간에강 무시거 잘못 허민
측간 동티엿허명

<조사자 : 아 예>

그 사름이 아파

<조사자 : 아~>

경혜났져 아이고 경허곡 이제 이 어디 군인을 가나 어떻 이제 집잇 아덜이

허면 문전에 영 밥해놓곡 물 떠놔그네 문전에 막 빌메. 그것은 그거 혼이엿
헌디 문전엔 그 남선비가 죽어가지고

<조사자 : 아>

웅 그 남선비가 문전구신을 하명 사름을 괴롭히는 거라

22) 사만 삼천 년 산 스만이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스만이는 죽지 않고 사만 삼천을 살았다. 하늘에서 스만이를 잡으려
고 내려왔다가 한 할머니에게 스만이를 잡을 방법을 묻자 할머니는 냇가에서
숫을 씻으면 스만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냇가에서 숫을 씻고 있자 한 사람
이 와 사만 삼천년을 살았어도 숫을 씻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하였다. 그가
바로 스만이었던 것이다. 그때 스만이가 하늘로 잡혀가 오늘날에는 스만이가
없다고 한다.

스만이 스만이는 우리 사만이랑 하든 사만 삼천 년을 살아브난 사만이랑
(조사자 : 아. 사만년을 살아브난)

게난 사만이는 진짜 아이 뉘었다. 어른 뉘었다. 하난 죽지를 앓아것든 게
난 잡젠 해도 아이라 잡으려와 보든 아이라 브니깐 안 잡아가고 늙을때 찾당
보든 못 찾고하다 보든 늙을당 또 안 뉘어불고 찾지못헿 못 잡아 보당 사만
삼천년을 살았어

<조사자 : 우와>

그러게 사만 삼천년이라고 한다. 기미 혼 번은 이제 그 사만이를 잡으려
뉘 이거 까지는 모르켜 하늘에서사 내려 왔는지 사만이를 잡으려 왔는데 못
찾아 가는디 이제 어떤 어떤 할머니 보라 들으난. “사만이가 어디 살아숨까”

허나네, “사만이 찾아질까”

<조사자 : 하>

저 요 요 요박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거넨 허는건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가라고 허는거라.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강 보른 거기 시냇물이 있다고 냇물
이 잇는디 거기 솥을 씻어덴

<조사자 : 아>

솥 씻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만이라고 경하난 그 솥 씻는 사람보고 그
말을 섞엉 어떻게 솥을 씻느냐. 아이고 바꿔 말해 점짜

<조사자 : 하, 솥을>

아 사만을 심으라든 그 사만을 심으래 온 사람이 그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가그네 솥아져강 거기 강 그 애가 솥을 씻어심라

<조사자 : 아. 그 사람이요>

그러든 사만이 잡을 도리가 잇다

<조사자 : 아>

솥 하나 아져강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시냇가에 강 솥을 씻어 그 물에 솥
을 씻어시난 어떤 키가 열들열세살 쫘한 스나이가 와넨. “할아버지 거 무사
씻어수광” 허난, “이 솥이 검으니깐 하영 씻엄서”

<조사자 : 하>

경하난 그 아이는 “참 나는 사만 삼천년 살아도 솥을 씻는 거 안 뵈소 안
들었소”, 아 이거 사만이라고 구나

<조사자 : 아~ 경헨으난 순간 잡아그네~ 참 머리 좋~ 현명하게 헛구나
예>

음음 그렇지 솥을 씻으든 사만을 잡아

<조사자 : 아>

거 자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왜 솥을 씻으냐고 솥이 너무 검으니
깐 씨다고 검다고 멍청하다고 나는 사만 삼천년을 살아도 솥 씻어본다는 애
기 못 들었다고 그때 사만이 잡아가서 지금 없다고

23) 힘센 당팏 하르방 2

조사일시 : 2005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요약 : 밥도 많이 먹고 힘이 매우 세서 쉰 사람의 출을 비는 당팏 하르방이 있었다. 당팏 하르방은 두 돌을 밑에 두고 아주 무거운 마깨돌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 제주도에서 옛날에 당팏하르방이엔 훈 하르방이 이서나서. 당팏하르방. 당팏이라고허는 밧 이름이주게 밧 이름이주게. 그 밧이름이라~ 밧티 이름이라~당팏하르방이엔 하는 하르방은 오래지 아니여서 그 음 우리보단 윗 대주 그 하르방이 막 밥을 하영 먹어 하영 먹영 배를 2득여 보지 못한 디 어 출을 홀어명이 낫빌어네 쉰 사람을 빌어네 출을 비엇거든 쉰 사람을 빌영 출을 비난.

<조사자 : 쉰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 오십 명

<조사자 : 하하하하 오십 명 쉰 명>

오십 명을 빌영 출을 비엇는디 첫날은 앞날에 비엇노코 뒷날은 묵을껸디 아이고 비는 왓직하고 내일 출을 묵어살껸디 출 묵을 낫 빌영 막 돌아맹겸시 난 그 당팏하르방이 쉰 쉰 사람 쉰명 먹을 쉰 명 빈 거니까 쉰 명 묵어살꺼니까 쉰 명 먹을 밥을 헤영 와라 경허민 나가 묵어주마 이젠 쉰 명 먹을 밥을 쇠에 시건 가명 보나네 그자 밧 위 가마귀가 그자 노라갓다 노라왔다 험서 아이고 가마귀가 출단인가 머신가 행 강 보난 하르방이 출 확 묵영 확 들러 끼곡 또 다른 또 묵어 혹 들리끼고 또 묵어 혹 들리끼고 또 묵어 혹 들리끼고 허난 그 출 혹 드리네경 일러래 털어지기 전이 또 훈단 묵어 혹 들리네끼고 허난 멀리선 그 출단을 가마귀카부텐 헛써 경행 간 간 보난 밧티 가가난 가

마귀도 업꼬 이젠 하르방도 엇꼬 어느 그 어느 폐기 소급에서 셋빚름 소리만
술째기 그 셋빚름

<조사자 : 예예>

겅 그 셋빚름 소리 들으멍 간 보난 출은 원 몬딱 목영 원 엇꼬 하르방 출
다 묵어네 된 배고프고 점심먹을 새에 그 어욱폐기 쏘급 그늘진디 아장 셋빚
름허멍 경헤네 그 쉰명 먹을 밥을 헨 다 먹엇젠 출 묵은 것이 그렇게 어느폐에
이렇게 데우고 묵으곡사 헨디 그자 혹 목영 혹 드리네경 알려레 털어지기 전
이 또 데껴블고 또 데껴블고허니 먼 디서 가멍 출 밧티 가마귀가 솟박헨다고

<조사자 : 아~ 아유~ 힘이 막 생에~ 막 빨리 만들영에>

그런 것도 있다고 또 그 힘센 사름 그 하르방이 그 하르방이 이 여여여
여음에 그 도처 동쪽더레 가면은 그 마깨들이라고 그 돌이신 따문에 그 밧틴
일름이 마깨들이라 마깨들이라고 하는 돌이 이 퀘 퀘보단 크거든 큰디 이추
룩 퀘모냥으로 영 몽크랑 헨따그네 혼펜이 요것추룩 호썰 쪼지락해서 그니
까 그것은 이 마깨라고 하면 방맹이아냐게 방맹이 즈룩으로 생각헤네 그 돌
에 요렇게 호썰 쪼지락허난 경허니까 이것은 마깨들이라

<조사자 : 아>

방맹이 달므니까 마깨들이라 마깨들이라고 헤네 그거 그디 우에 낯 거 그
냥 잇주

<조사자 : 근데 그거 누게가 올려놨?>

그 그 당팃하르방

<조사자 : 아~ 그것도 당팃하르방>

응 당팃하르방이 그 돌을 올려놨네 완전 영 궁글락 궁글락 허나넨 요만씩
헌걸로 이 이디 영 호썰 바치넨 돌도 이서 전부

<조사자 : 아>

분명히 사름 인공이라고 헨다 당팃하르방이 올려놨따고

<조사자 : 아>

그 돌이 그냥 잇거든

<조사자 : 아 그냥>

그 도량은 마캐들이 지명이 마캐들이 지명.

24) 콩데기 풋데기 3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하춘(여, 1927년생, 토끼띠)

요약 : 계모가 다습 딸에게는 밥도 잘 안 주고 터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오라며 미워하였다. 다습 딸이 곤경에 처하자 새가 도와주어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나중에 계모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콩데기하고 풋데기가 이서신디 그때 어느 어느 콩데기가 저 머라 그 엄마가 계모였지 흐나

<조사자 : 다습어명>

응, 계모 계모고 어 풋데기는 거 콩데긴가 풋데긴가 그러고 둘 중에 난 잘 들은 얘기니까 못허크라. 하나는 자치가 난 딸이거든. 계니까 이제 그 그 다습 딸에게는 뭐 먹을 것도 잘 안 주구 물만 제오라고 옛날에 물허벅지고 물 지어왔잖아 저맨헐때부터. 계민 물을 저다 비와도 그 항에 항아리에다가 급을 터취부러터 터진 항에 물을 암만 저다 노민 물이 차나게 그 항에 물이 이빠이 차게 저오렌 허나네 하루종일 저와도 안뵈고 저와도 안뵈고 흐루종일 막 그 항을 채우려고 물을 저다 노면은 빠져부니까 그니까 이제 어느 확화가 나고 그냥 배고프고 기가 막히고 이시니까 새가 나무에 안자서 구렁지라 구렁지라 헛거든 구렁지나는 거는 옛날에 구렁이엔 헌걸 구렁지렌 헌거는 저 이 구멍나며는 소나무에 그 진이 있어 그 진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볼때머는 진이 녹아가지고 요 고망을 맥히는 거라 요 이것고라 구렁지렌 구렁질엔 흐 말을구렁 이 구렁그네레 물을 질어다 노며는 된다는 데서 구렁지라

구새가 구렁지라 구렁지라 혼저라. 가만히 그 새소리를 듣고 보니까 울다가 그 새 소리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 탁 난저라 나 보니까 이자 소나무 진을 강 굽어다가 그 구멍에 놓고 이제 불을 붙인거라. 그 고망이 탁 막아질거 아니냐? 그땐 물 세라는가? 물이 이빠이 찾거든. 경 다슴어멍은 이거 막 골탕먹일려고 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그런애기를 난 다 예기를 못허크라. 그냥 나도 들은 애기가 많은데 그 다슴애기가.

<조사자 : 응, 착하게 살아야 돼는거예, 못된 어멍이네. 그럼 벌은 안 받고?>

젠 내중에 막 벌받았다고 하데? 그 들어 그 들어가지 다 애길 난 못허켜 내중에는 아주 벌받았지.

25) 힘 센 하르방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오윤경(남, 1926년생 범띠)

요약 : 힘이 아주 센 하르방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가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고 와서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소를 빌려주기 꺼려했다. 할 수 없이 힘 센 하르방이 등에 나무를 지고 부락에 들어오니 그 나무에 담이 모두 부서져서 다음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소를 빌려줬다고 한다.

있었는다. 힘이 아조 왕치야. 힘이 왕친데 이 하르방이 꽃일 가가지고, 꽃아나, 꽃, 꽃이. 밀림. 거길가서 그 방에, 알지, 방에이, 남방이라고 해. 그 큰 거 해가지고 이, 계난 그걸 파다가 이렇게 비가 왔어. 비오니까 하르방이 그 걸 툇 췌단말이야 이. 패랭이처럼. 쟁해서 비를 이제 막고이. 경하다가 집을 짓게 돼니까 동네 얼은덜헌테 췌를 빌립센 헛거든. 계난 췌 빌리며는 동네사람들이 췌 임재는 췌를 죽는다 이거라. 그 하르방은 힘 세고 하니까 낭 같은

거 많이 싣거든. 게문 쉼이 못전더서 드러누워 죽으니까 안 빌려줬거든. 안 빌려주난 이제 이 하르방이 안 빌려주민 말라고 그래서 꾀이 강 낭을 집 호 그루치 낭을 지어가지고 부락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우작담이고 뭐고 밀어부렸거든. 짐을 이렇게 낭 지나까 이래저래 헤가지고 담을 다 밀어부렸어. 미니까 하 이제 큰일났다고 동네 얼은덜이 쉼 안빌려줬다가 체발 우리 쉼 아정강으네 낭을 싣서 오십서 헤가지고 그때야 쉼을 빌려줬어.

<조사자 : 아~ 쉼 헤네 힘 막 쉼 장사얘기 예>

26) 힘 쉼 당뽕 하르방 3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인탁(남, 1920년생, 원숭이띠)

요약 : 힘이 아주 센 당뽕 할아버지가 나무를 지어 오면 집채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이는 잡지 못하여 이는 큰 덩치로 자신을 못 잡는 당뽕 할아버지를 비웃었다. 당뽕 할아버지는 큰 돌을 들어 옮기기도 하고, 많은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한다.

힘센 하르방은 저쪽 동네에 살아난디, 당뽕 할아버지라고이 힘이 워낙 세서. 그러니 그 당뽕 할아버지렌 현 할아버지는 옛날 산에 가서 나무를 헤가지고 그걸 가져와야 집을 지을 거 아이가. 게민 그 할아버지 집으로 혼짐만 지어오며는 상가집 하나론치 지문단 말이야. 상가집은 이만큼 큰집이라. 부엌잇고 뭐 마루잇고 방잇고 한 상갓집. 간 쉼 상갓집 한 그루칠 나무를 베어서 지고 오랏던 할아버지다.

<조사자 : 할아버지 혼자서예>

응, 혼자, 워낙 힘이 장사주.

<조사자 : 그 할아버지 나중에 어땡 뗏텐마썸?>

게 그 할아버지 어째서 돌아갔지 나중에. 겐디 그 할아버지가 힘은 세도 이, 몸에 이가 잇잖아. 이 옛날에 이가 이 한 개를 못죽였다 말이여. 왜 못죽였느냐.

<조사자 : 무사마썸?>

크고 돈드렁이라고 그 저 옛날 대바구니 만드는데 하는 무슨 대, 대를 이 려해가지고 멧들 작은데다가 꺾직한 돌 이만한 돌에다가 이저 막개 방뎡이 닳은 막개로 때려서 그 대를 막 다듬어가지고 벵구닐 만드는데 그 만들젠하면 돈드렁이런 현개이서. 돈드렁 돈드렁에 니를 하나 잡아 그레 특 해난 이놈의 막개로 막 때니까 니가 죽나? 그니까 니를 못죽였다 이거. 왜 못죽였다. 그 니가 그 니가이, 그 돌이 매끈해도 틈이 잇잖아이. 틈에 니가 들어갔어. 들어가서 니가 막개질하면 영 쳐다보명 웃었어.

<조사자 : 이가 구멍 속에 들어가 부런 마썸.>

저 할아버지가 날 못죽인다고

<조사자 : 아, 힘은 세도 요만한 난 못죽엿덴 비웃엇구니예>

거 실직헨지만지 그런 우스갯소리로 들어봐서. 나 낱기 전에 돌아간 어른인데 경헨단말이지. 당뫓할아버지. 어디가서 길가에 데니다가 큰돌, 담돌 큰 거 도제 사람 힘으로 엮어놓지 못할만한 돌이시믄 아 거 당뫓할아버지 이거 요겨 혼저 올려뫓가에라. 게난 그렇게 힘이 썩다 이거라.

<조사자 : 그 정도로>

그 할아버지 이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힘은 그렇게 썩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 이거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된 촌수가 막 우에주게. 그 할 아버지 자손이 지금 살아이서, 토산리에.

<조사자 : 토산리에 마씨?>

게난 장수할아버지가 옛날 살았었다 후손도 살아있다 이거지. 그 힘썩 할 아버지는 밥도 많이 잡쌌다 이거야, 밥도 큰 도구리 밥도구리 이만한 나무로 멘든 나무 파가지고 그 밥그릇을 멘들었지, 옛날엔 이 사람이 식구가 많이 살며는, 술에 밥을 지어가지고 그냥 그 큰 도구리 이만한 그릇에 요즘 다라

요즘 다라만큼 큰 그릇이 있어. 밥은 술에절 그리고 파뇌이. 그럼 그걸 식구가 많으면 뽕 둘러안자가지고 요만씩 요만씩 자기 뭇만씩 먹어. 그럼 욕심많은 사람은 남의 앞에까지 이렇게 뽕겨다 먹난말이여. 겐디 그 할아버지는 큰 여남은 사람 먹을 도구리로 밥 하나를 다 먹었다 이거야. 이 손으로 먹었다가 어깨아팡 못먹으니까 이손으로도 먹고 교대로

<조사자 : 양손으로예>

한손으로만 먹으니까 그거 이만큼 큰 십여명 벱을 밥을 한손으로만 먹으니까 이거 아프거든. 어깨 아팡. 자주 내려야 돼니까. 이거 들어가면 싹 내려가고 들어가면 싹 내려가고 어깨 아팡 밥 못먹나, 못 먹었져 경 고라서.

<조사자 : 더 먹고 싶은디 어깨아팡>

응, 어깨아팡 게. 숟가락이 요즘 숟가락은 요만하지 아인건디, 그때는 숟가락이 옛날 숟가락은 좀 컷어. 게도 그 숟가락으론 도저히 감당을 못해. 숟가락 두게, 두게 정도 행 요만큼 넓은걸로 거려야 이걸로 먹고 이걸로 먹고 하여. 주걱만큼 큰걸로 먹어야 입도 크니까. 이거 쪼끄만 걸 요즘 숟가락으로 영 한건 윈 밥이 들어 간지 만지 감각이 안가.

<조사자 : 우리가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예>

그냥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밖에 압돼지. 그렇게 힘셋다는 할아버지가 계섯단걸 전설로 들어 봤어.

26) 광산김씨 설촌 유래

조사일시 : 2005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김인탁(남, 1920년생, 원송이띠)

요약 : 토산에서 살던 광산 김씨 할아버지 삼 형제가 신흥리로 옮겨와 땅을 나누어 살기 시작하였다.

우리 칠대 할아버지가 저쪽 토산서 거주하다가 저쪽에서 우리 보통 제주
 도 입도하며는 저 감녕이나 조천, 감녕쪽으로 육지에서 들어오거든. 할아버
 지들이. 그러민 거기 거주하다가 차차차차 일로 와간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디 다 분포가 났는디 우리 부락에 한 이백 오십년에서 육십년 더 났지. 그
 전에 토산서 살아계시다가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일로 강 살아보자. 서쪽으
 로 강 서쪽 동네에서 살아보자 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 칠대 할아버지 삼
 형제분이 이디 왕 살았어. 삼 형제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진디, 제일 먼저 오시고 와서 살만하니까
 형님보고 이디 살만하니까 일로 오십사 해서 형님 두 형제분을 초청해다가
 여기 동백나무 군락지 밑에 큰디 이쪽 집 쫘은 둘째형님, 저쪽집은 셋째형님
 그 막내는 우리 할아버진데 서쪽 저쪽 저쪽 아주 좀 터가 일등 좋다 해가지
 고 거기를 집을 지어서 살기 시작했어. 게서 우리는 서침이고 두 할아버지는
 동침, 서침, 동침, 동쪽에 사니까 동침, 서침. 서침에서 우리는 큰집. 그때는
 아주 부자로 잘 사니까 우리는 자손도 많고 이쪽엔 자손이 없어. 동침은. 자
 손이 없고 옛날 그 자기가 관리하는 땅을 분배가 적으니까 그게 잇을꺼 아
 나, 이. 나눠가질 자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들은 많고 우리는 자손이 많으
 니까 전부 분배하다가 땅이 적지아녀. 그래서 부제는 적지마는 자손은 많디
 고 현 땅이, 터가 우리 할아버지, 저쪽 서쪽에 우리 할아버지 사는데 우리 할
 아버지네 집 이름, 택호라고 해 이, 알큰집이여 알큰집. 여우네 알큰집 하면
 우리집이야. 저 제주시 쪽에 저쪽에 옛날 어른들은 여우네, 지네 어디서 와서
 하든 나 여 저 알큰집 자손이여 흐든 알아. 저기 백세이상 된 분들은. 저 모
 슬포나 저쪽 애월 그쪽에 가도 예닐을 알거든. 알큰집서 우리가 워낙 잘돼가
 지고 저 모슬포쪽에도 우리 텃들 많이 잇었거든. 그때는 이, 이제는 차차 다
 팔앙 없애부러져마는 그래서 삼 형제의 자손이 광산김씨 삼형제의 자손이
 우리 칠대 할아버지에 이어서 이 부락을 맨들기 시작헌겨여. 그래서 지금 인
 구가 한 우리 광산김씨만은 한 육천 여명인데 우리 주민이 지금 육백 명 남
 짓 뉘는데 광산김씨가 한 육십프로? 삼백 오십 명 정도 될꺼여. 나머지는 경

주김씨에 한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현씨 오씨 등등 그래서 한 인구가 육천여 명쯤 살고 있고 계연 우리 알큰집이영 소문이 제주도 전역에 그딤 부잣집이 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이젠 떨어짐 다 안다이거여.

<조사자 : 이 마을 부흥을 광산김씨가 일으켰네에.>



신앙

<목 차>

1. 개관
2. 공인종교
3. 마을신앙
4. 무속신앙
5. 가신신앙

1. 개관

남원읍 신흥리는 신흥1리와 신흥2리로 나뉜다. 신흥리의 공인종교 현황을 보면 신흥1리에는 교회가 2개가 있었으나 신흥2리에는 없었다. 신흥리 주민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절에 다니는 불교신자였다.

신흥리의 마을신앙으로 신흥1리는 약 20여 년 전까지는 포제를 지냈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흥2리에서는 아직까지도 포제를 지내고 있다.

신흥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다른 마을에 비해 당이 많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조사해온 마을을 살펴보면 보통 2~3개의 당이 있었다. 그러나 신흥리에는 신흥1리에만 5개의 당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신흥리에는 무속신앙이 발전하였고 아직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인종교

1) 기독교

(1) 신흥1리

① 신흥교회

㉠ 명칭 : 신흥교회

㉡ 종파 : 한국기독교 장로회

㉢ 위치 :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1214-6번지

㉣ 건물 : 1980년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 중. 예배당 2채(구건물 포함), 식당

1채

㉤ 연혁 : 1975년 10월 3일 서귀포 중앙교회 안달원 목사가 부지를 사 헌납하면서 큰길가에 있던 교회가 지금의 위치로 옮김.

㉥ 신도 : 대부분 신흥1리 주민. 신흥2리와 제주시에 사는 신도도 일부 있음. 출석 신도는 60명 내외.

㉦ 대표자 : 석건 목사(男, 40). 김윤식 전도사, 고재원 목사, 정경용 목사에 이어 2002년 1월에 세 번째 목사로 부임.

㉧ 운영 : 헌금으로 운영.

㉨ 예배 :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기도회,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예배.

㉩ 행사 : 부활절 · 추수감사절 · 크리스마스 행사,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10월 첫째 주에 개교기념 행사.

㉪ 금기 :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으나 비교적 자유로움.

㉫ 타종교와의 관계 : 특별한 갈등은 없으나 제사문제로 신도와 친척들 사이에 가벼운 갈등이 있음.

② 신흥감사교회

㉠ 명칭 : 신흥감사교회

- ㉠ 종파 : 대한예수교 오순절성회
- ㉡ 위치 :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292-1번지
- ㉢ 건물 : 예배당 1채, 목사가 거주하는 집 1채.
- ㉣ 연혁 : 2002년 6월 안재수 목사가 창고를 개조하여 교회가 문을 옴.
- ㉤ 신도 : 안재수 목사의 가족 이외에 특별한 신도는 없는 상태.
- ㉥ 대표자 : 안재수 목사(男, 54)
- ㉦ 운영 : 안재수 목사의 사비로 운영.
- ㉧ 예배 :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낮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매일 9시 기도회.
- ㉨ 금기 : 특별한 금기는 없음.
- ㉩ 타종교와의 관계 : 특별한 갈등은 없음.

3. 마을신앙

1) 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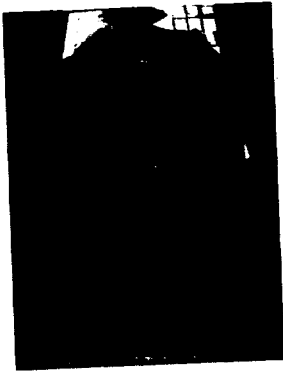
신흥1리와 신흥2리 모두 옛날부터 포제를 지냈었다. 그러나 신흥1리는 약 20여 년 전부터 포제를 지내지 않았고 현재는 포제단조차 없어져버린 상태였다. 이에 비해 신흥2리에서는 아직까지 옛 모습 그대로 포제를 하고 있었다. 신흥1리와 신흥2리의 포제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마을분들의 체보에 따라 신흥2리의 포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1) 신흥2리

- ① 제명 : 醮祭
- ② 제신 : 土地之神
- ③ 제일 : 음력 정월 정일이거나 해일에 지낸다.



포제단



제의

④ 제장 : 여절악 산 18번지 포제단

⑤ 제의와 제기 :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입었으나 요즘에는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제의를 입는다. 마을 회관에 대축과 삼헌관이 입는 제의 네 벌과, 나머지 제관이 입는 제의 여덟 벌이 보관되어 있다.

제기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마을 노인회관에 있는 그릇을 닦아 쓴다.

⑥ 제비 : 예전에는 포제에 쓰일 예산을 가늠하여 집집마다 똑같이 나누어 부담. 요즘에는 마을 기금과 자치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⑦ 제관

① 제관자격 : 나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아래 제관도 최소한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초헌관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는다. 대축과 집례는 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안에 상이 났거나, 여자는 제관이 될 수 없다.

② 제관의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 찬인, 찬자, 알자,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사준, 도색, 취반 등 16명이 정식이지만 근래에는 12명으로 축소시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제관임무를 맡기도 한다. (마을에 제관을 맡을 사람이 모자랄 때에도 축소시켜 진행)

③ 합숙 : 예전에는 제단 옆에 막을 짓고 3일간 제관들이 합숙을 했었다. 중간에는 초헌관의 집에서,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합숙을 한다.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사용하는데 물을 구하러 토산리까지 다녀오는 일도 있었다. 제관들의 식사나 목욕도 그 물을 이용하여 합숙소에서 해결했다. 목욕물은 향나무를 띄웠고, 식사는 60세 이상의 할머니가 합숙소에서 준비했다. 새끼줄에 밀감나무 잎을 끼워 왼쪽으로 끈금줄을 만들어 합숙기간 동안 합숙소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제관의 친척들이 정성을 보이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합숙소로 보내기도 했다.

⑧ 흘기와 축문

㉠ 흘기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詣盥洗位盥洗。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四拜獻官皆四拜。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神位前北向詭搯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俯伏興小退跪。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執笏引詣樽所西向立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在位者及獻官皆四拜。飲福受俎執事者詣樽所以爵酌福酒。執事者持俎進減神位前祚肉。謁者引初獻官陞詣飲福位西向跪搯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獻官以授酌飲卒酌以授執事者執事者受虛爵執事者以俎授初獻官獻官以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以受虛俎降自東皆出門。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在位者及獻官皆四拜。撤邊荳祝以進撤邊荳。四拜在位者及獻官皆四拜。詣望燎位祝以篚取祝板及幣毛血於降自西階置於坎。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北向立可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祝及諸執事俱伏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以此出

㉡ 축문

維歲次年月日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伏以赫赫明神 鎮此龜域 屆茲歲首敢籲情 曲消顯舊災降我新福
五穀豐登六畜繁殖父老稻舞童稚和樂邪崇妖孽使無侵責謹以牲幣醴齋姿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尙

饗

⑨ 제물

㉠ 메 : 도량서직 네 가지 메를 산메로 올린다.

㉡ 회생 : 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검은 수탉지를 잡는다. 돼지 털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제거하고 발톱도 제거한다. 내장은 깨끗이 씻어 다시 돼지의 배에 넣어 익히지 않고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올린다.

㉢ 채소류 : 미나리와 무채를 익히지 않고 소금 간만 하여 올린다.

㉣ 어류 : 마른 명태 한 마리, 옥돔 3마리

㉤ 과일류 : 밤, 대추, 꽃감 등(사과나 배등의 과일은 사정이 될 때만 제단의 양쪽 옆에 올린다.)

㉥ 제주 : 생감주를 쓴다.

㉦ 패백 : 창호지 접은 것을 올리는데 많고 적음을 제한하지 않지만 홀수장을 올린다.

㉧ 모혈 : 회생으로 올린 돼지의 털과 피를 조금씩 올린다.

㉨ 포 : 녹포는 쇠고기 젓은 것과 마른 것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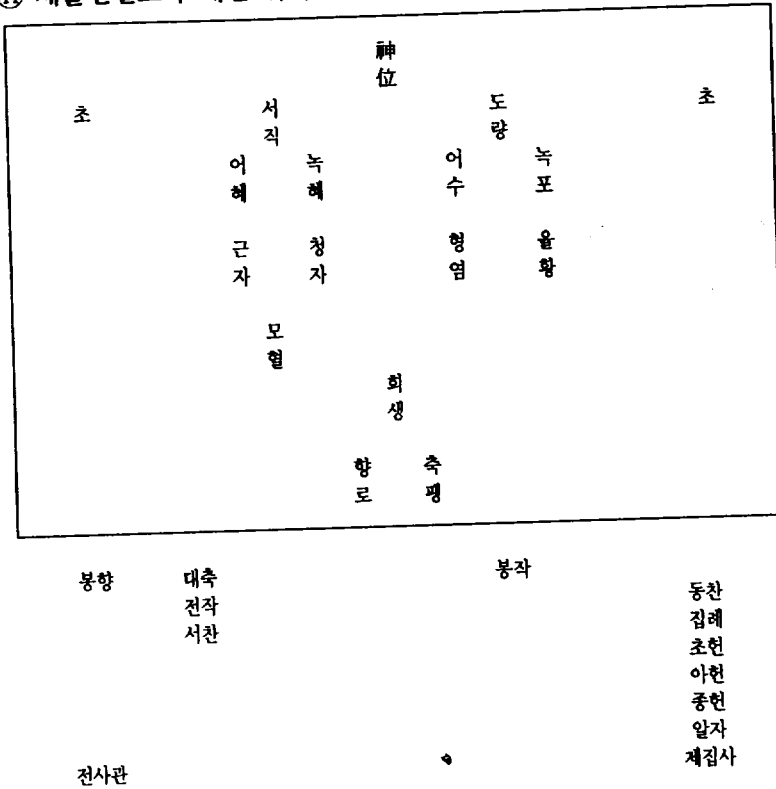
⑩ 제차 : 포제 당일날 축은 대축이, 홀기는 집례가 작성하고 다른 제관들도 예행연습을 한다. 포제 당일 자정을 기해 포제 봉행을 한다. 제가 끝난 후 회생의 목 부분은 초헌의 집으로 보낸다.

⑪ 음복 : 예전에는 동네 사람 모두 음복을 했으나 돼지의 목 부분은 초헌의 집에 보냈음) 지금은 제관들끼리 제물을 나누어 가져간다.

⑫ 금기 : 여자는 제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포제 당일에는 술을 금한다.

⑬ 기타 : 지금은 신흥2리의 포제로 통합되었으나 예전에는 위쪽 고수동은 수도동과, 아래쪽 고수동은 석두터와 함께 포제를 지내는 등 2리 내에서도 각 마을별로 포제를 지냈었다. 그러다가 4·3사건으로 마을 주민들이 흩어지면서 2리 포제로 통합되었다.

⑭ 제물진설도와 제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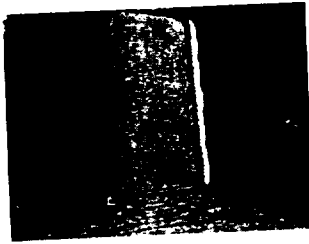
※ 포제단은 본래 신흥리 1876-3번지(큰동산 앞 또는 에움팔 옆이라고 함)에 있었으나 10여 년 전에 지금의 여절약 산 18번지로 옮기면서 산을 깎아 새로운 포제단을 마련하였다.

4. 무속 신앙

1) 당신앙

(1) 신흥1리

신흥1리에는 5개의 당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5개의 당을 모두 다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보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5개의 당 중에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더라도 예전에 성행했었던 당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오드렛당

① 본향당

㉠ 명칭 : 본향당, 오드렛당

㉡ 당신 : 일뤼할망, 오드레할망

㉢ 제일 : 음력 6월과 11월 7일, 8일에 간다. 그러나 몸이 비리거나,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경우 17(18)일, 27(28)일에 갈 수도 있다.

도 있다.

㉣ 위치 : 신흥1리 포구 서쪽 끝

㉤ 당의 모습 : 검은색 차양막으로 덮여져 있으며 '마을 큰 당'이라고 하얀 스프레이로 적혀있다.

㉥ 제물

㉦ 메 : 보시메 1, 사발메 1(만약 일례에 못 갔을 경우는 오드렛날 보시메 2, 사발메 2)

㉧ 떡 : 돌레떡(지금은 돌레떡 대신 빵떡을 올리기도 한다.)

㉨ 생선 : 옥돔이나 우럭 등 비늘 있는 생선을 구워서 2마리 올림.

㉩ 과일류 : 밀감, 사과

㉪ 제주 : 소주, 감주

㉫ 삶은 계란 2~3개

㉬ 제차 : 보통 새벽에 찾아가나 바쁜 사람은 2~3시경에 가기도 한다. 제물을 가져가면 메는 심방이 꺼내서 단에 올려놓고 나머진 싸서 가져간 채로 올린다. 제물을 올릴 때는 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단체로 몇 개씩 올린다. 올리고 나면 심방이 빌어주고 생활로 점을 봐준다. 그 다음 제물을 조금씩 뜯

어서 그릇에 담아 당 밖 깨끗한 곳에 비운다. 비는 사람이 챙겨서 나올 때 '지들임'이라 하여 심방이 "누구누구 지들염수다"라고 말한다. 비는 사람은 쌀 지를 "○마을에 사는 ○살 누구 지들염수다"라고 말하면서 던진다. 이 때 가라앉으면 좋은 것이다.

㉠ 폐백 : 시마지 1마, 종이 1권(백지에 구멍을 내어 저승돈으로 씌), 실 1타래, 빨강·노랑·파란색 천

㉡ 제비 : 5천원~1만원

㉢ 비념 : 식구들의 편안

㉣ 음복 : 가지고 갔던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먹고 남은 것은 가지고 갔던 사람이 가져온다.

㉤ 금기사항 : 뱀이나 개가 죽은 것을 보면 안된다. 3일 정성이라 하여 3일 동안은 돼지고기, 개고기, 말고기를 먹으면 안된다. 생리를 하거나 영장이 낫을 때도 몸이 비렸다하여 가지 않는다.

㉥ 기타 : 옛날에는 액막이라 하여 살아있는 닭을 가져 갔었다. 당 입구에서 '이 사람 목숨 대신 닭 목숨 가져갑서'하고 외치고 닭을 던져서 닭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목숨 대신 닭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닭이 다시 되돌아올 경우에는 닭이 멀리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닭을 던졌다.

㉦ 심방 : 서귀포시 동홍동 김을숙(1945년) 심방

② 일렛당

㉠ 명칭 : 일렛당, 복하이당

㉡ 당신 : 일렛할망, 동이탄집, 산신

㉢ 제일 : 음력 6월과 11월 7일. 7일에 가지 못했을 경우 17일이나 27일에 가기도 한다.

㉣ 위치 : 복하이천 부근

㉤ 제물

㉥ 메 : 3개

- ㉞ 떡 : 돌레떡
- ㉟ 생선 : 옥돔 1
- ㊱ 과일류 : 밀감, 사과(다른 과일은 못 가져가도 밀감은 꼭 있어야 함)
- ㊲ 제주 : 소주, 감주
- ㊳ 비염 : 식구들이 아프지 말고 대통하게 해주라고 빈다.
- ㊴ 금기사항 : 영장나거나 몸이 비린 날은 가서는 안 된다.
- ㊵ 기타 : 지금은 당이 없어졌으나 이 당을 믿는 사람은 당이 있던 주위에라도 음식을 놓아서 빈다.

③ 돈지할망당

- ㉶ 명칭 : 돈지할망당
- ㉷ 당신 : 돈지 할망, 돈지 하르방
- ㉸ 제일 : 보통 으드렛날 으드렛당에 오면서 같이 들른다. 그러나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나 명절 뒷 날, 초하루, 보름날에 가기도 한다.
- ㉹ 위치 : 신흥1리 포구 근처
- ㊱ 당의 모습 : 당은 시멘트로 지어져 있는데 당 주위를 나무가 둘러싸고 있었다. 당 내부는 올렸던 음식들과 종자들이 아무데나 널려 있었다. 단은 큰 벽돌 4개로 지어져있는데 2개는 세로로 세워지고 2개는 그 위에 가로로 놓여 있다. 벽에는 종지와 천 등이 걸려있다. 조그마한 나무 상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실과 술잔, 또 다른 하나에는 천과 술잔이 들어 있다.



당의 내부

㉵ 제물

- ㉶ 메 : 보시메 1, 사발메 1
- ㉷ 떡 : 돌레떡
- ㉸ 생선 : 옥돔 1
- ㉹ 과일류 : 밀감
- ㊱ 제주 : 소주, 감주

- ㉠ 비념 : 해상의 안정과 고기 많이 잡히길 빈다.
- ㉡ 기타 : 심방은 없고 개인적으로 가서 빈다.
- ㉢ 신앙민 : 해녀 위주로 바닷일을 하는 사람

(2) 신흥2리

① 본향당

㉠ 명칭 : 오로코미당(오로코머치당), 본향당

㉡ 당신 : 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 삼신산 삼백단 딸, 일뤼할망

㉢ 제일 : 대제일-정월대보름(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만을 모심)

음력11월-일뤼할망

㉣ 위치 : 교수동 사거리에서 남쪽

㉤ 제물

㉠ 메 : 보시메 2(삼신산 삼백단 딸, 일뤼할망), 사발메 1(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

㉡ 떡 : 돌레떡(쌀이나 메밀로 만들), 시루떡은 올리지 않음

㉢ 생선 : 옥돔

㉣ 제주 : 감주, 소주

㉤ 과일류 : 밀감, 3색 과일

㉥ 계란

㉦ 미역

㉧ 제차 : 정월 대보름에 심방이 새벽 6시쯤 당에 도착하면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모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작한다. 먼저 사람들이 온 순서대로 심방이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굿하는 장소와 시간, 굿을 하게 된 연유, 온 사람의 집안의 내력 등을 소개하는 초감제를 지낸다. 그 후 본향 신을 부



오로코미당

르기 위한 맞이(신칭례)를 하고 신을 청하고 본풀이를 한다. 본풀이가 끝나면 신 앞에 술을 올리고 소지를 올린 후 절(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상·중·하단결 대표자가 3번)을 한 연후에 음복을 한다. 그 후 쌀로 사람들의 점괘를 봐 주는데 홍색포를 올릴 사람은 이때 올린다. 다음 액막이를 하는데 이장이 가져온 닭으로 하기도 하고 천, 쌀, 지전, 돈으로 하기도 한다. 천과 지전은 태우고 쌀과 돈은 심방이 가져간다. 제사가 끝나면 올렸던 음식을 조금 떼어 내어 밖에 버린다.

㉔ 폐백 : 명실, 백지, 지전, 물색띠, 삼색띠, 홍색포(홍색포는 기혼자만이 올릴 수 있다.)

삼색띠, 물색띠와 홍색포는 따로 건다. 당집이 있는 경우는 물색, 삼색, 지전, 홍색포를 모두 걸어놓고 당집이 없는 경우는 불사른다.

㉕ 당의 유래 : 안씨 하르방이 바다에서 갈치를 낚으려고 했으나 갈치는 낚이지 않고 돌만 계속 낚였다. 이를 괴이하게 여겨 안씨 하르방은 그 돌을 갈치 구덩에 넣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 후 안씨 하르방은 몹시 심하게 앓았고, 집에 우환이 계속 생기자 그 돌이 심상치 않은 돌이라 여겨 그 돌을 따로 모시게 되었고, 그 뒤 홍씨, 김씨 하르방이 돌을 모신 곳에 집을 지어 함께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남당'이 생겨나게 되어 배를 타는 사람의 무사 안녕을 빌고 마을 전체가 용궁을 하게 되었다. 후에 이 곳에 오창수씨 어머니가 건물을 지어 놓았다.

㉖ 비념 : 대제일에 굿이 아닌 비념만 하는 경우도 있음.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㉗ 당의 내력 : 송당신은 막내아들인 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을 바다에 버린다. 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은 용왕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막내딸과 결혼한다. 그러나 식성이 너무 좋은 남편으로 인해 집이 망할 처지에 이르게 되고 용왕은 들은 내보낸다. 후에 한라산에서 산신딸을 본 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은 산신딸을 탐한다. 그 산신 딸을 작은 부인으로 삼는다. 그 당신 아이 7명을 임신해 있던 큰 부인은 산돼지 발자국에 놓인 물을 빨대로 빨아

먹었고 돼지 냄새가 난다며 남편이 큰 부인을 마라도로 귀향 보낸다. 작은 부인은 형님을 데려오지 않으면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한다. 큰 부인은 마라도에서 아이 7명을 낳는다. 남편이 큰부인을 먼저 데려오고 아이 7명은 작은 부인이 데리고 오는데 아이 1명을 잃어버린다. 큰 부인은 작은부인이 질투로 버렸다고 말한다. 작은 부인은 아이를 데리러 중문으로 찾아간다.

사람들은 그 후 금백주 세명주 소로소천국과 용왕의 막내딸인 일췌할망, 삼신산 삼백단 딸 세 신을 모신다. 또 잃어버렸던 아이 1명은 사마귀 때문에 눈을 다친 적이 있는데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이 당에 와 빌면 깨끗이 낫는다고 한다.

㉠ 기타 : 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은 입척순서(그 마을에 들어온 성씨)와 그 당을 단궐처럼 많이 찾는 것으로 나눈다. 이 지역의 상단궐은 광산 김씨가 많다.

상차릴 때의 순서는 상단궐이 준비해온 음식을 먼저 진설한 후 중단궐, 하단궐이 자기 정성껏 진설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단궐만 따로 바치는 제물은 없다.

㉡ 심방 : 남제주군 태흥리 강금춘(1944) 심방

② 산신당

㉠ 명칭 : 산신당

㉡ 제일 : 정월, 3월, 9월(←강금춘 심방)

소날(정축일, 신축일 등)이 제일 좋으나 소날에 못가거나 소띠인 사람은 개날에 간다. (←다른 제보자)

㉢ 위치 : 신흥2리 닷박빌레

㉣ 당의 모습 : 내(川)를 따라서 200~300미터 쯤 가다보면 굴이 보인다. 이 굴 안에는 제에 사용되었던 초와 물색이 걸려있었



산신당

다. 굴 앞에는 평평한 땅이 있어 제단으로 사용되었다.

㉞ 제물

㉠ 메 : 산메 3개

㉡ 떡 : 돌레떡 9개

㉢ 생선 : 명태 말린 것, 옥돔 3마리

㉣ 제주 : 소주, 감주(반드시 생감주로 가져가야 함)

㉤ 과실류 : 사과, 배, 굴, 꽃감, 밤, 대추

㉥ 계란 3개

㉦ 쇠고기 날것으로 한 근 정도

㉧ 생쌀 : 3

㉨ 폐백 : 시령목 한 필

㉩ 신앙민 : 신흥2리 주민들이 30명 정도 다니고 수망리 주민들은 문전제 지내기 전에 꼭 산신당에 들른다고 한다.

㉪ 기타 : 현재 산신당 부근 개천에 공사가 진행 중으로, 당이 없어지면 본 향으로 합칠 예정이라고 한다.

5. 가신신앙

(1) 신흥1리

㉠ 백중제

소, 말을 기르는 사람이 동물을 도망도 안가고 전염병도 안 들어서 축산이 잘되게 해 달라고 빈다.

㉡ 제일 : 음력 7월 15일에 하는데, 제를 지내는 하루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하여 12시쯤에 제를 지낸다.

㉢ 제물 : 메(백미) 3개, 술(소주와 감주 모두 올리는데 소주를 첫 번째로 올리고 감주를 2번째로 올림), 생선 1마리, 돌레떡, 생닭, 굴, 사과, 배 등의 과일

- ㉞ 마을 전체로 제를 크게 할 때는 닭이 아니라 돼지를 잡는다.
- ㉟ 제는 깨끗한 들판에 가서 지낸다.

② 칠성맞이

자식, 특히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빈다.

㉠ 제일 : 심방한테 홀수 날을 받아서 한다.

㉡ 제물 : 과일, 명주천, 생쌀 7그릇, 메 7그릇, 돌레떡 1개씩 반에 받혀서 7개를 올림, 동백꽃

㉢ 제물상 주위에는 병풍을 두른다.

㉣ 명주천을 상에서 방까지 하는데 심방이 천을 안 준다고 버티면 천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 이 천으로 낳은 애기가 결혼할 때 옷을 해준다.

③ 녀들임

아이들이 놀랐을 때 집에서나 아이가 놀란 장소에 가서 녀을 불러들인다.

④ 귀양풀이

죽은 영혼을 하늘로 잘 보내는 목적과 집 안에 남은 사귀를 내쫓는 목적이 있다.

귀양풀이는 장자 지내고 돌아 온 날 심방을 불러서 한다. 제물은 장사 지낼 때 준비한 제물을 귀양풀이 용으로 따로 챙겨두고 심방에게 내놓으면 심방 일행이 메나 제물을 심방 임의대로 올린다.

이 밖에 대나무 12개도 준비하는데 이것은 저승까지 가는 데에 지나게 되는 12개의 문을 의미한다.

(2) 신홍2리

① 녀들임

아이가 깜짝 놀라거나 아플 때 아이의 녀을 들이기 위해 아이가 깜짝 놀란

h) 죽은 사람의 옷, 신발

i) 실, 지전

j) 요왕문(8문)과 귀양풀이(12문)의 제물을 따로 차린다.(한 상에 올림)

㉞ 제차 : 제물진설→ 초감제→ 요왕문 열리는 곳→ 신맞이(요왕문 8문 통과)→ 하정(신에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라 권하는 것)→ 귀양풀이(12문 통과) 영맞이→ 사자(처사) 본풀이→ 바다에 같이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냇을 들임→ 돌림굿(신을 물림)→ 남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바다에 던짐

⑦ 성주풀이

㉟ 제물

a) 메 : 성주 3, 문전상 1개, 오방신장(5가지 방향) 5개, 본향 1개, 사발메 4, 보시메 6 (윗상 3, 아랫상 3)

b) 갯 : 문전상에 1개만 올림.

c) 과일 : 굴, 사과, 배, 꽃감, 밤, 대추

d) 떡 : 돌레떡

e) 실, 천 1필, 종이 10권

㊱ 제차 : 집주인 부부의 나이에 맞춰서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굿을 지낸다. 성주상을 차리고 성주에 대한 귀신을 불러온 후 이 집에 평생 살면서 굿은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비נם을 올린다. 초감제를 지내고 신에게 준비된 음식을 드시라고 고한다.(하정) 도끼로 나무를 쪼는 것처럼 집 짓는 과정을 흉내 낸 후 음복을 하고 남은 음식은 집안 곳곳 4군데에 붙여두고 성주 본풀이를 한다. 군농덕담 후에 술을 올리고 문전본풀이를 한 후 액막이를 한다.

⑧ 푸다시

몸이 아플 때 하는 것으로 아픈 사람에 대한 신을 불러와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팠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함. 그 후 녀을 들이고 분향신을 불러와 본풀이를 하고 녀들일 때 부른 잡신에게 이 사람에게 붙어선 안 된다고 물림. 성주풀이를 하지 않은 집에서는 푸다시를 집안에서는 하지 않는다.